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KTX

February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안동

온고지신, 겨울의 안동이 말하는 것
평창을 즐기롭게 여행하는 법
김보라·이지원 감독과 떠난 관광두레 여행





FIT YOUR EVERYDAY
[3WAY STYLE]



1 WAY — 2 WAY — 3 WAY

FEBRUARY 2021

KTX

060

▶ **테마 여행**

온고지신, 겨울의 안동이 말하는 것

사진: 신규철

안동 임청각

새로운 파사트의 젠틀한 진화

NEW GENTLE. The new Passat GT

스마트한 비즈니스 세단을 원한다면 파사트GT를 만나보세요.
폭스바겐 최초로 적용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DRIVE와
지능형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LIGHT를 더해
모든 면에서 젠틀하게 진화한 파사트GT. 가까운 전시장에서 경험해 보세요.



[전시장]

강남 대치 02-564-9800 강남 신사(City store) 02-516-0033 강북 미아 02-320-9630 동대문 02-2241-8888 마포 신촌 02-320-9600 목동 02-3660-9999 용산 한강대로 02-595-0070
서초 02-588-3434 송파 02-6958-0800 한남(City store) 02-747-4300 부천 032-671-4700 분당 031-760-1800 수원 031-284-3030 구리 031-563-2292 안양 031-396-0801 일산 031-904-4400
판교 031-696-0100 인천 032-471-6100 원주 033-737-6500 춘천 033-244-6400 천안 041-573-9993 청주 043-223-9944 대전 042-862-9944 전주 063-213-9500 순천 061-727-2345
광주 062-351-9500 남대구 053-559-1600 대구 053-767-1900 남천 051-611-5500 동래 051-926-5500 해운대 051-995-5500 창원 055-245-7788 포항 054-249-5000 제주 064-744-9200

[차종 및 표준 연비]

Passat GT 2.0 TDI Premium MY21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03kg, 복합 CO₂ 배출량 126g/km, 복합연비 14.9km/ℓ (도심연비 13.4km/ℓ, 고속도로 연비 17.4km/ℓ), 2등급)
Passat GT 2.0 TDI Prestige MY21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03kg, 복합 CO₂ 배출량 126g/km, 복합연비 14.9km/ℓ (도심연비 13.4km/ℓ, 고속도로 연비 17.4km/ℓ), 2등급)
Passat GT 2.0 TDI Prestige 4Motion MY21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86kg, 복합 CO₂ 배출량 136g/km, 복합연비 14.0km/ℓ (도심연비 12.5km/ℓ, 고속도로 연비 16.3km/ℓ), 2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volkswagen.co.kr

Contents

036



☎ 전국 맛집 탐방 충남 천안에서 떡을 재해석한 트렌디한 떡 카페를 찾았다.

054



사진이 그린 여행 500여 년 전 한 선비가 일생 가꾼 원림, 전남 담양 소쇄원에 겨울 손님이 찾아왔다.

086



이 계절 이 여행 지질 예술 전시장, 경기도 연천 평화누리길 11구간을 걸었다.

136



☎ 작가의 방 40년을 수행하듯 장갑 작품을 만들어 온 한국 섬유미술의 대가 정경연을 만났다.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 기법 —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EP-MAK1-E (베이지)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 프로 마사지사의 따뜻한 체온을 담아낸 기술 온열 마사지봉 —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



EP-MAK1-K (블랙)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볼 에어백 —
2018 LPGA 마이아클래식 우승 | 유소연



EP-MAK1-C (아이보리)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 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독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
- 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
- 온열 마사지봉**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



판매점 |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잘한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세호분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대로 254 오류안스빌딩 11층 | 파나소닉 수원프라자 (02)567-84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서울
시 중구 남대문로 47 | 16-7 2층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광안로 127 | 1층 | 파나소닉 용인프라자 (031)427-3794 대구시 북구 유흥동로 45 | 파나소닉 2층 | 파나소닉 대
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계룡로 36 | 7층 | 파나소닉 수원프라자 (031)424-8452 대구시 중구 영천로 55 | 25 | 25 | 1028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255-0300 부산시 동구
광복로 59-2 | 파나소닉 영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자성로 10 | 파나소닉 HD 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광남로 24 | 파나소닉 제주 프라자 (064)757-8452 제주시 구림
동 4길 3-2층 | 파나소닉 천안 프라자 (041)522-8452 충남 천안시 서북구 평안대로 209-28

Contents



026

백년가게
존재 자체가 전통이고 역사인
전북의 백년가게 다섯 곳을 다녀왔다.



099

트래블 이슈
김보라·이지원 두 영화감독이 주인이
만든 알찬 관광, 관광두레를 체험했다.



116

슬로 여행 ㉠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평창 관광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COVER STORY



독립운동을 위해 삶을 거울로
밀어 넣은 이상룡 선생의 생가
경북 안동 임청각이 당당하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
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
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021
우연한 발견
신축년 음력 새해를 맞아 10간과 12지가
교차하며 순환하는 육십갑자를 알아봤다.

022
잡학 사전
품질은 물론, 개성도 만점인
요즘 전통주를 모았다.

024
인물 탐구
1914년 2월에 태어난 화가 박수근은
기승 몽클한 그림으로 오래 사랑받았다.

051
미니 인터뷰
한국어를 농인의 언어로 옮기는
신환희 수어통역사를 만났다.

084
코레일 이슈
중부 내륙, 경북 지역이 가까워졌다.
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이 개통했다.

146
문화 돋보기
지금 전성기인 웹툰과 웹소설. 두 장르의
미래에는 더 화려한 전성기가 기다린다.

152
도시와 예술
서태평양의 휴양지 꿈을 더욱
빛나게 하는 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KORAIL INFORMATION

- 164 한국철도 소식
- 170 시간표
- 180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82 열차 이용 안내
- 184 비상시 행동 매뉴얼



건강한 한해 되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담아
올 설에도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올 설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 2021.1.22~2.14

1. 선물용 제품 10% 품목할인 (일부 품목 제외)
2. 30만원 이상 결제 시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회원에 한함)
3. 신규멤버스 가입 후 첫 구매 시
굿베이스 비타민D 에센스 증정
(단, SNS정보수신동의 및 5만원 이상 결제에 한함)

정관장몰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 기다릴 필요 없는
매장 픽업
- 선물이 고민될 땐
맞춤 상품
- 소중한 분께
특별 포장

🔍 지금 검색창에 정관장몰을 검색해보세요 (www.kgcshop.co.kr)

FEBRUARY 2021

2021년 2월호 제18권 제2호 통권(제203호) 2021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손병석(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진주영 swadjy@swadcom.co.kr 표다정 pdj123@swadcom.co.kr	
교열	오미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사진	디렉터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실장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성우에드컴 사진 디렉터	김희진 khj1@swadcom.co.kr
번역	박경리(영어)	
광고	실장	강준호 joon@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ee_40@swadcom.co.kr
온라인 마케팅	부장	이정훈 guide@swadcom.co.kr
제휴 마케팅	(주)쏘뉴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제작 지원	상무	박남규 blue@swadcom.co.kr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종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법률 자문	김병철(문정중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굿초이스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달리고 달린다

아베베 비킬라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1932년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그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 출전해 2시간 15분 16초 2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지요. 맨발로 42.195킬로미터를 달려와 결승점을 통과하고는 지쳐서 주저앉기는커녕 맨손체조를 하는 여유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에 일어난 여러 차례의 반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가 엄청난 거리를 뛰고 나서 체조를 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름 아베베 비킬라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운율이 좋아서 발음하다 머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제 세계가 좀 더 확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허기진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글에는 제가 모르는 넓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만고만한 집안 형편에 엄마는 딸을 위해 주변 사람에게서 잡지를 가져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잡지로 아베베 비킬라를 알았습니다. 완주한 다음 체조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껏 기억하고요.

특정 주제를 잡아 정리하는 단행본과 달리 잡지는 그때그때 이슈와 다양한 정보를 편집합니다. 온갖 내용을 모았기에 이름도 잡지고, 한번 가볍게 읽고 밖에 내놓아도 괜찮다고 여기지요. 저는 다릅니다. '잡다한' 기사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그해 그달의 뜨거운 화제, 알아 둘 정보를 실은 잡지는 그 시대를 보여 주는 역사책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철도 본사 도서관에 영구 보존하는 <KTX매거진>을 제작하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50년, 100년 뒤 누군가가 <KTX매거진>을 읽고 '아, 2021년의 안동은, 연천은, 한국은 이랬구나' 하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미소가 지어지는 한편 긴장이 바짝 드는 상상입니다. 오늘 한국의 풍경과 이야기, 이슈와 문화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담은 '교과서'를 만들자고 매번 되새깁니다. 이런 다짐으로 기획하고 취재해 또 한 권을 펴냅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문장, 머리를 깨우는 정보를 어딘가에서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내용은 물론이고요. 이 잡지를 한 지 7년. 그동안 저는 몇 킬로미터를 뛰었을까요. 꾸준히 달리다 보니 갑자기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함께 뛰어 주세요. 오래달리기 전교 꼴찌 기록에 빛나는 저는 여기서도 하늘과 땅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달릴 테니까요. ☑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다시 출발선

'뭘!'
서울에서 안동,
2시간!
이거 실화냐?!



2021.1.5
청량리-안동 KTX 개통

FASHION



Point
전 세계 1000개
출시한 한정판

코다크롬 리미티드 에디션

이탈리아 시계 브랜드 디원밀라노와 미국 카메라 브랜드 코닥이 레트로 스타일의 시계 '코다크롬 리미티드 에디션'을 완성했다. 노랑과 빨강으로 포인트를 줬 코닥이 연상되는 다이얼에 검정 폴리카보네이트 스트랩을 매치해 디원밀라노의 정체성까지 드러낸다. 백케이스에 필름 문양을 새겨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갤러리어클락 1644-7313

FASHION



Point
취향대로 고르는
세 가지 색상

양털카라 구스다운

따스하면서 멋스럽게 겨울을 나고 싶다면 파크랜드의 '양털카라 구스다운'을 눈여겨보자. 면 혼방 소재 코트로 단정한 느낌이 나고, 구스다운으로 속을 채워 보온성을 높였다. 목까지 포근하게 감싸는 양털 바람막이는 날씨에 따라 탈착이 가능하다. 데이트, 비즈니스 모임 등 어떤 자리든 잘 어울려 자꾸만 손이 간다. 파크랜드 080-531-7513



Point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일리 아이템

제이준 오크라 그린 스킨케어 3종

건조한 겨울, '제이준 오크라 그린 스킨케어 3종'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가꾼다. 식물성 유산 성분이 수분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오크라와 병풀, 약모밀, 불가리스썩 같은 식물 추출물을 함유해 순하다. 마스크로 피부에 영양분을 전달한 후, 올인원 젤 에센스와 하이드레이팅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탄력을 더한다. 제이준코스메틱 080-881-2001



Point
 반사 효과가 좋아 밤길에도
 안전한 3M 리플렉티브 소재

무브

야외 활동에 알맞은 신발을 찾고 있다면 아웃도어 스니커즈 '무브'를 주목하자. 코오롱스포츠의 섬세한 기술로 만들어 발가락, 발꿈치, 발목 등을 보호해 주니 자신 있게 걷는다. 험한 지형에서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비브람 밑창을 장착했다. 방수 기능이 탁월한 고어텍스 안감 덕분에 변화무쌍한 날씨도 두렵지 않다. 코오롱스포츠 1588-7667

Point

휴대하기도,
비치하기도 편한 종이 향수



왕의 꿈 3종 세트

역사가 품은 향을 종이에 옮겼다. 에이치스토리의 종이 향수 '왕의 꿈 3종 세트'는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담긴 나무 향, 정조가 세운 규장각을 기억하는 창덕궁 후원의 꽃향기, 나라의 독립을 염원한 민중의 송고함이 떠오르는 목련 향으로 구성했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과 함께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에이치스토리 070-7578-2693

BAEKHAK JAYURO RESORT

휴식, 골프, 비즈니스 행사까지
자유라는 이름의 생태리조트



자유로 골프&리조트
JAYURO GOLF&RE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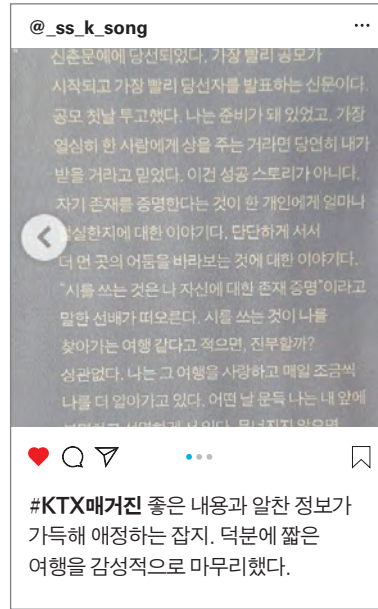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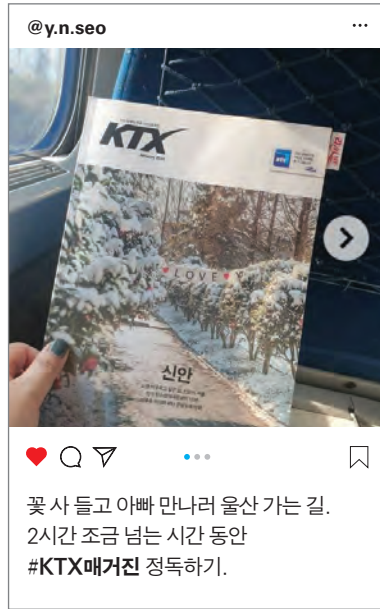


낮에는 페어웨이가, 밤에는 별빛이 보이는 스위트 룸



연천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와 다양한 부대 편의시설





#KTX매거진
 #SNS에서 #찾은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정리. 표다정



SNS 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 올려주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코즈메틱 브랜드 델라비에의 '셀레니티스 토탈민티 겔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시 처음 뵈겠습니다

새로워진 처음처럼

더 부드럽지만 더 소주다운 맛

새로운 16.5도와 대관령 기슭 암반수로





[테마여행] 이준용

안동문화관광해설사

마스크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맺히는 날이었다. 기온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26도. 해설사님은 눈꽃 같은 눈썹을 하고도 불꽃 같은 해설을 들려주셨다. 죄송한 마음에 “차에서 몸 좀 녹이고 계세요” 해도 “괜찮아요, 안 춥습니다”라고 덜덜 떨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셨다. 책임감이, 안동 사랑이 겨울 추위보다 강한 분이였다. 취재 전 전화로, 취재 이틀 동안, 취재 이후엔 또 전화로 질문을 200개쯤 한 것 같다. 모든 답변에 진심이 담겨 돌아왔다. 좋은 해설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취재지를 섭외해 준 안동시청 김민정 팀장님과 남정훈 주무관님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동, 사람이 좋은 곳. 김현정



[슬로 여행] 전재구

평창관광택시기사

‘슬로 여행’ 취재에서 평창군 택시 운행 경력 30년에 빛나는 전재구 기사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평창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일에 대한 열정까지 두루두루 갖춘 분이기에 때문이다. 몸에 부착한 핫팩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할 만큼 추운 날, 촬영을 마치고 택시로 돌아온 취재팀에게 미리 데워 놓은 핫팩을 건네주시는가 하면, 월정사 주차장 화장실이 따뜻하다는 고급 정보도 알려 주셨다. 이동하는 중간에 스마트폰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지 먼저 물어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다음 여행자를 위해 캐비닛 위치 같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도 잊었다. 기사님, 다음 여행도 함께해요! 진주영



[이 계절이 여행] 김신영

연천한탄강세계지질공원해설사

촬영하며 수많은 문화관광해설사님을 만났는데 손으로 적은 자료를 받아 보기는 처음이다. 한 자 한 자 적었을 해설사님 모습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서 뭉클~ 솟았다. 그뿐 아니라 그날 촬영할 여행지 자료도 살뜰히 챙겨 파일에 첨부 주셨다. 주신 정보도 꼼꼼히 살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날 동행한 해설사님은 두 분. 김신영 해설사님 외에도 ‘이 계절이 여행’ 칼럼에서 지팡이를 들고 트레킹하는 사진의 주인공인 교회상 해설사님이 함께 했다. 촬영 날 최적의 동선을 제안하시고, 현장에서 정확한 설명으로 속속 이해되도록 도와주셨다. 갑자기 헤어지는 바람에 글로나마 마음을 전한다. 이내경



[도시와 예술] 함지원

관광부관광청 영업·마케팅팀과장

“얼굴 한번 빈 적은 없지만 감사해요. ‘도움 주신 분’ 칼럼에 소개하려는데 사진을 보내 줄 수 있으실까요?” 수화기 너머로 멋쩍은 표정을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과장님은 흔쾌히 수락하시고는 사진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잠시 후 도착한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깜짝 놀랐다. 장소도 구도도 포즈도 다양하게 챙겨 주셨다. 역시 배우 신분~♡ 이번 호 ‘도시와 예술’ 칼럼에서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에 가서 꼭 보면 좋을 예술 작품을 추천하고 원고와 사진 자료도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 고운 분이 작성한 기사는 152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내경



순환하는 삶, 육십갑자

10간과 12자를 차례로 조합해 만든 육십갑자는 멈추지 않고 순환한다. 우리의 삶처럼.



신 辛

축 丑

글. 김규보

“신축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으며 갑진년에 즉위하여 병신년에 승하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총서의 한 대목이다. 여기에 나온 연도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변환하면 이렇다. ‘172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으며 3년 뒤인 1724년에 즉위하여 그로부터 52년 뒤인 1776년에 승하했다.’ 잠깐, 올해도 신축년인데...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된 1721년과 2021년이 같은 신축년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이 궁금해 이 글을 계속 읽어 나갈 분들을 미리 축하해 본다. 누구나 듣게 되지만 모두가 아는 건 아닌 육십갑자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에. 맞다. 이걸 음력 설맞이 육십갑자 이야기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자. 원편의 표를 참고하면 쉽다.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를 10간,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12지라고 부른다. 이를 조합한 게 육십갑자로, 10간의 ‘간’과 12지의 ‘지’를 따 육십간지라고도 한다. 10과 12를 어떻게 조합해야 육십, 즉 60개가 되는지 설명할 차례다. 육십갑자의 첫 번째는 ‘갑자’로, 10간의 첫 간인 ‘갑’과 12지의 첫 지인 ‘자’를 붙인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 간인 ‘을’과 다음 지인 ‘축’이 만난 ‘을축’이다. 다시 말해 10간과 12지는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계유’까지 내려온 이후 10간은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한 번째는 ‘갑술’이 된다. 10간과 12지가 교차해 나가다 육십 번째인 ‘계해’에 이르러 반복되지 않는 모든 조합이 끝난다. 따라서 육십일 번째는 ‘갑자’로 회귀한다. 육십갑자의 갑이 돌아온다는 뜻의 환갑이 61세인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영조실록’ 문구의 의문도 자연스레 풀린다. 육십갑자로 연도를 표기할 경우 60년마다 같은 간지의 해가 되고, 1721년과 2021년의 차이인 300년은 60년의 배수로 딱 맞아떨어지니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된 해와 올하는 같은 신축년이다.

구성과 법칙은 알았고, 기원과 뜻풀이가 남았다. 육십갑자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은 대신에 몇 가지 설이 존재한다. 중국 전설의 제왕인 황제가 스승인 대요에게 만들도록 명했다는 설, 중국 고대 삼황 중 천황씨가 직접 창안했다는 설 등이다. 왜 ‘10’간이고 ‘12’지인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하다. 손가락이 10개여서 10진법이 발전했듯 10간도 그러하다는 설, 보름달이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삭망월이 1년에 열두 번이어서 12지라는 설이 대표적이다. 그럼 뜻은? 갑골문에 등장하는 간지를 해석하면 ‘갑’은 물고기, ‘을’은 갈, ‘자’는 어린아이, ‘축’은 손 등으로 본다. 후대로 넘어가면서 사마천의 <사기> 등 고문헌에서 ‘갑’은 만물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을’은 힘겹게 자라나는 것, ‘자’는 싹이 트는 것, ‘축’은 엮어매는 것 등 음양오행의 의미로 전환됐다.

한반도에서는 세종이 역서인 <칠정산>을 편찬한 1444년을 원년 삼아 육십갑자로 연도를 셈했다. 그래서였다. 계유정난이나 임진왜란을 비롯해 육십갑자를 명칭에 사용한 사건은 다 1444년 이후 일이고 이전 시기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인 사례는 없다.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확인해자는 게 있다. 직선으로만 뻗는 그레고리력과 다르게 10간과 12지가 동시에 변화하며 만드는 간지의 순환, 이게 바로 육십갑자의 작동 원리다. 올해를 기점으로 60년 뒤인 2081년, 육십갑자는 순환을 마무리하고 또 한 번의 신축년을 시작한다. 반대로 올해는 1961년이 기점인 육십갑자 순환이 60년 일주를 끝내고 다시 출발하는 신축년이다.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올해는, 오늘은, 이 순간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첫 번째 지금을 살고 있다. ☑

전통주에 진심인 편

인생은 짧고 세상에 좋은 술은 많다. 국산 쌀과 과일로만 빚은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소개한다.

글. 이내경 사진. 이철 도움말. 조성주

1 고흥유자주08_녹동양조장

'고'흥 '유'자주가 GO to YOU(당신에게 갑니다). 캐치프레이즈에 '심쿵'했다. 전남 고흥 친환경 쌀과 유자로 빚은 약주는 마시는 순간 유자 향이 입안에 산뜻하게 감돌고, 마시고 나서는 곡물 자체의 고소함이 남는다. 가볍게 한잔하는 날엔 알코올 도수 8도의 '고유 08'을, 진한 유자 향과 술맛을 느끼고 싶은 날엔 알코올 도수 12도의 '고유 12'를 선택하자. 다양한 매력에 반할 수밖에. 내게 오세요~

2 나루 생 막걸리_한강주조

감미료는 하나도 넣지 않고, 서울 지역 특산물 경복궁쌀로 만드는 생막걸리다. 한 모금 머금은 순간 쌀 자체의 단맛과 묵직한 보디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효모와 젖산균이 살아 있는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맛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달콤한 과일 맛이 나고 목넘김이 부드럽다가 유통기한에 다다르는 4주 차에는 탄산과 산미가 강해지고 드라이해진다. 도수는 6도와 11.5도 두 종류.

3 오메기술_제주샘영농조합법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하나는 오메기떡, 둘은 오메기술. 예부터 물이 귀한 제주도는 술도 쌀 대신 좁쌀로 양조했다. 오메기는 좁쌀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제주 선인이 즐겨 마신 술을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했다. 오메기떡에 누룩가루, 제주의 화산 암반수를 섞고 발효시킨 후 위에 뜬 술로, 씹싸름하면서 향이 부드럽다.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조릿대를 넣은 특별한 술이다.

4 편백술 산소 막걸리 딸기 스파클링_(주)청산녹수

이 막걸리를 주문하기 전에는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한다. 이름이 이렇게나 긴 이유는 좋은 것을 그만큼 담았다는 이야기. 국내산 햅쌀을 네 번 발효해 쌀의 진한 단맛을 우려내고, 전남 장성에서 수확한 설향 딸기를 더해 총 다섯 번 15도 이하에서 저온 발효한 스파클링 막걸리다. 상큼 달콤 톡톡 쓰는 맛이 막걸리 세계의 지평을 넓힌 듯하다.



1
Chef's Tip. 식전에 술에 탄산수를 타서 입맛을 돋우거나 식사를 마무리할 때 디저트와 즐겨도 좋을 달콤한 술이다.



2
Chef's Tip. 묵직한 보디감에 멜론이나 참외 향이 감돌아 기름기가 적당한 찜닭, 닭백숙 등 따뜻한 음식과 궁합이 맞다.



3
Chef's Tip. 돔베고기 등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 준다. 함께 먹기 좋은 제철 식재료는 제주 월동무, 김장철 지난 배추.



4
Chef's Tip. 탄산과 산미가 강한 이 술에는 식초가 들어간 무침이나 숙회가 어울린다. 겨울엔 새고막이나 꼬막숙회가 적당하다.



조성주 셰프
전통주에 매료되어 요리에 입문했다. 서울 서교동에서 한식 주점 '얼쑤'를 운영 중이며, 최근 신사동에 '얼쑤비스트로'를 오픈했다.



가장 보통의 화가, 박수근

가진 거라곤 붓과 팔레트뿐이던
가난한 화가 박수근은
그 시절의 온기를 화폭에 옮겨 냈다.

글. 진주영



↑ '나무와 두 여인', 캔버스에 유채, 130×89cm, 1962

↓ 서울 창신동 집 마루에 앉아 있는 박수근과 그의 아내 김복순, 막내인애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박완서 작가가 1970년 발표한 소설 <나목>에는 가난한 화가 옥희도가 나온다. 박수근 화백의 대표작 '나무와 두 여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나목으로 비유되는 옥희도가 바로 박수근이다. 두 사람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 PX에서 만나 짧은 우정을 나눴다. 그때 화백은 손수건이나 스카프 등에 미군과 그들 애인의 기념품이 될 초상화를 그려 주고 받은 돈으로 먹고살았다. 그런 그가 오늘날 역대 경매가에 낙찰되는 작품을 남길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914년 2월 21일, 강원도 양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화백은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현재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도 겨우 졸업한다. 첫째인 박수근이 동생들을 챙기고, 살림도 도와야 했다. 그러는 중에 틈틈이 산과 들로 나가서 그림을 그렸다. 그 생활을 몇 년, 1932년 열여덟 살이 된 그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한가한 농촌 풍경을 담은 수채화 '봄이 오다'로 입선해 화가로 데뷔한다. 이후 몇 차례 더 입선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지만 그림만으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어린 시절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프랑스 화가 밀레를 동경하던 소년은 생업과 작품 활동을 오가는 생계형 화가가 된다. 1940년대엔 평안남도 도청에서 서기로 일했고, 전쟁 때 피란처인 군산 부두에서 막노동도 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분단, 전쟁을 경험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 이산가족이 된 적도 있고, 전쟁 중 아들을 잃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난리 통을 겪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식으로 미술을 배우지 못해서 오히려 서민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봤는지도 모른다. '농가의 여인' '노상에서' '우물가' '판자촌'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은 대상도, 배경도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 어린 동생을 업은 소녀, 행상하는 여인들, 골목에서 공기놀이하는 어린이들처럼 고단하지만 평화로운, 그래서 더 소중한 생의 장면이 화폭에 남았다. 1965년 작고한 그는 평생 4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 살아생전 지금처럼 훌륭한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백내장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후에도 붓을 놓지 않았다. 박완서의 표현을 빌려 '김장철의 나목'처럼 추운 겨울이 가고 머지않아 봄이 오리라 믿었기에 계속해서 그려 냈을 것이다. 그 시절 보통의 삶을 산 작가는 오늘날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불린다. 그의 작품에 녹아든 평범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는 까닭이다. K



단독미군수박수근수영 ©

아트센터인천 2021 기획공연

Series 작곡가 시리즈 II: 혁신의 음악가, 라흐마니노프
Composer series II: S. Rachmaninov
7.10 / 11.6 sat

토요스테이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Saturday Stage: J. Brahms
4.24 / 6.26 / 8.21 / 10.23 / 12.11 sat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Matinée Concert
4.21 / 6.30 / 8.25 / 10.27 wed

콘서트 오페라
Concert Opera
5.22 / 11.20 sat

World Orchestra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 크리스티안 베주이텐호우트
Freiburg Baroque Orchestra & Kristian Bezuidenhout
5.29 sat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 구스타보 두다멜
Mahler Chamber Orchestra & Gustavo Dudamel
7.18 sun

사라 장 & PKF 프라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Sarah Chang & PKF-Prague Philharmonia
9.28 tue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Warsaw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10.9 sat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Mariinsky Orchestra
10.31 sun

ARTS CENTER INCHEON 2021

Ensemble & Recital 백건우와 슈만
Kun-Woo Paik & Schumann
3.6 sat

힐러리 한 바이올린 리사이틀
Hilary Hahn Violin Recital
TBA

자비네 마이어 & 아르미다 콰르텟
Sabine Meyer & Armida Quartet
9.16 thu

임선혜 & 다미앙 귀용
<스타바트 마테르>
Sunhae Im & Damien Guillon
<Stabat Mater>
11.27 sat

장 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Jean-Guihen Queyras
Cello Recital
12.4 sat

조수미 & I MUSICI
Sumi Jo & I MUSICI
12.12 sun

Family & Kids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2021 Disney In Concert
8.27 fri

키즈콘서트 다목적홀
Kids Concert
5.5 wed / 8.7 sat

청소년을 위한 스크 클래식
School Classic
4.17 / 6.12 / 9.4 sat

Special Concert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Amateur Orchestra Festival
8.12 thu - 8.14 sat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다목적홀/콘서트홀
ACI Concert
10.16 sat

2021 송년음악회
Farewell Concert
12.21 tue





삶이 꽃피운 역사, 백년가게의 힘

오랜 세월에도 변치 않는 맛과 정성, 존재 자체가 전통이고 역사인 전북의 백년가게를 소개한다.

글. 진주영 사진. 박정우

취재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함지박

향수를 자극하는 경양식 레스토랑



경양식 레스토랑 '함지박'은 1989년 익산역 근처에 자리 잡았다. 창업 초기, 어머니 황혜숙 씨와 아들 박정수 대표는 밤낮 모르고 일했다. 오전과 오후에는 어머니가, 대학생이던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와 늦은 밤까지 손님을 맞았다. 인기 비결은 단연 훌륭한 음식 맛이다. 경양식이 귀하던 때, 돈가스 속을 치즈로 가득 채운 함지박 이탈리아 돈가스는 흔치 않은 별미였다. 그 맛과 분위기를 잊지 못한 이들이 지금도 얼굴을 내민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고기 손질부터 수프, 소스 제조 등을 손수 하니 이곳 음식에 믿음 이 생긴다. 꾸밈없는 음식이야말로 박 대표가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아내 우숙희 대표가, 최근에는 둘째 딸이 합류해 3대째 손맛을 대물림 한다. 앞으로도 변치 않겠다는 약속이 반가운 곳이다.



📍 익산시 동서로63길 60
☎ 063-841-3211
☕ 함지박 이탈리아 돈가스 1만 6000원
🥩 이탈리아 함박 스테이크 1만 7000원

백년 시리즈 전북 편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객의 사랑을 받아 온 점포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공식 인증한 점포이며, '백년소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인 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숙련 기술 기반 소공인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추천 링크로 이동합니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직접 추천해 주세요!



☎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한양불고기

전국에서 찾아오는 불고기 맛집



전국구 식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1978년 '한양불고기'가 야심 찬 첫발을 땀다. 6년 뒤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홍래 대표는 크고 작은 경영 위기를 성실함 하나로 버텨 냈다. 그런 그의 하루는 여전히 일분일초가 모자랄 만큼 분주하다. 오전 6시에 기상해 장을 본 후 재료를 손질한다. 그러고선 밤 11시 까지 요리, 서빙, 주차 관리, 청소 등 대부분의 일을 도맡는다. 가족을 대한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그의 진심은 얼굴 사진을 내건 간판에서도 느껴진다. 국내산 최상급 돼지고기에 성심성의껏 제조한 양념장을 더한 이곳 불고기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정갈한 맛이다. 돼지불고기뿐 아니라 낙지나 한우를 넣은 메뉴도 꾸준히 개발해 왔다. 그 결과, 아버지의 염원대로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이 박 대표 손맛을 느끼고 간다. 43년간 울곧게 가꿔 온 마음이 빛을 발하는 중이다.



📍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6
☎ 063-228-8011
🍴 옛날돼지불고기 1만원 낙지불고기 1만 3000원



이성당

76년간 한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빵집



1945년에 오픈해 현재까지 76년,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 '이성당'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빵을 구웠다. 집안 어른인 창업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다음으로 2003년 며느리인 김현주 대표가 가업을 물려받았다. 1984년 결혼한 이후 IMF 외환 위기, 주변 상권의 쇠락 등을 경험한 김 대표는 이성당의 본질을 지키는 한편,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2006년 이성당 최초의 쌀빵인 블루빵을 출시하면서 쌀빵 비중을 늘려 왔다. 밀가루보다 쌀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맛이 최우선'이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되새기며 좋은 재료를 엄선해 쓰고, 당일 만든 빵만 판매한다. 이곳 스테디셀러인 앙금빵의 단팥은 원가 상승에도 수십 년째 양이 그대로다. '오랜만에 먹어도 여전히 맛있는 빵'. 100년을 넘어 수백 년의 역사를 새 내러갈 이성당의 목표이자, 백년가게 이성당에 꼭 맞는 찬사다.



📍 군산시 중앙로 177
☎ 063-445-2772
🍴 앙금빵 1500원 야채빵 1800원





한일관

정성을 듬뿍 담은 따스한 밥상



1954년 문을 연 '한일관'은 배고픈 시절, 전주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 주던 곳이다. 아침이면 따끈한 콩나물국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려는 이들이 문전성시였다. 불판엔 서른 개의 뚝배기가 펄펄 끓곤 했다. 큰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어 3대 경영자가 된 이호준 대표는 미세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이끈다며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인다. 방앗간에서 짠 참기름, 최상급 고춧가루, 균일한 품질의 옥수 등으로 국밥과 전주식 비빔밥을 만들어 그리운 맛을 찾아 오는 이에게 보답한다. 한일관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곧 전주의 전통이 된다는 사명감을 느낀 이 대표는 어릴 때부터 이곳을 오가며 한일관의 역사를 몸으로 익힌 산증인이다. 그가 내놓는 한 그릇의 요리가 소중한 이유다.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8
063-226-1569
콩나물국밥 7000원 전통전주비빔밥 1만원



유정초밥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일식집



스물아홉 살 청년이 군산에 일식집을 차리고 44년째. 그 사이 '유정초밥'은 초밥 명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어려서부터 일식을 즐겨 먹은 김진환 대표는 간간한 입맛을 심분 활용해 최상의 요리를 낸다. 식재료는 신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매일 새벽 장보기에 나선다. 그간 쌓은 노하우로 척 하면 척, 최고의 재료를 고른다. 당일 필요한 만큼 구매할뿐더러, 실령 남더라도 바로 폐기하니 언제 방문해도 싱싱한 식감에 반한다. 진가를 알아본 이들이 문턱을 계속해서 넘나든다. 그런 가운데 청년은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가 됐다. 오랜 단골이 건네는 안부가 그저 고맙다. 주인장과 손님의 삶이 어우러진 이곳은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일식집이자 맛집으로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군산시 대학로 6-4
063-445-9844
모듬초밥 2만원 사시미정식 4만원(점심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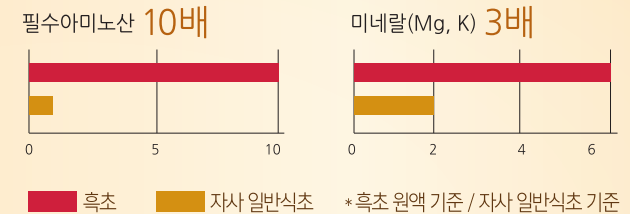
백년 동안

건강한 백년을 위한 좋은 습관 백년동안

3단계 자연발효 식초의 왕 흑초



흑초와 자사 일반식초의 영양성분 비교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특별한 할인가로 흑초를 만나보세요.
QR코드 사용방법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에서 스캔코드를 촬영 시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문의: 새미네마켓 스마트스토어 특특 또는 080-870-7777(수신자부담)



플친 하면
할인쿠폰 지급!

Ch 라쉬반+

판매: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 (주)에스제이트랜드



토트넘 홋스퍼
공식 라이선스 언더웨어



플친 하면
할인쿠폰 지급!

Ch 라쉬반+



 **TOTTENHAM
HOTSPUR**

토트넘 홋스퍼
공식 라이선스 언더웨어



 **TOTTENHAM
HOTSPUR**

판매: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 (주)에스제이트랜드



편안한 남자로 바로 설때 까지

남자를 상하좌우 최적의 위치로 바르게 잡아주어
편안함을 극대화 시켜주는 분리특허 라쉬반

내장 봉제 된 실리콘 밴드로
언제나 완벽한 분리유지



플친 하면
할인쿠폰 지급!
Ch 라쉬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가장 먼저 당신을 응원합니다.



떡을 재해석하다

충남 천안에서 맛과 예쁜 플레이팅을 겸비한 떡 카페를 찾았다.
이게 떡이라고요? 맞습니다.

글. 표다정 사진. 장은주

천안



QR코드를 스캔하면
천안의 떡 카페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6 037



눈들재

@noondlejae_official

예전에는 일봉산 남쪽 아랫마을을 눈들마을이라 불렀다. 산기슭에 둥글고 긴 돌 두 개가 누워 있어 누운 돌, 누운 돌 하던 것이 눈들이 되었다. 눈들마을 터에 지은 카페가 '눈들재'다. 콘셉트는 편안한 공간에서 즐기는 떡 카페. 지난해 11월 출시한 떡포카토가 베스트 메뉴로, 이탈리아 디저트와 한국 디저트의 콜라베이션이다. 고블릿 잔에 초코볼 시리얼, 아이스크림, 썩찰떡과 티라미수떡을 담고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다. 쫄쫄한 찰떡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커피가 잡고, 여기에 바삭한 시리얼이 식감을 풍부하게 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에 걸맞은 메뉴가 아닐까. 모듬떡은 썩찰떡, 바나나떡과 티라미수떡을 맛볼 수 있다. 떡과 어울리는 시그니처 음료도 선보이는데 순우리말인 라라, 라운, 다운으로 이름을 지었다.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뜻인 다운은 수제 키위청과 히비스커스차를 배합한 음료로, 상큼한 맛이 근사하다. 잔 가장자리에 콩가루를 묻혀 고소한 맛을 한껏 끌어올린 구운고구마라떼는 겨울 시즌에 꼭 맛볼 것. 시그니처 음료 주문 시 제공하는 포춘 쿠키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내자는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 떡포카토 5500원 모듬떡 5500원 시그니처 음료 6000원
☞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43-20 ☎ 010-3248-1314

디어젠

@dear.jen_

"이곳의 대표 메뉴는 무엇인가요?" 방문하기 전 전화로 여쭙 보니 "구움찰떡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움찰떡이라서 불로 굽는 떡이겠구나 했다. '디어젠'에서 마주한 구움찰떡은 오븐에서 구운 떡으로, 언뜻 보면 스콘 같다. 브라우니, 씨앗호떡에서 착안한 메뉴와 무화과, 모카, 플레인 등 토핑으로 맛을 낸 열 가지 떡이 진열대를 가득 메운다. 소보로 가루를 올린 소보로구움찰떡은 한 입에 가볍게 바스러지더니 이내 쫄득한 식감이 이어진다. 김주는 대표를 카페를 운영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어디 쌀인지, 얼마나 불리는지, 어떤 크기로 분쇄하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떡에 매일 매료된다. 일주일 동안 필요한 분량만큼 정미소에서 쌀을 받아 사용하고, 주문 받은 떡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약 시간에 맞춰 만드는 원칙을 지킨다. 청 또한 제철 과일로 담근다. 이런 정성 어린 마음으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연다. 이곳 떡으로 백일과 첫돌을 치른 아이가 이제는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 방문한다며, 오픈 이후 인연을 맺은 손님 얘기를 들려주는 김 대표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지금은 떡 브런치 메뉴를 구상 중이다. 입이 떡 벌어지는 맛있고 예쁜 브런치가 벌써 기다려진다.

☞ 구움찰떡·찰떡브라우니 2000~3000원 수제 차(오미자) 3500원

☞ 천안시 동남구 신원3길 87 ☎ 010-4364-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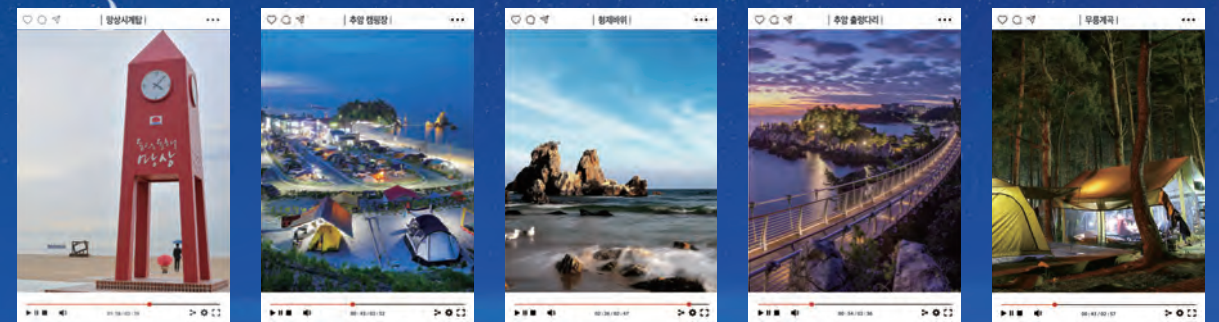
너에게 가장 동해!

하늘에, 바람에, 그리고 동해시에

동쪽 하늘에, 동쪽 바다에, 그리고 동쪽 도시 동해시에!

도시의 분주한 일상은 잠시 뒤로 하고 여유와 힐링을 찾아 떠난 당신
여기, 동쪽 도시 동해시의 하늘과 바다와 바람을 느끼며 그 평안과 너그러움에
일상의 여유를 얻어가며 기쁘게 감동합니다.

Healing Memory
논골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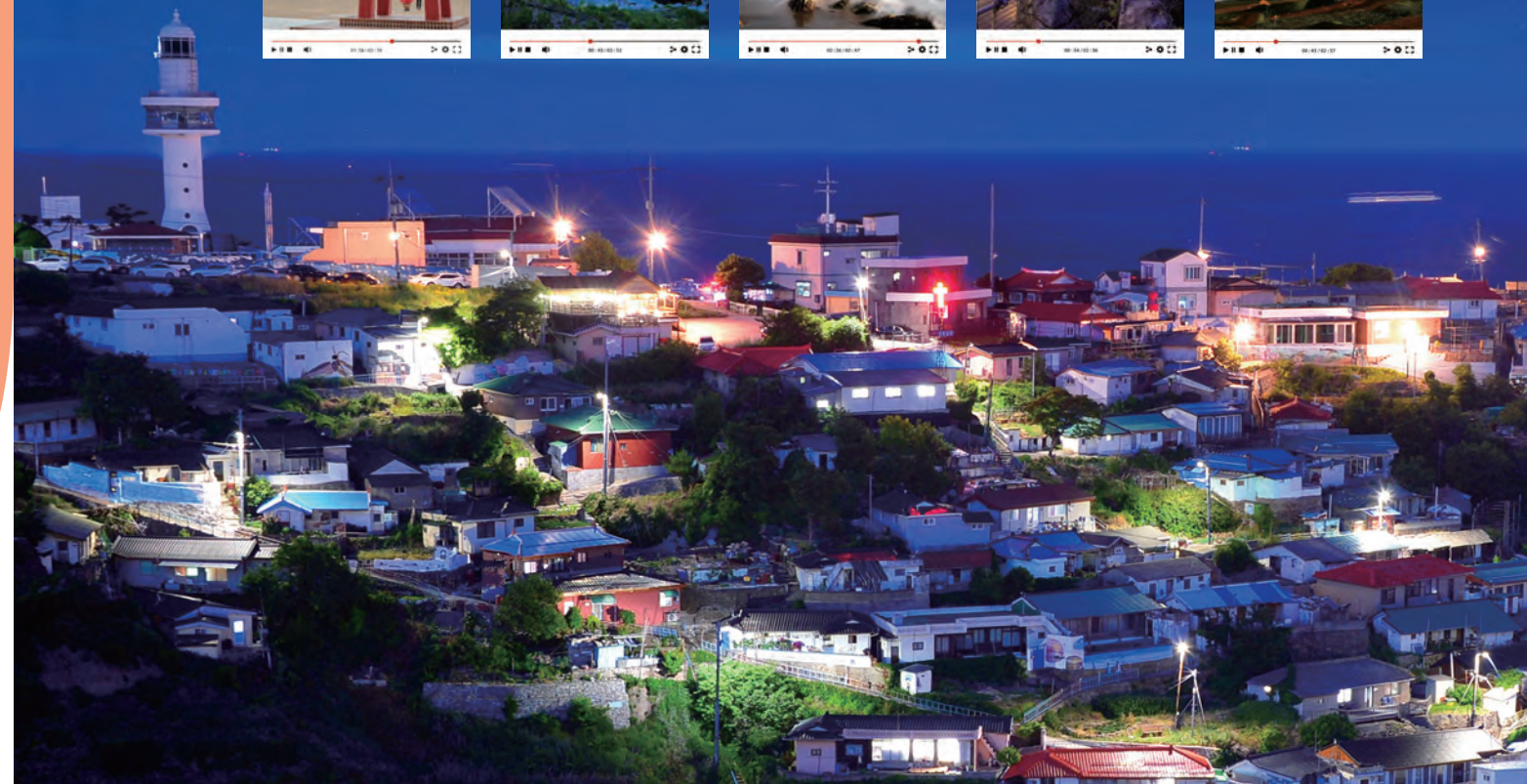


미미당906

@mimidang906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갈이 오막조막 널려 있고, 시선을 두는 곳마다 식물이 가득하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한 '미미당906'은 천안 불당동 카페 거리에 들어선 첫 떡 카페다. 아름다움 '미(美)'와 쌀 '미(米)'로 이름 지은 이곳은 오롯이 쌀 디저트만 취급한다. 대표 메뉴는 설기케이크. 쌀로 만든 시트에 생크림과 고구마 무스를 올린 고구마설기, 쌀과 흑임자를 섞은 시트에 견과류를 넣고 생크림으로 마무리한 흑임자설기 등 종류가 다채롭다. 떡케이크는 양금으로 장식한 케이크라는 고정관념을 깬다. 오픈 당시 떡으로 만든 게 맞느냐고 묻던 손님들이 지금은 떡케이크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한다. 그 중심에는 김영주 대표가 있다. 수분이 금방 날아가는 설기의 특성상 조각으로 잘라 판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인용 설기 틀을 제작했다. 김 대표는 매장을 연 후 밀가루나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많음을 실감하고, 다양한 쌀 디저트를 선보이기 위해 쌀 베이킹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븐에서 구운 바스크치즈케이크와 당근케이크, 아몬드·호두 등 견과류가 넉넉한 찹쌀파이도 인기다. 당연히 쌀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다.

☎ 딸기크림치즈설기·고구마설기 7000원 찹쌀파이 3500원
📍 천안시 서북구 불당16길 4-10 ☎ 010-2276-9060



딸기는 맛있어, 맛있어서 반하나? 🍓🍓

어딜 가나 딸기가 가득하다. 딸기가 풍당 빠진 디저트를 모았다.

정리. 표다정 사진. 이철

1 파리바게뜨 | 행복해 딸기풍당 케이크

2 GS25 | NEW 딸기샌드위치

3 빙그레 | 빵또아 딸기

4 CU | BERRYBERRY 딸기우유슈

1 파리바게뜨_행복해 딸기풍당 케이크 2.7점

김현정 모양은 예쁘지만 맛은 안 예... 평범하게 시작해 슬슬 시동을 걸더니 중심부에서는 잼을 처덕처덕. 나를 넘어서는 도전의 맛. ☆ / 김규보 녹고 스며들고 천천히 퍼지다 마음에 기쁘다. 딸기잼과 크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 / 이내경 보기 좋은 케이크가 역시나 맛도 놓치지 않았네요~ 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순간 바지 버클도 무장해제 :) ★★★★★ / 진주영 부드러운 딸기 크림에 촉촉한 빵, 그 안에 쫄박힌 딸기잼이 별미. ★★★★★ / 표다정 딸기가 제철이니만큼 딸기 케이크가 쏟아진다. 그 속에서 만난 우린 운명일까? 아니었네^^ '중심에만 있는' 딸기잼 때문에 멀어진 우리 사이. ★

2 GS25_NEW 딸기샌드위치 4.2점 🍓🍓

김현정 인생 첫 편의점 샌드위치가 인생 샌드위치가 되었다. 냉장고 들어갔다 나온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래서 딸기 샌드위치는 GS25가 갑이라 했구나. 딸기부터 식빵까지 갑이심 인정. ★★★★★ / 김규보 식빵과 딸기의 조합이 이토록 사랑스럽다니. 입안에 번지는 크림 맛은 연인이 서로 건네는 선물처럼 달콤하다. ★★★★★ / 이내경 흑시 오늘 새벽에 수확한 딸기인가요? 싱그러운 딸기 맛에 감. 짹. 놀랐다. 판매 기간인 4월까지 하루도 놓치지 않을 고포예요~ ★★★★★☆ / 진주영 상큼한 딸기와 달콤한 크림의 대결. 제 평가는요, 크림 승! ★★☆☆ / 표다정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맛있는 샌드위치. 다음 주에도 맛있을 예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_♥★★★★★

3 빙그레_빵또아 딸기 4.1점

김현정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왕자의 침대 매트리스라는 빵또아! 그러나 포장의 풍성한 딸기 과육과 현실이 좀 다르네요. 왕자님, 보정이 과했어요. ★★★★★ / 김규보 체험기 시식이 끝난 지금도 사무실 냉장고에 내 빵또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하게 한다. ★★★★★☆ / 이내경 오늘부터 '얼죽아' 할래요. '얼'어 '죽'어도 빵또아 딸기 '아'이스크림. 1일 1개 예약합니다. ★★★★★ / 진주영 딸기 맛 아이스크림은 언제나 울지만 빵또아는 별로. 내 마음의 별로~! ★★★★★☆ / 표다정 지난해 10월에 나왔는데! 빙그레우스님, 빵또아 딸기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빙그레 인스타그램 관리자님 도핑테스트 시급합니다. @binggraekorea ★★★★★

4 CU_BERRYBERRY 딸기우유슈 3.3점

김현정 슈는 느끼해서 언제나 나를 떨게 하는데, 우아~! 누군가 슈를 먹으라 협박할 때 한 개 다 먹을 수 있는 슈가 드디어 나왔다. ★★★★★☆ / 김규보 딸기 크림이 얼마나 빠곡한지, 이 제품을 개발한 이의 정성이 얼마나 가룩한 것인지,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이내경 베이커리 전문점이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슈 반죽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어요. 가성비는 굿! ★★★★★☆ / 진주영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가 당황했다. 생각보다 딸기 크림이 많아서. 좋다는 뜻이다. ★★★★★☆ / 표다정 슈는 냉동실에 넣어 얼렸다가 살~짝 녹았을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회사 냉장고가 문제인가? 맛과 식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아쉬웠어음. 만족한 건 입안을 가득 채우는 사이즈, 단 하나. ★

조카의 꽃 이름

이우성

네 살배기 조카 데리고 과자 사러 가는데
조카가 손가락으로 개나리를 가리키며
삼촌, 진달래 한다
진달래 아니라 개나리아 해도
진달래! 한다
기우똥 기우똥 신나게
진달래 한다
길가에 벚꽃이 줄지어 피었기에 조카에게
목련, 한다
조카도 따라서 목련 한다
내 손을 꼭 잡고
목련 한다
산들바람 불자 맞장구치듯
벚꽃도 목련하며 고개 끄덕인다
어딘가에서 목련이 벚꽃! 하는 소리 들린다

시가 된 날의 기억

조카가 개나리 보고 진달래라고 외친 날이 시가 되었다.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정 오디오 클럽 제작. 문스튜디오

이 시는 대학교 3학년 때 썼으니까, 음... 스물네 살이었다. 쓰고 나서 행복했다. 교수님께 보여 드렸더니 좋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시라는 게 어렵고 복잡한 거라고 믿었다. 내가 공부하는 현대시가 대부분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를 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어느 한순간의 기록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았다. 기록은 영원하니까. 조카는 이제 스물세 살이다. 나는, 와, 못 믿겠어, 마흔두 살이라고? 과거는 기억 속에 있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사라지겠지. 글을 쓰는 재주 덕분에 다행히, 보다시피 이렇게 남겨 둘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에게도 아름다운 순간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저 날 저 풍경은 유난히 빛난다. 잊을 수 없다기보다, 잊고 싶지 않다. 봄이었다. 모처럼 놀러 온 조카를 데리고 슈퍼에 갔다. 과자랑 사탕 사 주려고. 작은 손이 내 손안에 들어왔다. 아플까 봐 꼭 쥐지는 못하지만 놓칠까 봐 힘을 빼지는 못하는 상태로 잡고 걸었다. 조카는 마치 내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며 나아갔다. 내가 있어서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의 표정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막내아들이고, 사실은 조카 못지않게 어렸으니까.

조카가 "진달래"라고 외쳤다. 개나리인데. 우리가 주고받은 말은 시에 나와 있다. 대화를 그대로 적었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시를 만들려고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었다. 옮겨 적기만 했는데 시가 되는 걸까, 이 시를 쓰고 종종 생각했다. 어떤 시는 5시간, 5일, 5주를 써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 시가 더 시처럼 보이는 건 분명한데 좋은 시인지는 모르겠다.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시는 시처럼 보인다고 할 순 없지만,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이 시를 신문사 신춘문예에 투고했다. 스물아홉 살 겨울이었으니 5년 전 5분 만에 쓴 시를 보낸 것이다. 그동안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를 보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 시는 내 기억의 일부이고 아직 기억하는 기억이다. 기억은, 거기에 뭘 더 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아, 단어 하나를 바꿔 보려고 했는데 못 했다. '산들바람'이다. 뻘한 단어라서. 꽤 오랫동안 산들바람을 대신할 바람을 찾다가 그냥 두었다. 고민할수록 확실해졌다. 그건 그냥 산들바람이다. 진부해도 산들바람이다. 나는 지금도 개나리를 보면 진달래라고 부른다. 꽃 이름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내가 하는 흔한 바보짓 중 하나다. 나에게 틀린 꽃 이름을 알려 준 건 조카다. 꽃 이름 같은 건 아무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조카다. 꽃의 풍경을 이루는 공기와 바람, 빛과 소리를 느끼게 해 준 것도 조카다. 시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름 따위가 아닐 것이다. ☑

시인이 읽어 주는 시 오디오 클럽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우성 시인이 직접 낭독한 '조카의 꽃 이름' 오디오 클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인천, 2021년 기획 공연 라인업 공개

클래식 음악 마니아가 기다리던 아트센터인천의
기획 공연이 시작했다.

© Vern Evans



© Cliff Watt

화려한 공연 라인업과 독보적 음향으로 한국 문화계에서 명성을 쌓고 있는 아트센터인천이 2021년 기획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마니아가 기대할 만한 화제작과 클래식을 더 가깝게 즐기는 해설 음악회, 가족 관객을 위한 키즈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이 클래식 음악 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우선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아티스트 중심의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외 연주 단체가 내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월드 오케스트라, 리사이틀과 앙상블, 시리즈 콘서트 등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친 기획 공연은 총 40여 회. 이 가운데 월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으로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호우트(5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와 구스타보 두다멜(7월), 사라 장과 PKF 프라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9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10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10월) 등을 계획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연이 취소됐던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

케스트라가 드디어 한국을 찾는다 소식에 반갑다. 세계가 주목하는 포르테피아노 스페셜리스트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호우트가 처음 내한해 더 큰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LA 필하모닉 최연소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이 협연으로 참여한다.

리사이틀과 앙상블 시리즈로는 피아니스트 백건우(3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와 아르미다 콰르텟(9월), 소프라노 임선혜와 카운터테너 다미앙 귀용(11월),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12월), 소프라노 조수미와 이 무지치(12월) 등이 공연한다.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은 2018년 개관 시즌에 화제를 모은 데 이어 두 번째 초청 무대를 가지며, 세계가 사랑하는 디바 조수미는 실내악단 이 무지치와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준다. 유럽의 떠오르는 신성 아르미다 콰르텟이 거장 자비네 마이어와 펼치는 폐기와 관록의 만남도 기대된다.

최수열과 김성현의 해설 음악회 '토요스테이지'(5회),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이끄는 '마티네 콘서트'(4회), 오페라를 보다 재미있게 즐기는 '콘서트 오페라'(2회), 러시아 낭만 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 주제의 '작곡가 시리즈'(2회), 디즈니 명작을 영상과 노래, 풀 오케스트라로 감상하는 '디즈니 인 콘서트'(8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아트센터인천의 시그너처 프로그램 '토요스테이지'는 브람스를 주제로 진행한다. '콘서트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두 편을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호스트로 참여해 매회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라흐마니노프가 주제인 '작곡가 시리즈'는 지휘자 최희준과 KBS 교향악단이 연주하며,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이진상이 협연자로 참여한다.

2021년 아트센터인천의 기획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티켓을 오픈한다. 공연별 티켓 오픈 일정과 세부 사항은 추후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www.a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아트센터인천 기획 공연 라인업		
시리즈	공연명	일자
월드 오케스트라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호우트	5.29(토)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 구스타보 두다멜	7.18(일)
	사라 장 & PKF 프라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9.28(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협연: 임동혁)	10.9(토)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10.31(일)
앙상블 & 리사이틀	백건우와 슈만	3.6(토)
	힐러리 한 바이올린 리사이틀	미정
	자비네 마이어 & 아르미다 콰르텟	9.16(목)
	임선혜 & 다미앙 귀용 <스타바트 마테르>	11.27(토)
	장 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12.4(토)
시리즈 공연	조수미 & 이 무지치	12.12(일)
	작곡가 시리즈: 라흐마니노프	7.10/11.6(토)
	토요스테이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4.24/6.26/8.21/10.23/12.11(토)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4.21/6.30/8.25/10.27(수)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박쥐>	5.22(토)/11.20(토)
패밀리 & 키즈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27(금)
	키즈 콘서트	5.5(수)/8.7(토)
	청소년을 위한 스콜 클래식	4.17/6.12/9.4(토)
스페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8.12(목)~8.14(토)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10.16(토)
	2021 송년음악회	12.21(화)

문의 032-453-7700



© IORSTUDIO

01.19~04.11

<우리 곁에 있소>

대전



이응노, 대전 풍경, 1968년, 한지에 수묵담채, 28.5×36cm

전시

고암 이응노의 산수화에는 자연 풍경과 인간 그리고 동물이 있다. 작가는 산천을 벗하며 성장했고, 그것은 언제나 그가 그리워한 마음의 고향이자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 고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한지에 풀어내는 작업은 먼 타국에서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해 나가는 고암에겐 일종의 휴식이었다. 그가 프랑스에 체류한 1960~1980년대에 그린 풍경화와 프랑스 체류 이전의 실경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는 봄에 대한 기억을 담은 작품과 글로 시작해 설경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다. 마지막 4전시실에서는 작가가 1960~1980년대에 작업한 겨울 산 풍경화 20여 점을 펼친다.

장소 대전 이응노미술관 문의 042-611-9800



<이응노의 사계>

048 049

서울



전시

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신축년을 맞아 마련한 전시의 1부 '듬직하고 편안한 소'에서는 소에 올라탄 목동이 피리 부는 모습을 그린 '목우도',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멍에, 소뿔을 가공해 만든 화각함 등 80여 점의 자료로 소의 의미를 조명한다. 2부 '아낌없이 주는 소'에서는 농경 사회에서 농가의 밀천이던 소의 모습과 소의 가죽·우유 등이 일상용품의 주재료로 폭넓게 활용되기까지 변화상을 살펴본다. 소와 관련한 속담, 설화를 통해 소가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 있음을 확인한다.

장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문의 02-3704-3114



2020.12.22~2021.03.01



축제

<눈 내리는 초리골>

파주의 산골 마을이 들썩인다. 고풍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몰린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이 나서 축제장을 꾸몄다. 마을 전체가 골짜기로 이루어졌고 겨울철 기온이 낮은 자연환경을 이용해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빙어 잡기 체험을 준비했다. 추위를 녹여 주는 따뜻한 먹거리도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다. **장소** 파주 법원을 초리골 일대 **문의** 031-940-8489

01.08~02.14



다큐



<인디아 블로그>

'블로그에 여행을 포스트하듯 무대에 올린 다'라는 콘셉트로 '인도얌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연극 <인디아 블로그>는 여행을 떠난 연출가와 배우가 인도에서 만난 사람과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다. 10주년을 기념해 2011년 초연을 했던 공연장에서, 김다현·박동욱·전석호 등 초연 당시 배우와 스태프가 다시 뭉친다. **장소** 서울 연우소극장 **문의** 02-744-7090

01.14~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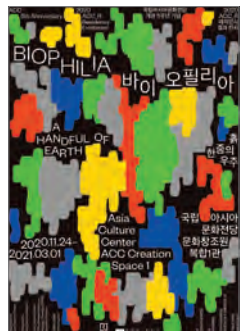


전시

<더사운드 오브 더 유니버스>

호주의 청소년 작가 엘리타 안드레가 부산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린 작가는 흠뻑이기 기법으로 자유로운 정신을 형상화한다. 최근에는 소리를 탐구하는 데 매력을 느껴 소리의 파동과 그것에서 느끼는 감정을 캔버스에 담는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드러내며 새로운 경험으로 안내한다. **장소** 부산 워킹하우스 뉴욕 **문의** 051-759-8186

01.14~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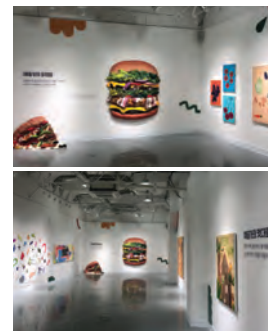


전시

<바이오피리아: 흙 한줌의 우주>

2016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시행한 'ACC_R 레지던스'는 전 세계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667명의 창작과 실험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바이오피리아(biophilia, 생명 사랑)'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정나영 작가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의 모습을 연속 이미지로 구성하고 원형으로 패턴화했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99-5566

2020.11.24~2021.03.01



전시

<미미味美>

'맛있는 느낌의 주제 및 소재'를 테마로 권현정·김은하·보름 등 다섯 작가가 각각 다른 음식에 대한 기억을 회화·조각·설치 등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했다. 김은하 작가는 버려진 옷을 재료로, 먹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살이 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패스트푸드의 기억을 재구성한 '맛있게 드세요' 시리즈를 전시한다. **장소** 수원미술전시관 **문의** 031-228-4118

2020.12.22~2021.05.28

수어, 또 하나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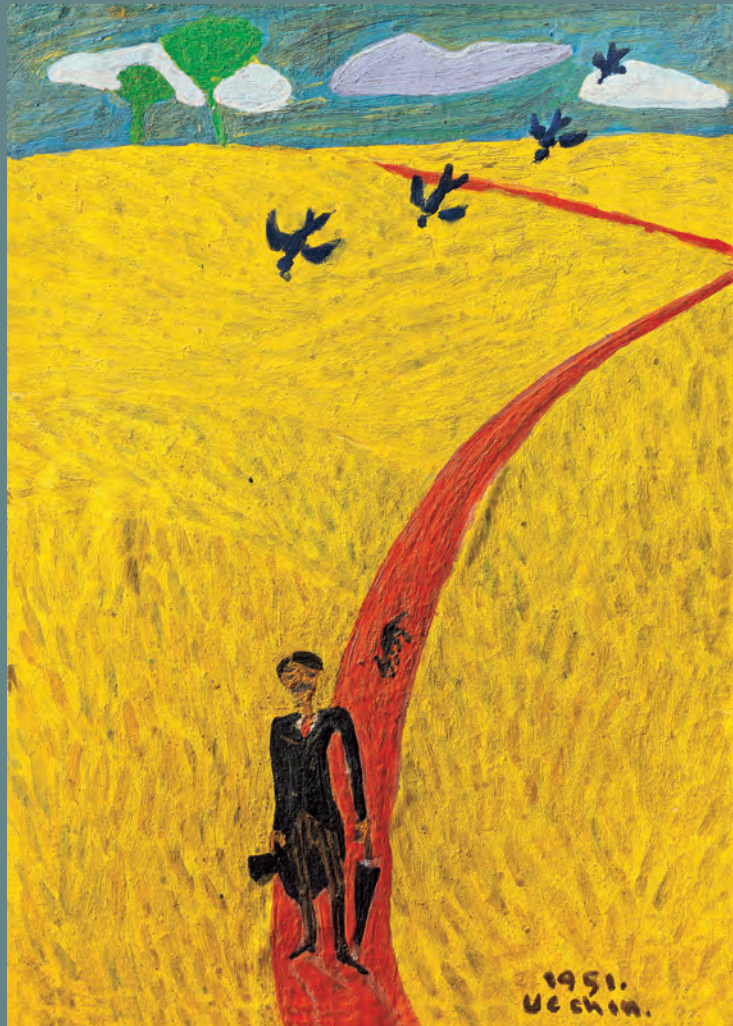
몸짓? 손짓? 아니다. 수어는 명실상부한 언어다. 한국어를 농인의 언어로 옮기는 신화희 수어통역사를 만났다. **정리. 김규보**

- 수어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과 마지막 학기 교양 수업에서 수어를 처음 만났어요. 큰 기대 없이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재밌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수어를 배우고 한 주가 지났을 때 꿈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고민 끝에 수어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1년간 많은 농인을 만나고 수어 강의는 아는 한 다 찾아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음 해에 국가 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 이후 지금까지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햇수로 13년이 되었네요.
-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브리핑 통역은 한 주에 2~3일을 하는데,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 브리핑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사를 알릴 설정해서 보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그 주에 했던 통역 영상을 보고 농인들께 피드백을 받아 다음 통역을 준비해요. 통역 당일에는 시작 몇 분 전까지 관련 기사를 다 검색해요. 브리핑 자료와 기자의 질문을 빠른 시간 안에 숙지한 후 통역석에 올라가지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언어를 빠르게 변환해 정확히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시간은 짧지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여해 오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수어통역사가 브리퍼(브리핑하는 사람)와 같은 라인에서 통역하고, 정부 브리핑을 수어로 크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좋네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농인들의 표정이 항상 생각나요. 사실 지금 TV 프로그램 화면의 수어 통역 창은 너무 작아요. 이는 청인이 TV를 시청할 때 잘 들리는 볼륨이 10이려면 1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청인은 수어 통역 창을 키우면 시청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임을 밝힌다"라고 규정해 수어를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했죠. 수어는 농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며, 보통 언어가 가진 요소를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언어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청인은 수

어를 '장애인의 것' '몸짓' '손짓' '몸으로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종종 "각 나라 수어를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들어요. 언어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다르면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현재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일제강점기가 떠오르기도 해요. 일본인이 우리에게 강제로 일본어를 쓰게 한 것과 청인이 농인에게 한국어를 강요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 오늘도 TV에서 수어통역사님의 활동을 지켜보는 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청인이 다수인 사회에는 소리로 이루어진 정보가 많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시각으로 정보를 얻는 농인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이런 제약으로 농인은 장애인인 될 수밖에 없어요. 청인이 농인을 청각장애인으로서만 생각하기보다 '잘 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농인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소리 정보를 시각화하는 일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수고나 배려가 아닌 일상이 되었으면 하고요. 시각 중심인 농인 사회에서는 청각 중심인 청인 사회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청인 사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수어를 배워 '짚' 농인 사회를 경험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






'자화상', 14.8×10.8cm, 종이에 유채, 1951

'자화상' 장욱진

글. 김규보

곡식이 여문 논길을 신사가 걷는다. 모자와 박쥐우산을 들고 서양식 예복인 모닝코트를 입었다. 강아지가 신사를 따른다. 새들도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다. 계절의 풍요를 상징하는 누런 들녘과 주인공에게 모이는 동물들. 모닝코트에서 느껴지는 이질감만 모른 척한다면 농촌의 서정을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이 제작된 시기를 떠올릴 때, 이질감이 외면하기 힘든 감상으로 다가온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에 이 그림을 그렸다. 전란의 한복판에서 표현했다고는 믿기 힘든 풍경이다. 그는 "대자연의 완전 고독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그때 내 모습... (중략) 완전 고독은 외롭지 않다"라고 말했다. 어둠기에 밝아지는 희원을, 장욱진의 '자화상'에서 들여다본다. 

* 서울 현대화랑, <집, 가족, 자연 그리고 장욱진>전, 2월 28일까지. 문의 02-2287-3591

담양 소쇄원

travel

060

어제의 안동으로 내일을 만나다

086

연천 평화누리길 11구간 트레킹

099

진주·대구·강진·순창 관광두레 여행



사진. 신규원



겨울 덮인 소쇄원 서정

500여 년 전 한 선비가 일생을 쏟아 붓던 원림,
전남 담양 소쇄원에 겨울 손님이 찾아왔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소쇄옹 양산보 선생이 1500년대 초반에 조성한 소쇄원.
 대나무 숲과 계류, 바위 곁에 슬쩍 정자를 얹고 원림을
 가꾸어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 은거의
 공간이나 가깝고 먼 데서 방문한 손님을 반가이 맞았고,
 이곳을 사랑한 대학자 해서 김인후는 시 48영을 남겼다.
 그 가운데 45영이 설경을 묘사한다. "산에 낀 검은 구름
 미처 몰랐는데/ 창을 여니 뜰에 눈이 가득하네/
 섬돌에도 두루 흰 눈이 깔리어/ 한적한 집안에 부귀가
 찾아왔구나". 눈 덮인 소쇄원을 완상하는 시간,
 과연 부귀가 찾아온 듯 뿌듯하다.



소쇄원은 슬픔에서 시작되었다. 양산보 선생은
열다섯에 정암 조광조의 제자로 들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를
배운다. 함께 만들어 갈 세상에 가슴 부풀어 오르는
나날이었으나 불과 2년이 지난 1519년 기묘사화로
스승이 유배 갔다 사약을 받는다. 열일곱 제자는 고향의
계곡에 숨어든다. 슬픔이 심은 나무, 울분이 판 연못.
소쇄원은 단순히 풍류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꿈이고,
여전히 정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은둔한 선비의 평생이
담긴 원림을 뒤로하고 다시 세속으로 향하는 길,
갓길 스치는 바람 소리가 배웅한다. 소쇄한 소리다.

옛것에서 미래를 본다.
경북 안동 고택에서
세상의 겨울을 나는 법을 배웠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開門萬福來

온고지신, 안동



하늘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 나아가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된 이의 공간.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다.

바람이 차갑게 군다. 한겨울이라는 단어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다. 이토록 추운 날이 안동 임청각을 방문하기 적절한 날인지 모른다 생각하며 대문 앞에 선다. 한쪽에 ‘국무령 이상룡 생가’라 쓰인 나무패가 붙어 있다.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이 이 으리으리한 집을 나서 서간도로 향한 날이 꼭 110년 전인 1911년 음력 1월이었다. 선생이야말로 겨울 한가운데를 걸어가야 했다. 그날의 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오늘의 공기로 가늠해 본다. 나라를 잃어 이를 되찾고자 평생 살던 집을 등지는 날의 추위와 감히 비교하겠느냐만, 그래도 계절은 매서운 겨울. 선생께 첫인사 드리러 왔으니, 주머니에 숨여 드는 손을 꺼내 모으고 잠시 고개를 숙인다. 임청각은 선생이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결심을 내린 공간이다. 안동에서 최초로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를 해방해 존댓말을 쓰고, 우리는 독립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라 외친 공간이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상황을 원망하고 현

A cold wind is blowing. It feels literally like the heart of winter. I wonder if it's a good idea to visit Imcheonggak in Andong in this cold weather, but I'm already at its entrance. On one side, I notice a wooden sign that reads "Birthplace of Yi Sang-ryong." Seokju Yi Sang-ryong, the third presid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left this house and headed for West Jiandao in January 1911 of the lunar calendar, exactly 110 years ago. It's difficult to imagine how harsh and rough it must have been, leaving his home behind to join the nation's struggle for independence. The cold hits me again. I force my hands out from my pockets, and press them together as I bow in memory of Yi Sang-ryong. Imcheonggak is the house where Yi Sang-ryong was born and also where he decided to fight for Korea's independence. Even when faced with the



실을 구실 삼아 회피하는 대신 스스로 나아가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된 이의 공간이다. 석주 선생의 정신을 만나러 조심스레 발을 들인다.

worst of circumstances, he led by example and chose to steer his own fate. I step in carefully, ready to pay my respects.

숭고한 정신이 살아 있는 집, 임청각

Imcheonggak, Where Yi's Legacy Lives On

코끝은 시려도 마당에 떨어지는 햇살의 빛같은 따스하다. 뒤에는 영남산을 두르고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별이 인심 좋게 쏟아지는 데다 구석구석까지 햇살이 닿는 땅이다. 누가 봐도 명당. 한번 집을 지으면 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 중종 대 문신인 이명 선생이 입지를 골라 1519년 건물을 올렸다. 임청각은 별채 정자 이름인데 집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임청각' 현판 글씨를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길 만큼 학문과 부유함에서 명성이 드높은 집안이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은 명문가 고성 이씨 종손으로 1858년 태어났다. 퇴계 학맥을 잇는 학자인 그를 시대가 가만두지 않았다. 을미사변, 러일전쟁, 을사늑

With Yeongnamsan Mountain to the back and Nakdonggang River to the front, Imcheonggak sits on a perfectly located site with ample sunlight. It was built in 1519, when it was the norm for one generation after another to live in the same house, by Yi Myeong, a civil official during the reign of Jungjong of Joseon. Seokju Yi Sang-ryong was born in 1858 as the eldest grandson of the Goseong Yi clan. He played his part for the country throughout the days of Eulmi Sabyeon,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Eulsa Treaty. He put together an army, and

약. 나라의 운명이 휘청이는 중에 선생은 동분서주했다. 의병을 모으고 무기를 마련하고 대한협회 안동지부와 협동학교를 설립해 사람들을 가르쳤다. 현실을 직시하고 해답을 모색하려 장 자크 루소, 프랜시스 베이컨, 이마누엘 칸트 같은 서양 철학자의 책도 구해서 읽고 전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본래 평등하였으나 불평등이 생긴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약자 아닌 강자가 먼저 이런 의견을 냈다. 석주 선생은 ‘혁신 유림’이었다. 1910년 8월 끝내 국권이 침탈당하자 선생은 서간도에서 독립운동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듬해 초 집을 나선다. 순넛의 나이였다. 재산이 꽤 되니 운동에 가져다 쓰라며 자금만 건네도 위인 소리를 들었을 터였다. 떠난다고 그곳에서 생계가 보장될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생각했다. 노비를 해방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조상께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 사당에 보관한 위패를 산자락 어딘가에 묻어 두고 한겨울 속으로 뛰어

established a school to share his knowledge. To broaden his horizons, he read books by Western philosophers such as Jean-Jacques Rousseau, Francis Bacon, and Immanuel Kant. Yi Sang-ryong was truly ahead of his times, considering how Joseon was still dependent on social classes. He showed tremendous courage by saying, “We are all equal under the sky. If inequality exists, it is the consequence of human action.”

When Korea was annexed in August 1910, Yi Sang-ryong left for West Jiandao, where an

INFORMATION



안동역 임청각을 훼손하고, 그 앞을 바짝 지나가던 중앙선 철길을 옮기면서 안동역도 이전했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KTX-이음을 타고 약 2시간이 걸린다.

들었다. 추풍령까지 일주일을 걸은 다음 거기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서 내린 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목적지인 유하현에 가는 수레에 올랐다. 그 34일간의 일정이 얼마나 고되었을까. 덜컹대는 길이 그의 앞날 같아 한숨이 길게 나오진 않았을까.

목적지에 도착한 선생은 숨도 돌리지 못한 채 한인모임을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생계를 꾸리느라 농사도 지어야 했다. 결과는 흉작. 평생 두루마기 입고 글 읽던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의 기색을 파악해 능숙히 대처하는 농부가 될 수 없는 데다 한인촌 일대의 기후가 2년 연달아 나빴다. 이쯤에서 그만해도 누구나 고개 끄덕일 상황. 가족과 자신의 삶을 바친 선생은 포기하는 커녕 더 큰 결단을 내린다. 독립운동 전에 사람을 먹여야 했다. 학생을 무료로 가르쳐 독립군으로 양성하는 신흥강습소를 계속 운영해야 했다. 미래가 사람에게, 학교에 있었다. 아들 이준형 선생을 고향에 보내, 400년 역사를 지닌 종가 임청각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 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아들은 기꺼이 따랐다.

채무자의 의무를 기억하다

독립운동에 전부를 내놓은 선생을 임시정부는 1925년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한다.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 선생은 분열하는 온갖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애쓰다 다음 해 물러난다. 일제의 감시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린 그는 1932년 이국땅에서 눈을 감는다. 시대를 탓하고 현실을 핑계 삼아 냉소하는 인생이 얼



independence movement was brewing. He was 53 years old, and quite a wealthy man. He would have been praised just by making donations for the movement, but he willingly headed for the frontline. After walking for a week to Chupungnyeong, he took a train to Sinuiju, crossed the frozen Amnokgang River, and finally got on a wagon bound for Liuhe County. The 34-day journey was no easy feat.

Shortly after arriving, Yi Sang-ryong formed a group for Koreans, and opened the Sinheung Military Academy, which later became the Sinheung Military School. He had to do farm work to make a living. Unfortunately, it was a year of bad harvest. No one would have blamed him for giving up at this point. Determined to feed the villagers, he sent his son Yi Jun-hyeong back to Andong to sell the 400-year-old Imcheonggak. His son obeyed his wishes.

A Nation Indebted to 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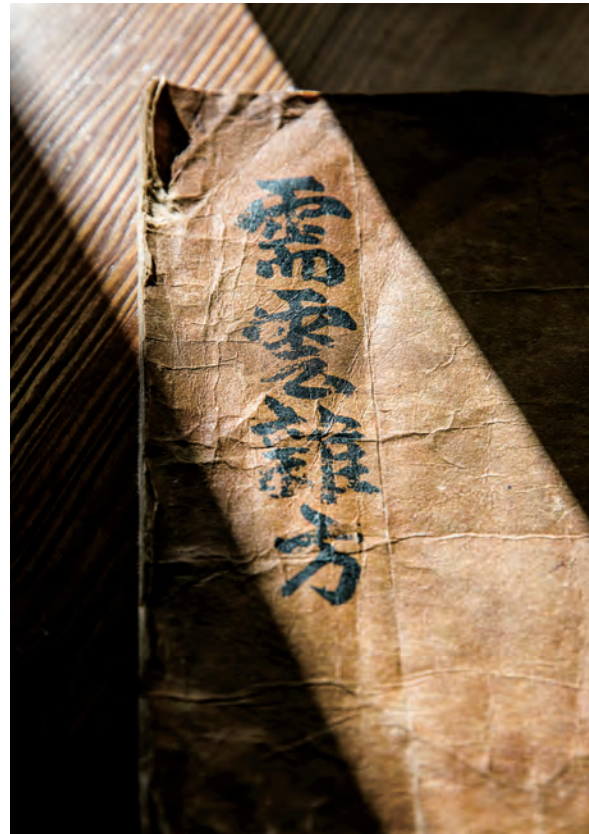
Yi Sang-ryong, who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Korea's independence, began his term of office as th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25. At this time, he was already close to 70 years old. He exerted his utmost efforts to unify the country, and stepped down the following year. Under the close watch of the Japanese and stricken by poverty, he passed away in Jilin in 1932. Many others would have felt crushed by reality, but Yi Sang-ryong did his best to stay strong in the face of adversity. We Koreans are all in a way indebted to him. While we may not be able to live as valiantly as he did, we can certainly try to follow in his footsteps.

I take a look around Imcheonggak while reflecting on the life of Yi Sang-ryong, whose legacy still lives on. He was born in a study called the *sarangchae*, which has a view of the well in the

선생이 집을 나서 서간도로 향한 날이 110년 전인 1911년 음력 1월이었다. 겨울의 한가운데를 걸어갔을 그날의 공기를 가늠해 본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 등 안동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나 많았으랴. 선생은 상황을 진단하고 방법을 파악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삶을 불태웠다. 우리는 모두 선생에게 빚진 채무자다. 그가 보여준 기동 같은 삶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복사하지 못할지언정 여전히 기준이 된다.

선생의 정신을 생각하며 임청각을 돌아본다. 선생은 떠나셨어도 흔적은 남아 있다. 마당에 우물이 있는 사랑채는 선생이 태어난 방이다. 행랑채는 작은 전시실을 조성해 선생을 비롯해 임청각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정자에는 훈장 증서를 걸어 놓았다. 한집에서 독립운동가가 무려 11명에 이른다니 놀랍다. 더욱 놀라운 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의 후손이 해방 이후 갈 데가 없어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 집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일제는 이 집 대문과 행랑채를 헐어서 철길까지 냈다. 99칸 집이 50여 칸 남았다. 불과 골목 하나 거리를 두고 80여 년간 기차가 다녔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다. 다행히 KTX-이음이 개통

front yard. The small exhibition hall in the annex introduces 11 independence activists related to Imcheonggak, and a certificate recognizing their deeds is hung in the pavilion. The Japanese tore down the entrance and annex to build a railroad, on which trains ran for about 80 years.

Recently, the last train passed Imcheonggak thanks to the opening of KTX-Eum. Although repaying Yi Sang-ryong is impossible, this is the least we can do to express our gratitude. The railroad will soon be demolished for Imcheonggak to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Our duty is to honor the memory of Yi Sang-ryong, and to keep him in mind on our next visit to Imcheonggak, which also provides accommodation. A night's stay in this place of historical significance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travelers to reflect and unwind.

하면서 기차는 새로운 길로 옮겨 갔다. 선생의 은혜를 갚긴 한참 멀었으나, 사실 갚기란 불가능할 터이나 후손이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뎨 셴이다. 앞으로 철길을 뜯어내고 원형을 복원할 예정이다. 단정한 마음으로 임청각을 방문해 인사하는 일, 삶에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이 후손의 몫이다. 임청각을 둘러 산책해도 좋고, 폐철길 너머 낙동강 변을 걸으면서 이곳의 감동을 차분히 정리해도 좋다. 도보 30여 분 거리에 유명한 월영교가 있다. 워낙 아흔아홉 칸 집을 지을 정도로 풍경이 빼어난 지역이었다. 이 의미 깊은 공간에서 숙박도 가능하다니 고맙다. 그동안 흐트러진 자신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만하겠다.

군자 아닌 이가 없다는 군자마을

수물의 역사를 빼고 안동을 말하긴 어렵다. 600년 내력의 광산 김씨 집성촌 군자마을은 고택, 선비 정신, 학문, 독립운동, 전통이라는 안동의 상징에 수물

Gunja Village, Home to the Virtuous

Some old houses were submerg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Andong Dam. Gunja Village, whose residents are the Gwangsan Kim clan with a history of 600 years, is known for not only its rich tradition and rol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also as the submerged village. During the Andong Dam construction in the 1970s, about 20 historic houses were relocated, and others were lost in the flood. Hangang Jeong Gu, a scholar and official of the Joseon dynasty, was so impressed by the village that he named it "Gunja Village," which means "village of the virtuous." It was in this village that *Suunjabang*, the first cookbook by Joseon scholars Kim Yu and his grandson Kim Ryeong, was born.



의 아픔도 품은 곳이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된 50여 개 마을 가운데 하나가 군자마을이다. 마을에서 겨우 20여 채 뜯어 옮겼는데 대부분이 문화재일 만큼 귀한 건물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문신인 한강 정구가 이곳을 방문하고는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감탄한 이래 군자마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었다. 모름지기 군자는 선비가 도달해야 하는 최고 경지다. 학식과 인품의 조화, 올바름과 너그러움의 균형, 위와 아래로부터 고르게 받는 칭송. 이런 품격 높은 마을이 낳은 흥미로운 파격이 있으니, 바로 사대부가 쓴 최초의 조리서 <수운잡방>이다.

Suunjabang, Recipes by Joseon Scholars

Born in 1491, Takcheongjeong Kim Yu decided to lead a life as a scholar instead of becoming an official. He had a wide network of confidants as Andong, home to Toegye Yi Hwang and Nongam Yi Hyeon-bo, attracted scholar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e served visitors with dishes that delighted both eyes and palates, and constantly experimented to deliver greater satisfaction. The cookbook *Suunjabang* is a compilation of his recipes. Together with his grandson Gyeam Kim Ryeong, he put together a total of 121 recipes, including 17 types of kimchi, 9 pastes, and 59 alcoholic beverages.

In Gunja Village, visitors can taste *yangban* (scholar-officials) class dishes introduced in *Suunjabang*. Kim Do-eun, wife of the

조선 사대부가 집필한 조리서 <수운잡방>

1491년 태어난 탁청정 김유 선생은 출사의 꿈을 접은 채 학문을 닦으면서 부모가 계신 마을을 지켰다. 퇴계 이황 선생, 농암 이현보 선생 등이 근처에 거주해 전국의 선비가 드나드는 안동에서 그가 교류한 폭은 넓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 선생은 ‘접빈객’의 가치를 실천한다. 특히 음식에 정성을 기울여 극진히 대접했다. 보기에 아름답고 맛과 영양도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을 연구하고 실험·개발해 상에 올렸다. 1540년경 이를 정리해 집필한 책이 <수운잡방>이다. 탁청정 선생의 손자인 계암 김령 선생이 내용을 보태 <수운잡방> 속 메뉴는 김치류 17항, 장 9항, 주류 59항 등 121가지에 이른다.

군자마을에서는 조선 반가 음식의 정점이라 할 <수운잡방>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책을 500여 년간 간직해 온 설월당의 김도는 종부는 요리를 복원·재현하느라 손과 머리가 쉴 틈이 없다. 치자를 넣어 노란색

oldest of the head family, recreates the dishes in *Seolwoldang*, where the book has been preserved for nearly five centuries. The fine selection of dishes includes rice with gardenia; *soeyeotang*, or soup with cinnamon vine and beef; *hyanggwajeo*, or pickled cucumbers decorated with finely sliced ginger; a fragrant alcoholic beverage called *manjeonhyangju*; and *jeongyea*, or seasoned and boiled chicken. The dishes are prepared from the heart, with preparations lasting for several days. To make eggplant *mojeomi* (cut and roasted eggplant), eggplants are lightly coated with perilla oil and dried for three days, and then roasted and cooled three times. The eye-catching tri-colored *samsaekoatang* (soup with sweetfish, shrimp and mung bean jelly) begins by making acorn jelly in three colors. Gardenia is added for yellow,

INFORMATION




수운잡방체험관 1540년경 쓰인 조리서 <수운잡방> 요리를 연구하고 재현하는 공간이다. 500여 년간 책을 보존한 설월당 종가의 김도는 종부가 관장을 맡아 책 속 조선 반가의 요리를 선보인다.



<수운잡방>은 탁청정 김유 선생이 집필하고 손자인 계암 김령 선생이 내용을 더해 완성했다. 그가지은 계암정에서 <수운잡방>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겨울날 안동의 밤. 저게 다 별인가
믿기 어려운 하늘이 펼쳐진다.
탐욕스럽게 별을 바라보았다.
이런 욕심은 얼마든지 관촬을 것이다.

안동호 푸른 물을 놓고 낮은 산이
감싸고 있다. 산과 물이 더불어
그린, 말 그대로 산수화.
그림 속을 걷는다.



을 띠는 황밥, 안동 특산물 마와 쇠고기를 끓인 서여탕, 아삭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오이김치 향과저, 이름부터 향기로운 술 만전향주, 닭고기를 양념해 졸인 전계아 등 하나하나가 생김새와 맛이 황홀하다. 만드는 과정을 알면 한층 황송해진다. 평범한 가지구이처럼 보이는 가지모듬이는 들기름을 발라 가면서 며칠을 말린 뒤 굵고 식히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고운 색이 눈을 사로잡는 삼색어아탕은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물을 직접 쬐는 데서 시작한다. 치자가 노란색, 맨드라미가 분홍색, 시금치나 부추 등이 초록색을 내는 재료다. 제대로 된 한 상. 그가 내놓는 요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려는 호의이며, 자연과 사람을 공부해 얻은 지혜고, 500여 년 전 음식 문화의 진수다. 눈이 먼저 즐거워하고, 정갈한 옛맛에 입이 감동한다. <수운잡방> 공동 저자 계암 선생이 지은 정자 계암정에서 풍경과 함께 음식을 음미하는 일은 다른 어디서도 못 할 특별한 체험이다. 책의 명맥을 잇는 수운잡방체험관에서도 동일한 한 상을 선보인다. 김도는 종부가 관광을 맡아 공부하고 가르치고 요리하는 곳이다(문의 010-9734-3050).

산수화 속 정겨운 동네, 예끼마을

안동호 푸른 물을 놓고 낮은 산이 감싸고 있다. 산과 물이 더불어 그린, 말 그대로 산수화. 이 아름다움은 슬픔을 통째 덮어 그린 것이다. 예끼마을은 안동댐을 건설할 때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했던 예안리 사람이 다수 이주한 마을이다. 호수에는 약 1킬로미터 길이의 부교를 놓았다. 아름다움이 사람의 발길을 홀리듯 이끈다. 과거 누군가의 집을, 학교를, 일터를, 골목을 밟고 물 위를 뚱뚱 떠서 걸어간다. 풍경에 자꾸만 감탄사가 터져, 고향에 영원히 오지 못하는 아픔을 지녔을 이에게 죄송스럽기도 했다. 한 지점에는 풍금 조형물과 책걸상을 가져다 두었다. 예안초등학교가 이 아래 있다. 그곳에 전시한 옛 사진을 찬찬히 뜯어보는 마음이 짙하다. 마을은 큰 장이 서고, 안동 시내에서도 놀러 올 만큼 번성했으나 차츰 인구가 줄고 허전해졌다. 여기에 예술가가 자리 잡으면서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다. 공기는 맑고 산과 호수는 그림 같으니, 자연의 예술을 발견한 사람들이 깃들 만했겠다. 가구 갤러리 겸 카페



cockscomb for pink, and spinach or chives for green. The unique dining experience is offered in Gyeamjeong Pavilion, named after Gyeam, who contributed to the menus in *Suunjapbang*.

Yeggi Village, Charming Picturesque

The clear blue of Andongho Lake is surrounded by mountains, high and low. Lying beneath the beautiful scenery is a dark, painful history. Yeggi Village is where the people of Yean-ri moved to when their homes were swept away or submerg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ndong Dam. A pontoon bridge, around one kilometers in length, has been erected over the lake. I step on what must have been someone's house, school, workplace, or alley in the past.





‘고이’의 이덕화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버려진 나무로 가구와 소품을 만든다. 쓰레기 취급받을 폐목재를 데려다 씻기고 켜고 사포질해 다시 쓸모를 찾아준다. 새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마을 또한 그러하리라는 믿음이 생긴다(문의 010-6533-9199). 최근 호수 코앞에는 선성현문화단지가 문을 열었다. 3만 5000제곱미터(약 1만 700평) 부지에 조선 관아를 재현한 이곳은 중심 건물인 문루, 객사만이 아니라 동헌, 형리청, 인리청, 군관청, 내아 등까지 배치해 옛 관아의 규모와 역할을 살펴보도록 했다. 호패 만들기 같은 체험을 인터랙티브 시설로 준비해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다. 문루의 기둥을 액자 삼은 호수 전망만으로도 방문한 시간이 아깝지 않다(문의 054-841-0112). 1970년대의 ‘신도시’였던 호숫가 마을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포근한 분위기가 정감어리다.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를 구경하는 기분이라 걷는 내내 미소가 감돈다.

The village is regaining its spirit with the opening of galleries and cafes. Lee Deok-hwa, who runs the furniture cafe Goi, makes furniture using discarded wood. She creates new but old stories, restoring charm in what others deemed as worthless. This gives me confidence that the village has brighter days ahead. The Seonseonghyeon Cultural Heritage Complex, located in front of the lake, opened recently. It is a highly detailed reproduc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from the Joseon dynasty. The view of the lake alone, framed by the columns of the gate tower, makes it a worthwhile visit. The lakeside village, which was a “new city” in the 1970s, exudes a cozy, inviting atmosphere today. The experience has a similar feel to visiting my parents’ or grandparents’ hometown, and I cannot help but smile throughout.

어떤 겨울에도 무너지지 않을 힘을 찾아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군다. 계절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공기가 정신을 바짝 깨운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고장 안동의 바람이다. 누구나 실제 계절이든 인생사의 어느 길모퉁이에서든 겨울을 만난다. 110년 전 매서운 겨울날, 선생은 비통한 가슴을 헤치고 스스로 희망이 되길 선택했다. 그의 정신을 생각한다. 평생 익힌 공자와 맹자의 도가 옳다, 다른 학문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 하지 않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 신학문을 파고들었다. 고정관념을 넘고 사교의 지평을 넓혀 동서양 철학의 근본에 있는 인간 존중, 공존, 올바른 도를 발견했다. 확신이 그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정신이 선생을 붙들어 어떤 겨울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온고지신. 안동에 어린 옛이야기가 한 해를 출발하는 즈음 가장 필요한 말을 건넨다. 줄곧 한 자세로 앉은 듯 찌뿌둥한 정신이 기지개를 켜다. 새로운 공기가 내면을 채운다. ☑

Finding Strength for the Coldest of Winters

The wind in Andong, the hometown of Seokju Yi Sang-ryong, is still relentless. At some point in life, we are bound to hit rock bottom. On a cold day 110 years ago, Yi Sang-ryong refused to be broken, and chose to become a beacon of hope for others. He embraced Western teachings with an open mind, expanding his knowledge beyond Confucian theories. By breaking free of conventions, he found that Oriental and Western philosophies shared common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coexistence, and righteousness. His certainty and confidence shone a light on his path. He did not despair even in the coldest of winters. The history of Andong is a reminder to learn from the past. It is a great message to start the new year with. ☑

안동의 또 다른 고택



전통리조트 구름에

안동댐 건설로 유실 위기에 놓인 고택을 산자락에 옮겨 리조트로 단장했다.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계남고택·박산정 같은 한옥에 현대식 설비를 입혀 호젓하고 편안하게 머문다. 함께 운영하는 북카페 '구름에 오피'는 책 전문가 팀이 엄선한 도서 1500여 권을 갖췄다. 통유리창으로 산과 기와지붕이 들어와 책을 읽다 바깥을 내다보다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투숙객 외에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문의 054-823-9001



수애당

방문을 나서면 곧바로 자연. 호수와 산이 안아주는 입지 덕분에 '수애당'은 사계절이, 아니 매시각이 힐링이다. 이 좋은 옛집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문정현 대표는 21년째 손님을 맞고 있다. 아직 한옥 숙박이 익숙지 않던 초창기를 지나 요즘은 한옥을 즐거워하고 궁금해하는 이가 많아졌다. 마당과 대청마루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꼭 다시 올게요" 말할 때가 장 뿌듯하다. 손맛의 진수라 입소문 난 조식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문의 054-822-6661



지례예술촌

임하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의성 김씨 지촌파의 종택과 서당 등 10여 채를 뒷산에 이 건했다. 첩첩산중 고택 앞으로 그 호수 임하호가 펼쳐진다. 때문에 놓아둔 흔들의자에 앉아 새소리, 바람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호수를 바라보니 세상 걱정이 다 뭐가 싶다. 도시 사람이 은거하는 선비의 일상을 잠시나마 흉내 내 본다. 터를 옮겼음에도 방에서 감상하는 바깥 풍경이 그만이다. 경치를 빌린다는 '차경'의 미감을 체험한다. 문의 054-852-1913

안동의 맛있는 먹거리



우정술불갈비

예부터 안동은 한우가 유명한 고장이다. 갈비골목에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안동 한우를 합리적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우정술불갈비'는 1++ 등급 냉장 안동 한우만 취급하고, 음식 재료는 심지어 마늘·참기름까지 국산이다. 갈비를 주문하면 손님 앞에서 뼈 쪽을 잘라서 가져가 매콤한 목은지찜으로 요리해 주는데, 갈비 맛과 목은지찜 맛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훌륭하다. 음식점을 나서는 순간 벌써 그리워지는 맛이다. 문의 054-841-3727



카페라이프

서울의 식품 관련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선영 대표는 음식과 건강한 삶, 공유 공간이라는 가치를 실현·실천하려 고향 안동에 돌아왔다. 농사짓는 아버지가 재배한 마를 우유에 섞어 마시며 건강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안동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구상해 카페를 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든든한 배경. 논밭에서 나온 재료들이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음료와 케이크, 빵이 된다. 메뉴판 처음부터 끝까지 '도장 깨기'하고 싶은 집이다. 문의 054-842-2122



안동맥주퍼블릭하우스

안동 이름을 단 맥주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은 '안동브루잉컴퍼니'가 제조한 안동맥주 8종을 선보이는 공간. 지난해 '코리아 인터내셔널 비어 어워드'에서 금메달, 은메달 등을 수상하며 인정받은 맥주다. 제조한 지 얼마 안 된 맥주는 시판 맥주와는 확연히 차이 나는 신선도를 자랑한다. 과거 불고기집이던 내부를 적절히 보존하고 꾸며 곳곳이 포토 존이다. 고추장 양념을 한 불고기피자가 안동맥주와 잘 어울린다. 문의 0507-1407-5556

안동 특산품



선비, 정신을 입다
 Wearing the spirit of Seonbi
 道袍

꽃과 도포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멋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안동의 선비들은 절제와 청빈, 겸손과 절제로 대표되는 선비 정신을 살전하여, 안동포로 만든 도포를 일상생활이나 의례용으로 착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서양 문화의 영향이 불현듯 나타나고 있는 안동지역에서는 도포를 찾는 경우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로 시골사람들 남편의 도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생시에는 의례적으로 입다가 처음 가는 길에는 수리문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안동포에 자연친화적 염색을 첨가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et and dopo were fashionable items that symbolized seonbi, the scholars of Joseon Dynasty. Andong seonbi practiced integrity, humility and moderation, and wore dopo made of Andongpo for daily life and rituals. Men still wear dopo for traditional ceremonies in Andong such as hyangga and buchwonjeesa. Brides-to-be used to prepare dopo for their future fathers-in-law and husbands. Dopo was also used as shrouds. Today, natural dyes are applied to Andongpo so that this beautiful traditional culture is preserved.



안동포
 인류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섬유 삼베. 이 직물의 재료인 대마 추산지가 안동이다. 이곳에서 만드는 삼베는 으뜸이라 하여 '안동포'라 따로 이름 붙였고 지금도 안동포 수의는 최고급으로 통한다. 안동포전시관에서는 안동포의 역사와 제작 과정, 제품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다. 안동은 지난해 8월 대마 특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뇌전증과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대마를 의약품용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길을 열어 가는 중이다.



마
 백제 무왕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친숙한 농산물인 마는 약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산약'이라고도 부른다. 마를 자르면 나오는 끈끈한 성분 뮤신이 위를 보호하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안동은 마 전국 생산량의 70 퍼센트를 차지하는 추산지. 물이 잘 빠지는 낙동강 모래 토질이 마를 재배하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안동 산약(마)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마 부문에서 올해로 9년째 1위를 차지했다.



생강
 땅 힘이 좋고 청정한 고장 안동은 뿌리채소가 강하다. 알이 굵으면서 섬유질이 적고 껍질은 얇은 고품질 생강이 그윽한 향으로 유혹한다. 말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향이다. 생강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보호하고, 음식에 양념으로 쓰여 맛을 돋우며, 고기 누린내와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 만능 식재료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공동 브랜드 '그대 생강'에서는 생강청, 진액, 편강, 생강잼, 스틱형 젤리, 와인 등 다양한 식품을 내놓는다.



Good morning & Good night.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 하얀 세면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끝난 저녁엔 피로를 씻어내는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LEEHYUN BATH



'시스템욕실(System Bathroom)'이란?
 욕실의 모든 구성부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여 현장설치/완성하는 건축 공법

TPR방수판 열융착공법 열기소성수지를 열융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욕실의 다양한 형상 및 크기에 적용 가능
 PU복합판셀 접착성이 우수한 PU와 타일을 일체화시켜 방수, 단열, 차음, 방균 성능이 뛰어난 벽판넬
 천장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 세련미와 편안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욕실 천장

TEL. 02-923-3855-6

건축 욕실 시공의 장점
 습식공법의 방수성능 저하 해결, 공간간 비간섭, 인력수급문제 등 해소,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격조있는 고품격 욕실 구현

특허 및 인증 현황
 기술연구소 인정서,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관련 특허 21건, 디자인 32건 보유



희망의 첫발 KTX-이음

중부 내륙, 경북 지역이 성큼 가까워졌다.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이 개통했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중앙선 서울 청량리역~안동역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 한국철도는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 복선전철 개통과 맞춰, 지난 1월 5일 서울 청량리~안동 구간에 신형 고속열차 KTX-이음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청량리~안동 기준 최장 3시간 54분 걸리던 것이 2시간으로 단축되어 열차 이름처럼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이 더욱 가까이 이어지게 되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온전히 한국 기술로 탄생한 KTX-이음은 저탄소·친환경 전기 열차로,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15퍼센트, 디젤기관차의 70퍼센트에 불과하다. 명실상부 한국 대표 녹색 교통수단이다. 동력 분산식 설계가 또 하나 포인트. 동력차를 맨 앞과 뒤에 배치한 KTX, KTX-산천과 달리 KTX-이음은 동력을 객차에 골고루 분산해 가속과 감속 성능이 향상되었다. 역과 역 사이 거리가 짧은 한국의 철도 환경에 알맞은 설계다.

디자인과 이름에는 고객 의견을 반영했다. 이름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고, 디자인은 5개 역 현장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메탈릭 블루의 유선형 외관을 채택했다. 객실도 세심히 신경 썼다. 앞뒤 좌석 사이 거리와 중앙 통로 너비를 기존 열차 대비 넓게 확보했고, 모든 좌석에 전원 콘센트와 무선 충전기를 장착했다. <KTX매거진>도 잘 늘어지는 망 대신 매립형 꽃이에 비치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KTX-이음은 인터넷 설비를 한 칸당 두 개 설치했다. 인터넷 설비가 두 칸당 한 개인 KTX-산천과 비교해 무려 네 배 수치다. 우등실의 VOD 장치도 눈에 띄는 서비스. 이제 영상을 감상하며 이동하는 게 가능해졌다. 장애인 시설로는 휠체어석 5석, 장애인 화장실 한 곳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 열차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을 빠르게 잇는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지닌다. 청량리역을 출발해 제천까지 평균 2시간 거리가 1시간 8분으로, 안동까지 평균 3시간 40여 분 거리가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가까워진 만큼 제천·단양·영주·안동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러 더 많은 이가 방문해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엔 중앙선 선로를 변경해 안동 임청각 복원의 첫걸음을 뗀 점은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하다. 일제가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을 훼손해서 낸 철길을 철거하고 다시 아흔아홉 칸 집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철도는 2019년 기준 338대인 디젤기관차를 저탄소·친환경 열차인 KTX-이음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2029년이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연간 7만 톤에 이른다. 지역을, 사람을, 역사를, 미래를 잇는 열차, KTX-이음이다. ☑



걷고 느끼고 마음에 담다 연천 여행

겨울의 리듬에 맞춰 경기도 연천 평화누리길 11구간을 거닐었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내딛는 걸음에 무게를 실지 않았다. 한 번 사는 인생,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발걸음을 힘차게 디더야 한다지만 한껏 느슨해지고 싶었다. 겨울이니까. 개구리와 곰도 겨울잠 자는 철이니까. 올해엔 겨울이 세상을 연주하는 박자에 장단을 맞추고, 그 속도를 눈으로 담으리라 마음먹었다.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한 겨울날에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냇물의 고장 연천군의 평화누리길 11구간 '임진적벽길'을 걸었다. 매섭도록 찬 기운에 얼어붙은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황홀한 길이었다.

조선 왕이 위로한 고려의 녀, 송의전

임진강 위에 내려앉은 새하얀 눈이 귀한 풍광을 선사한다. 고려의 종묘인 송의전으로 가는 길, 절벽 위에서 수백 년 뿌리 내리고 자란 느티나무 사이로 강이 언뜻 언뜻 자태를 드러낸다. 별이 따스하게 비추어 얼음이 녹은 자리엔 윤슬이 반짝인다. 차갑고도 포근한 강이

다. 조선 시대에 세운, 고려 왕과 충신의 위패를 모신 송의전이 11구간의 시작점. 특이한 내력이 있는 이곳 사연이 궁금해진다. 때는 1392년. 고려를 멸망시킨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 한때 고려 백성이던 이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조의 종묘를 고려 수도 개성 밖으로 옮길 명분을 찾았다. 그러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개경과 철원을 오가는 중에 쉬어 가며 기도를 올리던 궁벽한 마을의 절집 양암사에 종묘를 옮기는 수를 떠올렸다. 새 나라 신하의 반발에 5년이 지나서야 태조 녀를 위로하는 원찰 양암사 자리에 그의 위패를 받드는 사당을 건립했다. 2년 후에는 태조, 혜종, 성종 등 고려 여덟 왕의 위패를 정전에 봉안했다. 수도에서 쫓겨났어도 패자는 역사에서 더욱 물러서야 했다. 1425년 당시 조선 종묘에 모시는 왕이 다섯이라는 이유로 태조와 함께 조선의 문치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현종, 문종, 원종 네 왕만 봉안하기로 정했다. 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누리길은 경기도 김포에서 시작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연천에서 끝난다. 총 189킬로미터 거리로, 연천에 속한 구간은 10구간부터 마지막 12구간까지다. 문의 031-839-2061





**잎을 떨군 앙상한 나무를
올려다보다 나뭇잎을 대신해
나무와 벗이 된 새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채우려고 비운 게
아닌데 비우자 채워진다.**



후 1451년 복지검, 홍유, 신승겸 등 고려의 충신 열여섯 명을 송의전 옆 전각 배신청에 배향했다. 그마저 한 국전쟁이 발발한 해에 전소해 지금 건물은 1971년에 재건한 것이다. 이곳에 자리하던 위패와 태조 왕건 동상마저 북한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전해진다. 언젠가는 박물관을 방문해 실물을 볼 날이 오길,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왕조의 기운이 서린 평화누리길 11 구간 초입에서 빌며 걸음을 옮긴다.

절벽 위 요새, 당포성

40분 정도 걸으니 고구려 성인 당포성에 이른다. 예부터 연천은 한반도 중부 원점 지역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세 국가의 격전장이었다. 누가 이 고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시대 주도권이 결정됐다. 6세기 중엽부터 120여 년 동안 임진강을 남쪽 국경으로 둔 고구려는 강변에 성 10여 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쌓았는데, 연천 지역에는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유적이 남았다. 특히 이곳 고구려 성은 자연 형세를 지혜롭게 활용해 적군의 침입을 막은 게 특징이다. 임진강 물길 이 수십만 년 전에 생성한 현무암 주상절리 위에 터를 잡아 성벽을 올리는 수고를 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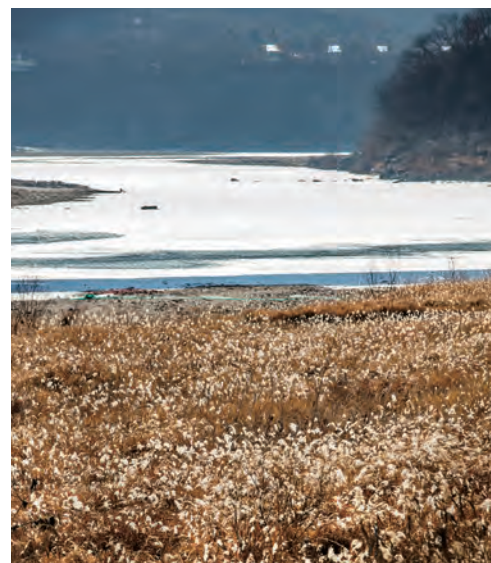
당포성은 남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과 당개나루 터로 향하는 냇강 사이에 형성된 절벽 위 평평한 삼각형 모양 대지에 들어선 천혜의 방어 요새다. 남쪽과 동쪽에는 20미터에 이르는 자연 성벽이 든든하게 받쳐 평지와 이어진 동쪽에만 성곽을 축조했다. 성에 다가가니 층이 올라갈수록 현무암을 조금씩 뒤로 물려 가며 성을 쌓는 고구려 특유의 축성 기법이 두드러진다. 점토를 다져 중심을 잡고 나서 무너지지 않도록 외면에 돌을 쌓은 높이 6미터, 길이 50미터 성벽이 천년이 흐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내린 후 신탄리행 경원선 대체 버스를 타고 연천으로 갈 수 있다.

른 지금껏 견고하다. 나무 한 그루가 호젓한 당포성에 올라서니 공기가 다르다. 임진강 너른 품이 시야에 가득 차고 사방이 탁 트여 손안에 세상이 놓인 듯 환하다. 잎을 떨군 앙상한 나무를 올려다보다 무리를 이루어 하늘을 누비는 철새가 눈에 들어온다. 채우려고 비운 게 아닌데 비우자 채워진다. 겨울의 장단이다.

지질 예술 전시장, 임진적벽

11구간에서 손꼽는 풍경에 다다를수록 가슴 설렌다. 먼발치에서도 주상절리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탄강을 만나러 가는 임진강을 배웅하는 듯이 약 4킬로미터 길이로 이어지는 절벽은 사시사철 다른 매력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주민이 제일이라 꼽는 계절은 가을. 담쟁이와 돌단풍이 절벽 곳곳을 붉게 물들여 장관이란다. 아쉬워하긴 이르다. 겨울에만 즐기는 묘미가 있다. 바로 쾅쾅 언강 트레킹. 연이은 한파에 임진강이 은반으로 변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임진강에 한 걸음 내딛는다. 조심스럽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강물이 쾅~ 쾅~ 중저음 목소리로 화답한다. 두꺼운 빙판 아래로 흐르는 강물의 수면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 빙판에 균열이 생기며 울리는 충격음이다. 웅장한 겨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걸음마다 특별한 경험이 더해진다. 결빙된 수면을 걸으면서 신비로운 광경을 본다. 원래 임진강 얼음은 강물을 투영할 정도로 맑았는데, 눈이 내린 후여서 오히려 얼음 균열이 선명하다. 자유분방한 선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린 추상화 같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높이가 30미터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앞에 도달했다. 눈으로 절벽을 올라도 한참. 멀



쾅쾅 언 임진강 위에 하얗게 눈이 내리자 자유분방하게 사방으로 난 얼음 균열이 더욱 선명하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린 추상화 같다.

주상절리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발달한 지역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과거 임진강 주상절리는 개성의 유명한 경치를 이르는 송도 팔경에 속해 장단석벽이라고 불렀다. 문의 031-839-2289





리서는 발견하지 못한, 수평으로 난 두 경계선이 뚜렷하다. 약 54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까지 세 차례 분출한 용암이 지나간 흔적이다. 연천 주상절리는 북한 땅 평강군 오리산과 680미터 고지에서 솟구친 용암이 옛 한탄강 물길을 불길로 메우며 낮은 지대로 흐르다가 임진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해 남긴 거대한 조각품이다. 방사 모양으로 퍼진 절리, 수직으로 뻗은 절리 하나하나가 개성이 강하다. 화산활동이 끝난 용암대지에 강물과 빗물이 스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다 부서진 결과다. 현무암 절벽에서 밝은 부분은 최근에 무너져 갯 형성된 절리. 수십만 년이 지나도 미완성인 걸작이다. 겨울의 임진적벽은 자연이 주최한 전시회장이다.

평화누리길 11구간 종착지, 군남홍수조절지

아쉬워도 걸음을 재촉할 시각이다. 군남홍수조절지는 약 19킬로미터 길이의 11구간 트레킹을 마무리하

군남홍수조절지 두루미테마파크는 두루미가 들려주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테마로 조성한 공간이다. 공원 곳곳에 두루미 조형물, 관련 이야기를 전시해 두루미를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문의 031-839-2061

는 장소다. 2010년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북에서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를 대비하려고 건설했다. 수문 13개를 갖췄으며, 총 7160만 톤을 저수하는 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함경남도 마식령산맥에서 발원하는 임진강을 남쪽으로 흘려보내기 전 이곳에서 수량을 조절한다. 강물도 관문을 통과해야 남한 땅을 여행한다. 군남댐 전망대에서 민간인 통제 구역인 민통선이 지척이다. 눈앞에 두고도 쉬이 건지 못하는 땅이 가깝고도 멀다.

두루미테마파크는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다. 휴전선에서 6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접경으로서 자연이 잘 보존된 점이나 임진강 유역의 생태 환경이 두루미 등 겨울 철새가 월동할 조건에 맞아떨어졌고 2011년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실제 크기로 만든 두루미 조형물과 습성을 안내한 표지판이 이해를 돕는다. 트레킹을 마치는 길에 둘러보아도 좋겠다.



**삼엄한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두루미 떼가 날아오른다.
한반도가 통일될 그날을 기원한다.**

천연기념물 두루미의 월동지, 민통선

울겨울에도 두루미가 연천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 이 지역 민간인 통제 구역은 세계에서 2900여 마리만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두루미가 군락을 이루어 머무는 월동지다. 습기가 많은 냉온 지대인 중국 북동부와 시베리아 우수리강 유역, 일본 홋카이도 동부에서 번식하다 10월 무렵이면 경기도 연천과 파주, 강원도 철원 등 비무장지대에서 월동한다. 연천 지역에는 벗이 붉은 단정학, 갯빛 깃털을 가진 재두루미 등 수백 마리가 쉬다가 돌아간다. 남한과 북한이 대립한 삼엄한 지대에서도 두루미는 화평하다. 평화와 장수를 상징하는 두루미 떼가 날아오른다. 빙글빙글 돌며 점점 높이. 뚜루루루 뚜루루. 두루미 울음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세상을 울린다. 겨울의 소리가 따뜻하다. ☒



안전해서 더 즐거운 한국 여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방역 관리까지 확실한 '2020 한국관광의 별' 다섯 곳을 선정했다.

글. 김규보

양양 서피비치

'누구나 가슴 뛰는 아름다운 바다'를 목표로 1킬로미터에 걸친 서핑 전용 해변과 스위밍 존 같은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 서핑을 즐기거나 해의 휴양지의 이국적 분위기를 찾는 이의 발길이 세계적 내내 끊이지 않는다. 서피비치는 서핑 구간을 엄격히 분리했으며, 입장 불허를 전제로 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편안한 여가를 보장한다. 문의 033-672-0695

제천 청풍호반케이블카

비봉산 정상까지 2.3킬로미터를 오르는 동안 청풍호의 비경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진다.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광활한 전망이 인상적인 청풍호반케이블카는 매일 두 차례 소독과 일행 탑승 원칙을 준수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지만 단 한 명의 추가 유증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의 043-643-7301

익산 미륵사지

삼국시대 사찰 중 최대 규모에 속하는 미륵사는 현재 터로 남았으나 석탑 보수 공사가 완료되고 인근에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더욱 주목받는다. 석탑과 주춧돌이 놓인 너른 벌판을 걸으며 백제의 영화를 상상하는 역사 여행지로 맞춘다. 특히 예약제 해설 서비스와 철저한 방역 등으로 안전한 관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 063-859-3873

인천 개항장 거리

일제강점기에 세운 옛 건물과 트렌디한 카페, 갤러리가 뉴트로 감성을 자아내는 개항장 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각광받는 여행지로 떠오르는 중이다. 개항장이 배경인 모바일 게임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고 거리도 감상하며 최종 장소를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관광 콘텐츠가 돋보인다. 문의 032-832-3031

영월 젊은달와이파크

비교적 덜 알려진 숲박물관이 조각가 최옥영의 디자인을 가미한 현대미술 공간으로 재탄생해 영월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현대미술 작품과 박물관, 공방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이곳은 전담 직원의 방역 안내와 함께 2시간마다 환기하고 곳곳의 손잡이, 의자, 테이블을 수시로 소독하는 과정을 꼼꼼히 진행한다. 문의 033-372-9411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더 깊고 풍요로운 여행 관광두레

내가 사는 지역을 아끼는 마음과 마음을 모아 알찬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 김보라·이지원 영화감독과 관광두레를 여행했다.

글. 김규보·이내경 사진. 신규철·박정우

강진 수인아트

진주 배건네공작소

대구 주식회사 더휴앤

순창 소소한방아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직접 발굴해 남다른 관광 상품을 만드는 일. 그 과정을 나 혼자가 아닌 이웃, 지역민과 함께하는 일.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만들고 가꾸기에 그런 결실을 누리는 여행은 더 깊고 풍요로운 감상을 선사할 것이다. 2013년에 시작해 올해 1월 현재 전국 41개 지역에서 187개 주민사업체가 활동하는 관광두레 이야기다. 공동체 문화인 두레를 관광과 결합한 관광두레는 주민이 낸 아이디어를 관광두레 PD가 멘토로 참여해 사업화하고 운영하는 협업 시스템을 갖추었다. 지역을 아끼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 숙박, 식음, 체험, 레저, 기념품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건실한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을

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음식을 먹는 여행을 넘어, 자연에 어린 역사를 배우고 체험과 관련한 전통을 깨달으며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듣는 알찬 순간을 경험한다. 이번 여정은 영화 <별새>의 김보라 감독과 영화 <미쓰백>의 이지원 감독이 함께했다. 열네 살 은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비범한 감성으로 그려 낸 김보라 감독은 차기작 시나리오를 집필 중. 여성을 모성과 동일시하는 관념을 깨는 독보적 캐릭터를 창조한 이지원 감독은 신작 <비광>의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 두 감독이 오랜만에 떠난다는 여행에서 관광두레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을까. 경남 진주, 대구, 전남 강진, 전북 순창의 관광두레를 여행한다.



관광두레 체험 중인 이지원(왼쪽), 김보라 감독



관광두레에서 우리는
자연에 어린 역사를 배우고
체험과 관련한 전통을 깨달으며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듣는
알찬 순간을 경험한다.



배건네공작소에서 소담공방을 운영하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한정희 작가가 불과 며칠 전에 제작한 따끈따끈한 지도를 건넨다. “저희가 제작한 첫 번째 마을 여행 지도예요. 지도를 따라가면 망경동의 골목골목을 만납니다. 옛 나루터길, 탕자나무길... 이름이 예쁘죠?” 원래는 한두 시간 코스 마을 여행을 한 후 인상에 남는 장면을 그리지만, 오늘은 그리고 싶은 이미지와 골목 풍경을 담기로 했다. “무얼 그리지?” 김보라 감독이 생각에 잠긴다. “학창 시절 이후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네요.” 낯설어하던 이지원 감독이 책상에 펼쳐진 오일 파스텔을 잡는다. 두 감독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기대되는 시간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관광두레 이태곤 PD가 배건네공작소에 대해 얘기한다. “이 팀이 특별한 점은 사업이 목적이 아닌 취미로 모인 주민이 사업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민 공동체라는 관광두레 개념과 딱 맞죠.” 코로나19 사태로 기대만큼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까지 공방에서는 목요일마다 그림 꽃이 피어났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인 할머니들이 모여 기억에 남은 동네 모습을 그렸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그림이 마음에 드셨는지 지식 육남매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시더니 그림과 함께 머그잔 여섯 개에 각각 프린트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들딸에게 선물할 거라고 하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서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안소운 대표도 행복해 보인다.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에서 누구나 편하게 그린다는 게 의미 깊어요.” 한정희 작가가 말을 잇는다.

이지원 감독이 먼저 그림을 마무리했다. 크랭크인에 들어갈 영화 <비광>을 상징하는 우산 이미지와 지명 ‘진주’를 멋스럽게 표현했다. “자, 이제 컵에 이미지를 프린트해 볼까요?” 한 작가의 손길이 한참 분주하다. “와, 제 그림이 컵에 옮겨 갔네요.” 그 사이 김보라 감독은 그림을 세 개나 완성했다. 진주성 풍경과 차기작 <스펙트럼>을 형상화한 무지개가 어여쁘다.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각, 김보라 감독과 이지원 감독 손에 들린 머그잔에 배건네에서의 하루가 예쁘게 남았다. “기본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김보라 감독이 해맑게 이야기한다. 두 감독의 작품도 망경동 그림책에 저장. 동네의 어제, 오늘, 내일이 그림으로 차곡차곡 쌓여 간다. 망경동 그림책이 완성될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 본다.

진주 배건네 공작소

📍 경남 진주시 망경북길 28
☎ 010-9730-4099



평범해서 특별한 동네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고 싶었다. 예술가가 곳곳에 살던 조용한 동네 망경동에 4년 전부터 재미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림, 독서, 글쓰기, 필사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가 하나둘 모여 꿈그림달팽이, 배건네그림모임, 글쓰는수요일, 필사모임 등 취미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겨났다. 우리 이야기, 우리 동네를 담은 그림책을 내는 것. 지난해 9월 안소운 대표를 중심으로 각각각색 개성의 구성원 일곱 명이 모여 관광두레 ‘배건네공작소’를 이루었다. ‘배건네’라는 이름은 진주성이 위치한 성북동 마을 사람이 강 건너마을을 친숙하게 이르던 진주 지역 말에서 따왔다.

여느 동네 골목과 같은 풍경에서 목재로 마감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배건네공작소의 아지트 ‘소담공방’에 들어서자 배건네공작소 구성원과 진주 관광두레 이태곤 PD가 반긴다. 김보라·이지원 감독이 공간이 예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선반 위에 놓인 타일과 머그잔에 망경동이 담겼다.





대구 주식회사 더휴앤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53길 10, 103동 113호
053-964-3459



영화 촬영장에서 수많은 스태프를 이끄는 김보라·이지원 감독이 오늘은 주민여행사 '주식회사 더휴앤'이 운영하는 '무덤덤투어' 여행 프로그램을 따라간다. "천연기념물 제1호가 뭔지 아시나요?" 투어를 인솔하는 장영화 대표가 운을 댄다. "바로 이곳,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입니다. 과거 측백나무가 중국에서만 자란다고 알고 있다가 도동에서 측백나무 군락을 발견하면서 남방한계선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숲에서 불어 온다. "멀리서도 싱그러운 향이 나네요!" 이지원 감독이 놀란다. "향나뭇과에 속해서 고유한 향기가 있어요." 장영화 대표가 술술 설명을 이어 간다.

주식회사 더휴앤 구성원은 평상시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아 다니던 관광 아카데미에서 인연을 맺었다. 장영화 대표와 함께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하려던 참에 관광두레 권지현 PD를 만나 2018년 말 관광두레를 결성했다. 본격적인 여행 프로그램 기획에 돌입한 것은 이듬해. 여행객에게 예상치 못한 데서 재미를 선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덤으로 무언가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첫 코스인 측백나무 숲은 들어가지 못하니 망원경을 준비해 멀리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구상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에 주민과 상생하고자 해요. 불로전통시장에 오일장이 서는 날 무덤덤투어를 운영하고, 편백 장인 공방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그 이유죠." 장영화 대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권지현 PD가 말을 보탠다. "자연 생태와 문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고 싶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여행지는 40년간 편백을 깎아 온 안종한 장인이 운영하는 공방 '형제공예사'다. 50년 정도 자란 편백을 반년 이상 자연에서 건조한 후 주걱, 컵, 지압 목침 등 40여 종의 생활용품을 생산해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편백 진액으로 만든 코팅제로 마무리한 주걱은 밥풀이 잘 붙지 않고 환경호르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인기가 높다. 공정 체험 상품 또한 주걱, 사포질한 후 열을 가해 도장을 찍는 마무리 공정인데도 김보라 감독 눈빛이 반짝거린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가우뚱하다가 금세 방법을 터득한다. 체험을 마치고 편백 컵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정답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 간다. 투어가 막바지를 향한다. 대미를 장식할 불로동 고분군에 들르기 전 불로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여행은 '먹방'이고, 시장이야말로 지역의 맛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추어탕, 손칼국수, 무침회 등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 군침이 도는 음식점이 가득하다. "체험비가 식사까지 포함한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요?" 이지원 감독이 진심으로 우려하는 낯빛이다. "더휴앤은 지역민과 상생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기에 상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영화 대표의 대답에도 진심이 묻어난다. 배가 든든하니 불로동 고분군으로 가는 발걸음도 가볍다. 걸어서 5분 남짓. 삼국시대에 축조한 토착 지배 세력 무덤 275기가 구름에 모습을 드러낸다. 1500년 시간을 오르락내리락 넘나든다. 고분군 가장 높은 지점에 포토 존을 마련해 놓았다. "앉아봐, 지원아." 옆자리를 툭툭 치며 귀여운 텐트에 속 들어가 앉은 김보라 감독이 다정하게 부른다. 찰칵. 관광두레 더휴앤이 준비한 알찬 여정이 행복한 기억으로 사진에 담긴다. 주민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더욱 생생하게 남을 추억이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쉽게 보기 힘든 전통 무예를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전남 강진에서 진귀한 관광두레를 만났다.

김도로 무예 수련을 시작한 김 대표는 2013년에 전남 강진·목포·영암·함평·진도에서 동호인을 모아 '흑룡검무예회'를 조직한다. 전국 각지에서 시범을 보이며 무예의 역사와 뜻을 탐구하던 중 자연스레 마천목 장군을 주목했다. 1417년, 전라도 군사를 지휘하는 병마도절제사이던 장군은 수인산에 전라병영성을 지어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했다.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운 뒤 국방을 강화한 활약을 대중에게 알리는 한편,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흑룡검무예회를 토대로 지난해에 출범한 수인아트는 한반도 남서부의 군사 거점이던 중요한 문화재이나 비교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전라병영성에도 관심을 가졌다. 유형문화재의 빈 공간을 무형문화재로 채워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누구나 전라병영성에 와 전통 무예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 강진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실감나게 보고 공부하는 장을 여는 것이 수인아트의 꿈이다.

그리고 보니 절도와 힘을 갖춘 동작들은 단지 수련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전통 무예와 강진의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려는 노력까지 응축한 땀의 결실이었다. 김보라·이지원 감독이 복장을

갖춰 저잣거리에 선다. 수인아트 구성원들이 활대를 잡고 화살 없는 방법부터 시위 당길 때 힘의 강약과 과녁을 조준하는 눈높이, 시위 놓는 자세를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처음이기에 모두 순조로울 순 없다. 그러나 서투르더라도 보고 들은 바를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화살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과녁 속 호랑이를 맞춘다. 진검 베기도 다르지 않았다. 칼을 가로 방향으로 휘두르면 대나무는 구부러지지만 한다. 위로 세우고 힘을 뺀 채 결을 베는 느낌으로 내려친다. 활쏘기와 마찬가지로, 마침내 대나무를 베어 내자 무예 시범에서처럼 박수 소리와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울봄에 수인아트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전통 무예 공연과 배움터 프로그램 또한 결국 뜻을 이루게 될 테다. "흥미로웠어요. 멋진 전통 무예를 직접 해 보는 것도 즐거웠고요." 두 감독이 밝은 얼굴로 수인아트 주민사업체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오늘을 만난 뿌듯한 시간이었다.

강진 수인아트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75-1
☎ 010-9344-1008



"조선 시대에 왜구로부터 이 나라 백성을 지킨 전라병영성 성주 마천목 장군을 모시고 수문장 교대식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장수들이 사의재 저잣거리로 성큼성큼 들어온다. "근래에 왜구의 침략이 잦으니 백성을 위해 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절도 있는 교대식에 이어 마천목 장군의 명을 받은 군사가 장군과 무예를 펼친다. 조선 시대에 편찬한 군용 무술 교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무예 24기 중 '제독검' '월도'의 힘찬 동작이 시선을 붙잡는다. 저잣거리 분위기는 움직이며 활을 쓰는 '궁시진', 대나무를 동강 내는 '진검 베기'에 이르러 절정을 맞는다. 화살이 호랑이 그림을 그린 과녁에 관통할 듯 세차게 박히고, 대나무는 같이 번쩍일 때마다 맥없이 쓰러진다. 오랜 수련으로 쌓아 올린 것이 분명한 실력에 감탄사와 박수 소리가 한꺼번에 튀어나온다. "다들 대단하시네요." 김보라·이지원 감독도 열심히 손뼉을 마주친다. 마천목 장군 역할을 맡은 김현수 '수인아트' 대표가 두 감독에게 궁시진과 진검 베기 체험을 권한다. 보는 것으로





순창 소소한 방앗실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9길 8-4
☎ 063-653-2333



골목 어귀에 이르자 '소소한방앗실'이 고개를 내민다. 아담한 단층에 황토색을 입혀, 찬 바람 부는 계절이어도 분위기가 포근하다. 간판에 새긴 글씨는 어쩔 이렇게 아기자기한지.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분 좋은 냄새가 밀려온다. 한편에선 들기름과 참기름이, 다른 한편에서는 커피와 빵이 고소한 향기를 보내고 있다. 방앗간과 카페로 나눠 구성한 공간은 크다고 할 순 없으나 정갈하게 매만져 예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는 김보라·이지원 감독이 기대한 대로라는 듯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소소한방앗실에서 '빵 만드는 복길'로 불리는 장희정 씨가 동글동글 뭉친 반죽을 내온다. "모양을 빚어 주시면 발효해 구워 드릴게요." "빵은 처음 만들거든요. 못생긴 빵은 10퍼센트 할인해 파시면 되겠어요." 이지원 감독의 익살에 웃음이 터지며 초면의 어색함이 사르르 녹는다. 창림문화누리마을의 자그마한 카페 겸 방앗간이 황토색 외관처럼 포근해진다.

이유미, 장희정, 최윤영 씨가 운영하는 소소한방앗실은 2014년에 결성한 순창씨앗모임에서 시작했다. 토종 씨앗을 모아 사람들과 함께 뿌리고 모종을 기르는 일을 한다. 자칫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씨앗을 지역 소농과 나누고 보존해 나가자는 착한 취지에 회원은 30여 명까지

늘었다. 회원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도정할 방앗간이 필요하다 생각할 즈음, 순창군이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창림문화누리마을을 조성했다. 셋은 2019년, 인근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던 창림방앗간 자리를 물려받아 마을의 새로운 중심으로 가꾸는 중이다. 땅을 해치지 않고 곡식은 건강하게 키우려는 소농들의 결실을 받아 찢고 뺏으며, 들깨·참깨를 볶아 기름을 낸다. 지역 소농과 공동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기름, 고춧가루, 볶음 참깨, 곡물 음료 분말을 자체 브랜드를 달아 판매도 한다. 카페에서는 제철 농산물을 이용해 쌀식빵, 쌀마들렌, 호두현미쌀파이 같은 빵을 굽는다. 김보라·이지원 감독이 빚는 빵 반죽에도 순창에서 나는 호두와 울금, 토종 보리쌀이 들어갔다.

"이 빵은 아직 판매하지 않는 거예요. 설탕을 거의 쓰지 않는 대신에 쌀가루와 여러 재료의 양을 조절하면서 맛을 내려 노력하고 있죠." "이름이 미정이니깐 '미정이빵' 어떨까요?" 소소한방앗실 사람들과 감독들이 유쾌하게

대화를 잇는 동안 모든 반죽이 하트 모양으로 변했다. 꿀까지 발라 윤기가 찰찰 흐르는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굽는 사이, 두 감독이 참기름에 관심을 보인다. "깨를 볶는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만 볶아서 연한 참기름을 짜요. 물론, 기름은 적게 나오지만 손님이 보다 안전하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숟가락에 참기름을 따라 입에 넣는다. 밥이나 반찬 없이 오직 참기름만 먹었는데도 쓴맛 하나 없는 고소함이 입안 가득 번진다. 순창씨앗모임과 소소한방앗실의 정성도 잔잔하게 어린다. 어느새 빵이 완성됐다. 두 감독 다 처음이었기에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하트 모양 그대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다.

"우아, 딱 제 스타일이예요. 정말 담백하고 좋긴하네요." 김보라 감독의 평가에 이지원 감독도 고개를 끄덕인다. "고운 공간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기도 했고요." 고맙다 인사하고 문을 나선 두 감독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소소한방앗실 사람들 모두 황토색 건물 앞을 지키며 손을 흔들었다. 그 마음이 이런 깊은 맛과 향기를 냈을 것이다.



PD님이 활동하시는 대구 동구는 어떤 곳인가요?

대구에서 동구는 면적이 두 번째로 넓고 기차역, 대구국제공항, 동대구역복합버스터미널 등이 밀집한 교통 요충지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구 여행' 하면 떠오르는 게 많지 않아 여행객이 대부분 다른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실이 제게는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만큼 이곳의 문화 자원과 자연 자원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깐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개발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동구는 대구의 상징인 팔공산이 자리하고 금호강이 흘러 아름다워요.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관광두레 PD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대구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우는 것처럼 지역이 저를 성장시킨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커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듯이 지역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어릴 적부터 오일장과 전통시장을 좋아해 관광두레 PD가 되기 전에는 사라져 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시장 상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제 나이에 누구보다 지역을 많이 안다는 자신감이 생기던 차에 관광두레 PD를 알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 주민이 하고 싶은 사업을 도와 직접 진행하고 총괄한다는 점이 좋아 PD가 되었죠.

현재 다섯 관광두레를 운영하죠?

모두 지역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팀이에요. 섬유 도시 대구는 이제 옛말이에요. '주식회사 화소정'은 젊은 엄마들이 섬유의 명맥을 이으면서 환경을 지키고자 뭉쳤어요. 보자기를 손수건이나 스카프 형태로 만들어 선물 포장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활용하도록 제작했지요. 많은 이가 잘 모르는데, 대구는 국내 최대 연근 생산지예요. '금강행복마을협동조합'은 이곳에서 생산한 연근 등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요. 저렴한 데다 순박한 맛이 정말 좋아요. '명품웃골 1616 협동조합'은 400년 마을 전통을 잇고자 주민이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옥 숙박, 한옥 전통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요. 대구 동구의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숨은 여행지를 발굴하는 '주식회사 더휴엔', 버려진 가족과 도자기를 활용해 기념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모냥' 등 대구 동구의 관광두레는 지역의 가치를 높여요.

새해 대구 동구 관광두레 계획이 궁금합니다.

다섯 관광두레가 협업할 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두레 팀이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창구를 마련하는 거죠. 사실 3년 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올해 드디어 열매를 맺었거든요. 화소정이 설날을 맞아 모냥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선물 세트를 제작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열었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대구 동구 관광두레를 기대해 주세요.



권지현
대구 동구 관광두레 PD



PD님이 활동하시는 강진은 어떤 곳인가요?

강진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예쁜 것이 모두 모여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강진은 제주에 버금가는 경관의 녹차밭, 순천만습지만큼 아름다운 강진만생태공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가우도, 한반도에 표류한 하멜의 흔적이 있는 한글목과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 물이 맑은 계곡인 경포대, 가장 오래된 국보급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무위사 극락보전을 비롯해 한국민화뮤지엄, 고려청자박물관 등 국내 관광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담은 곳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강진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강진에서 관광두레 PD로 나선 계기가 있을까요?

2008년 8월에 강진에 왔으니 햇수로 14년이네요. 우연히 여행 왔다가 자연이 정말 좋아 가족과 함께 무작정 내려왔어요. 이렇다 할 준비가 없었기에 수업료도 많이 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요. 강진에 정착하겠다고 결정할 즈음에 읽은 소설 <남쪽으로 튀어>라는 책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2017년에 12.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관광두레 5기 PD로 임명됐고, 지금은 5년 차입니다. 타향에 사는 동안 많은 강진 군민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강진의 관광두레를 소개해 주세요.

지난 4년간 발굴한 17개의 주민사업체 중 일곱 곳이 창업에 성공했어요. 2020년 후반엔 세 곳을 새로 선정했고, 한 곳이 예비 주민사업체로서 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총 열한 곳에서 주민 50여 명이 활동합니다. 강진 관광두레는 '강진관광두레여행' 프로그램으로 연계 관광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1코스 '강진 여행의 시작'은 강진의 단청을 배우고 만드는 '오색단청탐해', 갈대밭 체험장 '내마음은갈대' 등을 둘러봅니다. 2코스 콘셉트는 '비밀의 정원'이에요. 허브 정원이 아름다운 '발효담다'의 치유 도시락을 즐기고, '두애'의 두부 체험장에서 직접 만든 손두부를 먹기도 하죠. 3코스는 '무술 도시'입니다. '수인아트'의 전통 무예를 감상하며 전라병영성과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 같은 인근 여행지도 관람해요. 4코스 '다산과 그림책', 5코스 '과거로의 여행'에도 갖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코스는 주민여행사 '바람난강진'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돌아볼 수 있어요. 강진에서 나는 식재료를 맛있는 밥을 내는 '강남상회'가 짐 보관과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니 편안한 강진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강진 여행이 참 즐거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강진은 휴식이 있는 여행지입니다. 복잡한 마음과 무거운 머릿속을 비워 내기 위한 여행지로 강진을 선택해 보세요. 시간이 멈추는 여행,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경험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강진 관광두레 주민과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선
강진 관광두레 PD





이 계절에 추천하는 관광두레



이름	주요 사업 내용	주소	전화번호
속초응골밭기 영농조합법인	딸기 생산, 딸기 따기 체험	강원도 속초시 응골길 44-46	033-635-3338
서프시티협동조합	서핑 체험, 서프 트레이닝 과정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159-12, 1층	010-5578-1824
쟁강협동조합 (쟁강게스트하우스마을)	게스트하우스, 자전거 투어, 카누 투어, 쟁강 도시락, 팜 파티	강원도 춘천시 서면 뒷골길 7	010-7113-5978
4·16 희망목공 협동조합	폐목재를 활용한 목공 기념품 제작, 힐링 목공 체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416	031-402-4160
평화오르골	파주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 제작, 갈등의 숲 평화 오르골 체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333번길 128	010-2704-7773
광명협동조합	버섯 및 버섯 가공품 생산, 농가 팜 카페	경북 경주시 대경로 4451	010-9930-3940
주식회사 더휴엔	여행 사업, 숲 해설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53길 10 103동 113호	053-964-3459
주식회사 화소정	로컬 재료를 활용한 식음 상품, 보자기 체험 연계 상품 개발	대구시 동구 동호로9길 60	010-8482-2098
명품웃골 1616 협동조합	한옥 스테이, 한옥 전통 체험	대구시 동구 웃골로 195-5	010-3507-5994
메이드인강화	소창을 활용한 패브릭 소품 제작, 천연 염색과 전통 스탬프 체험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B동 라 10호, 11호	010-5394-2382
농업회사법인(주)두애 (두부콩방)	농촌 체험 관광, 두부와 콩을 소재로 한 농박 체험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90	010-8422-6053
상점195협동조합	서산 지역 기념품 제작과 판매, 칠보와 수공예 체험	충남 서산시 대사동1로 55	041-664-0208



주민이 만드는 진짜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여행지를 안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곳만의 기념품을 제작합니다.
관광두레로 진짜 여행을 떠나세요.



겨울의 선물 평창

글. 진주영 사진. 이규열

겨울바람을 맞으러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다.
평창 관광 택시가 그 길을 안내했다.



평창, 이 도시를 생각하면 심장이 빠르게 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남긴 뜨거운 기억 때문이다. 빙판 위 김연아 선수의 우아한 성화 봉송, “영미~”를 외치던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공식 마스크트 수호랑 등 이런저런 모습이 머릿속에 두둥실 떠오른다. 3년이나 흘렸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사계절 아름다운 평창이지만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감쪽 선물 같은 설경이 펼쳐지는 곳, 겨울엔 역시 평창에 가야 한다. 마침 눈이 왔다기에 평창으로 가는 KTX에 올랐다.

여유가 필요할 때, 평창 관광 택시 여행

평창역과 진부역, 평창에 자리한 두 개의 KTX 역 가운데 진부역에 하차했다. 수호랑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마스크트인 반다비 모형이 반기는 이곳에서 평창 관광 택시를 탈 계획이다. 6시간 동안 전용 택시를 이용해 여행지 두세 곳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운영을 시작했다. 출발 전 평창군관광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택시 요금에 관광지 입장료뿐 아니라 왕복 KTX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도 특별하다. 기차와 택시, 관광지를 한데 묶은 다음, 서울과 평창을 오가는 KTX 시간에 맞춰 다녀오기 알맞은 6가지 코스를 모았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 무이예술관 등 흥미로운 곳이 많은데 두세 곳만 선택해야 하니 쉽지 않다. 긴 고민 끝에 1코스인 월정사와 대관령 삼양목장에 가보기로 했다. 진부역 앞으로 평창 관광 택시라는 여섯 글자가 또렷하게 쓰인 택시 한 대가 마중 나왔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갔다. 택시 앞에서 마스크를 쓴 운전사가 환하게 맞아준다. 평창군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한 소수의 인원에게만 평창 관광 택시 운전대를 맡긴다. 운전 실력은 기본이고, 지역 지리와 역사, 여행 정보에 해박하면서도 여행자를 든든히 뒷받침해 줄 사람으로 엄선했다(문의 033-333-5558).

사계절 아름다운 평창, 그중에서도 겨울의 평창은 꼭 봐야 한다. 감쪽 선물 같은 설경은 물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풍경을 안겨 주는 곳이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진부역까지 1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눈 쌓인 월정사는 차가우면서 포근하다.
사찰에 스민 따스한 햇볕이 조용히 안부를 물어 온다.





천년 세월이 만든 풍경,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

진부역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월정사를 향해 달리는 동안, 두런두런 소소한 대화가 오간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당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말에 귀가 쫑긋, 지역 주민의 생생한 후기를 듣고 창밖 경치도 구경한다. 거리마다 조금씩 쌓인 눈에 관심을 보이자, 며칠 새 눈이 꽤 내렸다는 이야기가 돌아온다. 운치 있는 겨울의 월정사를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어느새 월정사 일주문에 도착했다. 여기부터 약 1킬로미터 길이의 전나무 숲길이 펼쳐진다. 택시에서 내려 눈이 소복한 숲길을 걷는다. 사시사철 푸른 1700여 그루의 전나무에 안기는 기분이 호사롭다. '침묵은 건기를 온전히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 다함과 집중은 즐거움과 통찰을 가져온다' 등 몇몇 나무에 걸린 문구가 몸가짐을 차분하게 한다. 월정사는 2004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달간 스님이 되어 보는 단기 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입학 첫날, 수행자들은 짝뿔 잘라 낸 머리카락을 화선지에 쓴 후 일주문 근처에 묻는다. 그리고선 사찰 경내까지 삼보일배 하며 나아간다. 그런 정성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을 다해 걷는다. 1400년 역사의 월정사만큼 오랜 시간을 버틴 길엔 수령 600년 된 나무가 2006년 태풍에 고꾸라진 모습도 고스란히 남았다. '쓰러진 전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는 흙바닥에 몸을 누인 채로 숲길의 상징물이 됐다.

643년 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화재로 여러 번 소실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중건됐다. 마당에 놓인 팔각구층석탑은 고려 시대에 지은 것으로 오랜 세월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 국보로 지정됐다.
문의 033-339-6800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간직하는 길의 끝자락, 서서히 천년 고찰에 가까워진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최고의 명당, 오대산 월정사다. 울창한 산세를 배경으로 둔 사찰에 감탄사가 절로 터진다. 절경을 감상하다 보면 석가모니 불상을 모신 법당인 적광전, 그 앞에 자리한 15.2미터 높이의 팔각구층석탑, 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양인 석조 보살좌상에 자연히 눈길이 간다. 643년 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크고 작은 화재를 겪었다. 한국전쟁 역시 이곳에 큰 상흔을 남겼고, 이후 중건한 것이 현재 모습이다. 혼란한 와중에도 고려 시대에 지은 팔각구층석탑은 곳곳이 버텨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풍파를 이겨 낸 탑 곳곳의 작은 종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안부를 묻는다. 답례는 탑 둘레에 오른쪽 어깨를 가까이하고서 세 바퀴 도는 것으로 대신한다.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길,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에 꼭꼭 눌러 담는다. 1400년, 쉽사리 기뻐하기 어려운 세월을 품은 사찰을 돌아 나온다. 주차장에 대기 중인 택시에 올라타니 추위에 움츠러든 몸이 천천히 녹는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월정사와 대관령 삼양목장 풍경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 바다가 맞닿는 대관령 삼양목장

월정사를 출발한 지 30여 분 만에 대관령 삼양목장에 다다랐다. 11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엔 개별 차량을 이용하고, 날이 따뜻한 5월부터 11월 초까지는 셔틀버스로 목장을 투어한다. 1972년에 조성한 대관령 삼양목장은 규모가 1980만 제곱미터(약 600만 평)에 이른다. 낮게는 850미터, 높게는 1470미터 고도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하늘과 가



풍파를 이겨 낸 탑 곳곳의 작은 종이 바람결에 흔들린다.
찰랑찰랑,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소원을 빈다.



까운 곳이다. 따뜻한 계절에는 너른 들판을 자유롭게 오가며 풀을 뜯는 양, 젖소가 보이지만 겨울엔 동물도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탁 트인 자연만 남는다. 그 대신 동물 체험장에서 먹이를 주며 양, 타조와 교감할 수 있다.

겨울 목장을 만끽하기 위해 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러다 해발 1140미터에 자리한 동해 전망대에 닿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설경이 아름다우리라 기대했건만 생각만큼 눈이 보이질 않는다. 월정사만 해도 자박자박 눈이 밟혔는데 어째서 여긴 그렇지 않을까? 이유는 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알게 된다. 택시 문을 살포시 여닫기가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온몸을 훑고 간다. 이 정도로 세찬 바람이라면 웬만해선 눈이 쌓일 새가 없겠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인증 사진을 찍자마자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1초, 2초, 3초... 크게 초를 세는 소리도 들린다. 30초 안에 사진 촬영, 전망 관람 같은 모든 일을 마치고 차로 복귀하자는 신호다. 둔덕에 놓인 50여 기의 풍력발전기가 쉬지 않고 돌아간다. 강원도 강릉 인구의 절반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더니, 과연 그럴 만한 곳이다. 이렇게 추워도 될까 싶은 날씨에 도리어 웃음이 난다. 바람을 제대로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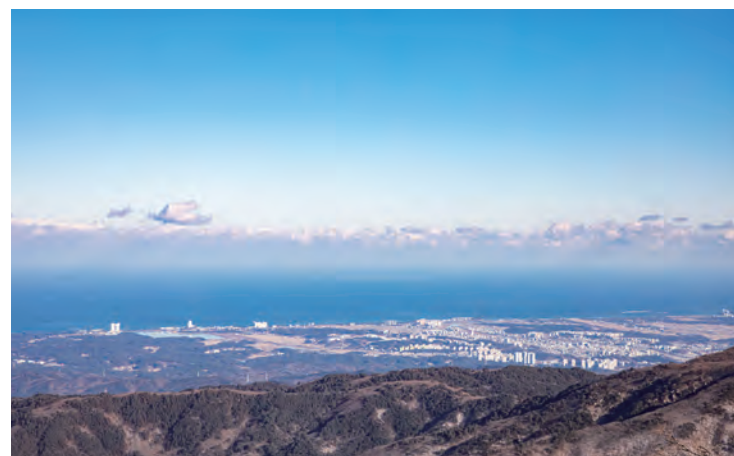
그래도 볼 것은 봐야 한다. 전망대로 다가서자 강릉 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운 좋게도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헷갈릴 정도로 맑은 날이다. 설경 대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풍경을 선물 받았다.

1972년 문을 연 대관령 삼양목장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양과 젖소를 키운다. 해발 1140미터에 자리한 동해 전망대에선 강릉 시내와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문의 033-335-5044



겨울날의 평창을 기억하는 법

평창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진부역으로 돌아왔다. 서울 가는 KTX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다. 하루 동안 정이 쌓인 평창 관광 택시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여유롭게 열차 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3년 전 겨울, 세계인의 가슴을 뭉개 한 도시는 여전히 힘찬 기운을 뿜어낸다. 1400년이란 장대한 시간을 견딘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은 매서운 바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연 그 자체인 대관령 삼양목장의 대지는 추운 날에도 넉넉한 마음을 건넨다. 이렇게 평창을 추억할 또 하나의 방법을 터득했다. 그사이 겨울 냄새가 깊이 밴 옷자락을 여미며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



전국
우수 숙소
서울



한국관광 품질인증
KOREA QUALITY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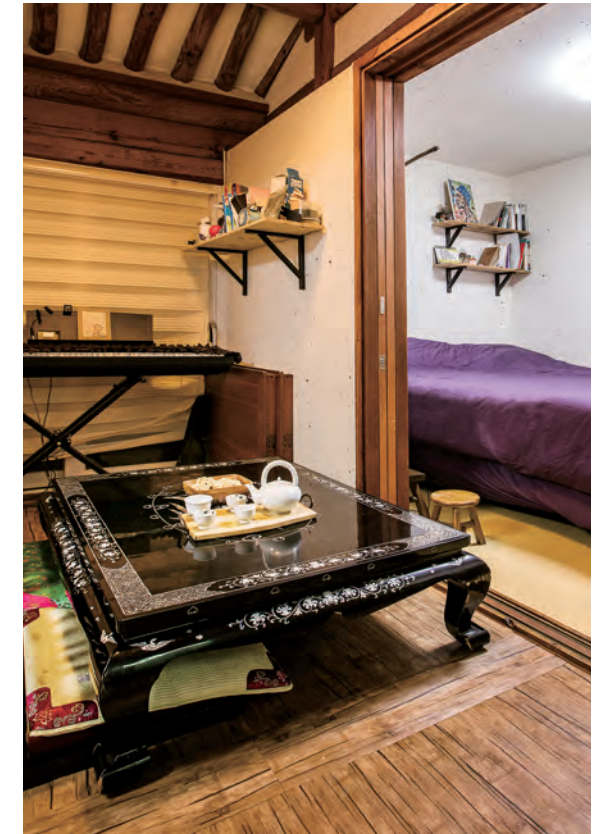
KOREA QUALITY

특별한 인연을 짓는 집 한옥유진하우스

이곳을 '여행자의 방'으로만 소개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마음 예쁜 김영연 대표가 가족과 함께 정성껏 가꾸고 이야기를 쌓아가며 세계 여러 나라 여행객들과 지은 집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집 이웃처럼 불편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가 하면 먼 나라에서 온 청년의 생일에 미역국을 한 상 차려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도 한다. 한옥의 포근한 울타리 안에서 여행객은 캘리그라피 체험을 하고 꽃차를 마시며 한국인의 '정'을 온몸으로 느낀다. 장독대와 한지 바른 문, 전통기와, 대들보 등을 바라보고 진정한 휴식을 취한다. 철학자 김태길 선생이 서울대 문리대 재직 시절 이곳에 머물며 삶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도 숙소의 가치를 더한다. 2009년부터 맺은 인연 중에는 SNS와 손 편지로 추억을 되새기는 외국인도 많다. 그들의 사연을 읽다 보면 좋은 숙소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훌륭한 시설보다는 하루를 머물더라도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INFORMATION

📍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12길 36 ☎ 010-5069-3348
 🌐 eugenehouse.modoo.at
 📍 숙소 인근 한양도성 성곽길 걷기 추천



숙소의 보물 1호



김영연 대표의 보물, 친정어머니의 흑백사진
 이곳의 숨은 조력자는 팔손을 훌쩍 넘긴 김영연 대표의 친정어머니. 사계절 때 맞춰 보내는 택배 상자에는 손맛 스며든 전통 발효 음식, 건강에 좋은 밀반찬, 그리고 응원과 격려가 한가득이다.



대담하게 생략하는 순백의 힘

충남 금산·논산과 전북 완주에 걸친 대둔산에서
모든 소리를 삼킨 새하얀 세상을 만났다.

글. 신준범 사진. 주민욱(이상 월간 <산> 기자) 진행. 김규보

어제와 다른 세상이었다. 대둔산자연휴양림 창문을 열자 영하 16도의 냉기가 국경 경비원의 간간한 시선처럼 덮쳐 왔다. 설국으로의 입국이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추위를 삼킨 건, 순백의 능선. 현란한 바위 선의 9할을 생략한 대담한 숨씨, 순간 시간이 멈추었다. 설경에 시선이 빨려 들고 있었다. 폭발적인 흡인력으로 마음을 잡아당기는 흰 산줄기, 저 산에 몸과 마음을 오롯이 포개고 싶었다. 한파 특보와 대설 특보가 동시에 내려졌다는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등산화에 스페츠를 단단히 고정했다. 공기는 냉동실 같아도 하늘은 한없이 푸르다. 흰 산이 설레어 견딜 수 없는 이들, 연세대산악부 주장 최동혁 씨와 성균관대산악부 박지우 씨다. 청춘 영화의 주인공 같은 이들이 순백의 세상에 자기 발자국을 써 내려간다.

도인이 사는 듯한 환상의 풍경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자 신세계가 펼쳐진다. 파란 하늘과 흰 땅의 단순 명료한 조화, 순백을 덮어 주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가. 단숨에 고도를 630미터로 끌어올려 전망대에서 설국을 마주한다. 거리 두기란 말이 무색하게 고요한 세상, 물결처럼 펼쳐진 능선의 바다 앞에 선다. 기침도 조심스러웠던 몸가짐이 거리낌 없이 풀려난다.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마음은 하늘을 가른다. 금강구름다리에 닿자 눈



덮인 바위산이 비경의 진수를 드러낸다. 붉은 구름다리를 건너 전망대에 오른다. 사람의 땅이 아닌 것만 같다. 도인들의 세상이 아니고서야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가 이토록 환상적일 수 있을까. 수려한 경치가 널려 있어 산행은 전혀 속도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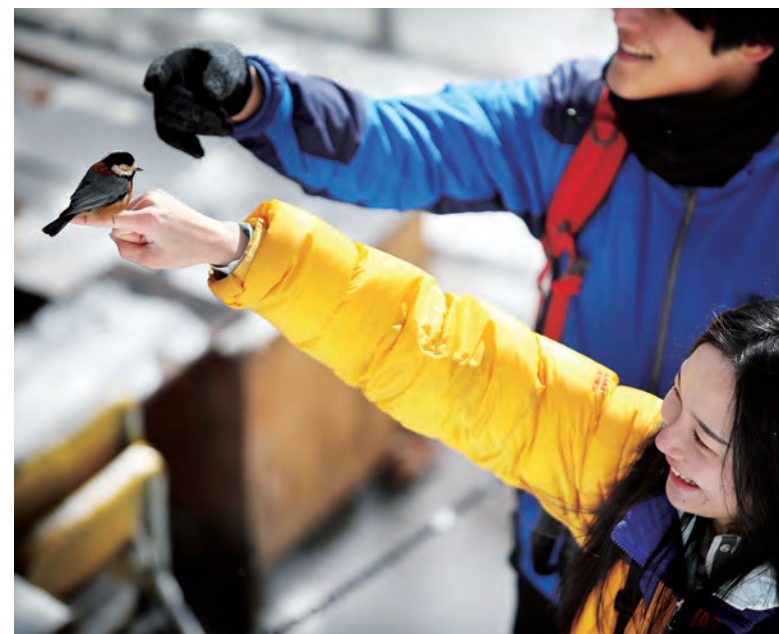
산행에만 집중했다면 마천대에 올랐을 시간이지만 삼선다리에서 설경 삼매경이다. 늘어진 3개의 바위 봉우리가 마치 신선 같다 하여 삼선바위라 불리며, 바위 꼭대기로 이어진 철 계단을 삼선다리라 부른다. 고려의 마지막 재상이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여 이곳에 묻혀 살았는데, 그의 딸들이 선인으로 변해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삼선다리는 담력 시험 코스로 꼽힌다. 사다리인 양 가파른 데다 계단 아래로 느껴지는 고도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주말 등산객이 많을 땐 겁에 질려 손사래 치며 우회로로 가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계단을 올라서서 뒤돌아보니, 양 떼처럼 풍성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진다. 속에선 무력무력 행복감이 솟아오르고, 얼굴엔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앞으로는 마천대 위에 우뚝 솟은 철탑이 햇살에 반사

되어 빛난다. 문지를 마(摩), 하늘 천(天)을 쓰는 마천대는 말 그대로 하늘에 닿을 듯 높다는 뜻으로, 원효대사가 대둔산에서 수도할 때 지은 이름이다.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진리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 또한 대둔산을 가리켜 “사흘을 둘러보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며 극찬했다. 눈 덮인 돌계단에 발자국을 새기며 오른다. 발로 눈을 치우며 안정적으로 디딜 곳을 가늠한다. 가쁜 숨결에 증기기관차처럼 입김이 솟아오르고 근육이 달궈진다. 비로소 몸이 풀리며 산세를 몸으로 읽어 낸다. 정상이 다가올수록 잡념이 사라지고 산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산행의 맛을 만끽한다.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는 하늘에 닿을 듯한 경치가 마스크 쓰고 호흡하느라 갑갑했던 사람들의 속을 후련히 열어젖힌다. 대둔산은 해발 879미터로 고산이라 할 만큼 높지 않지만, 주변 산 높이가 낮아 웬만한 1000미터대 산보다 경치가 시원하다. 설국의 향연. 사방을 둘러보아도 평범한 능선이 없다. 비범한 붓질로 남은 능선이 끝없이 물결친다. 복잡한 세상을 덮은 폭설의 단순 명료한 힘. 세상 모든 소리를 삼킨 듯 조용하다. 그 많은 말을 덮는 폭설. 울곡 이이가 <격몽요결>에서 쓴 “많은 말과 많은 생각은 마음에 가장 해롭다”라는 지혜를 설산이 일러 준다.

●●
대둔산과 가까운 역은 서대전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대전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눈의 말을 들으며 걷는 길

낙조대로 발길을 돌린다. 곤장 아이젠을 끼고 집중해서 산길을 걷는다. 이정표와 난간이 적지 않은 대둔산이지만 바위가 많고 가팔라 어디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이곳 주 능선엔 거칠게 솟은 암릉이 상당해 바위 아래를 우회하는 산길이 산재해 있다. 사람이 못 오를 것 같은 바위에도 대체로 절묘하게 길이 나 있어, 유심히 살피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바위 능선의 날 위에 서면 눈산·금산·완주 일대가 한눈에 잡힌다. 그 대신에 1만 대군이 얼음 화살을 쏘는 듯한 특유의 칼바람을 감내해야 한다. 발목까지 오는 눈을 헤쳐 낙조대에 오르자 마천대와 다른 푸근한 경치가 다가온다. 특히 북쪽 계룡산과 계룡시, 대전시 일대가 드러난다. 의외로 눈길을 끄는 산은 덕

유산이나 민주지산이 아닌 서대산이다. 백두대간에 속한 명문가의 자제들을 제치고 빼어난 산세로 솟아 충남 최고봉다운 힘을 보여 준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용문골로 들어선다. 낙하하는 눈처럼 가파른 비탈로 이끌며 고도를 뚝뚝 떨어뜨리던 산길은 용문골에 이르러서야 숨 돌릴 틈을 준다. 선도대사가 수련할 때 용이 석문을 열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골짜기에 내려서자, 단단한 고요함이 “뿌드득 뿌드득드득” 눈 소리를 들려준다. 그렇다. 어떤 사연, 어떤 인연을 거쳐 낙하했는지, 눈은 할 말이 많았던 것이다. 눈의 말을 안으로 삼키며 걷는 이 길이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길 바란다. ☑

* '건강 여행'은 월간 <산>과 제휴한 길림으로 '눈꽃 산행 르포'를 재편집했습니다.



Special exhibition *Color and Radiance: Glass Treasures of Silla and Ancient Korea*
Introductory section in the Special Exhibition Hall
Glass Cup from Cheonmachong Tomb

Glass

Whether it's to quench your thirst, to endure the heat or cold, to spend time on your own, or to hang out with others, we drink various beverages, up to several cups a day.

The people of Silla, who lived around 1,500 years ago, are likely to have had similar drinking habits. They drank from this glass cup, whose deep shade of blue is reminiscent of the vast ocean. The bubbles dance like waves along the Mediterranean shores of Egypt, and the hexagonal design, looking as solid as tortoise shells, seems to reflect the pride in having traveled all the way to Silla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What did the people of Silla fill this cup with? Do take the time to image while admiring this beautiful treasure, which was loved more dearly than gold. ☞

Color and Radiance: Glass Treasures of Silla and Ancient Korea, Gyeongju National Museum
Introductory section in the Special Exhibition Hall
Runs through March 1, 2021 For inquiries, contact 054-740-7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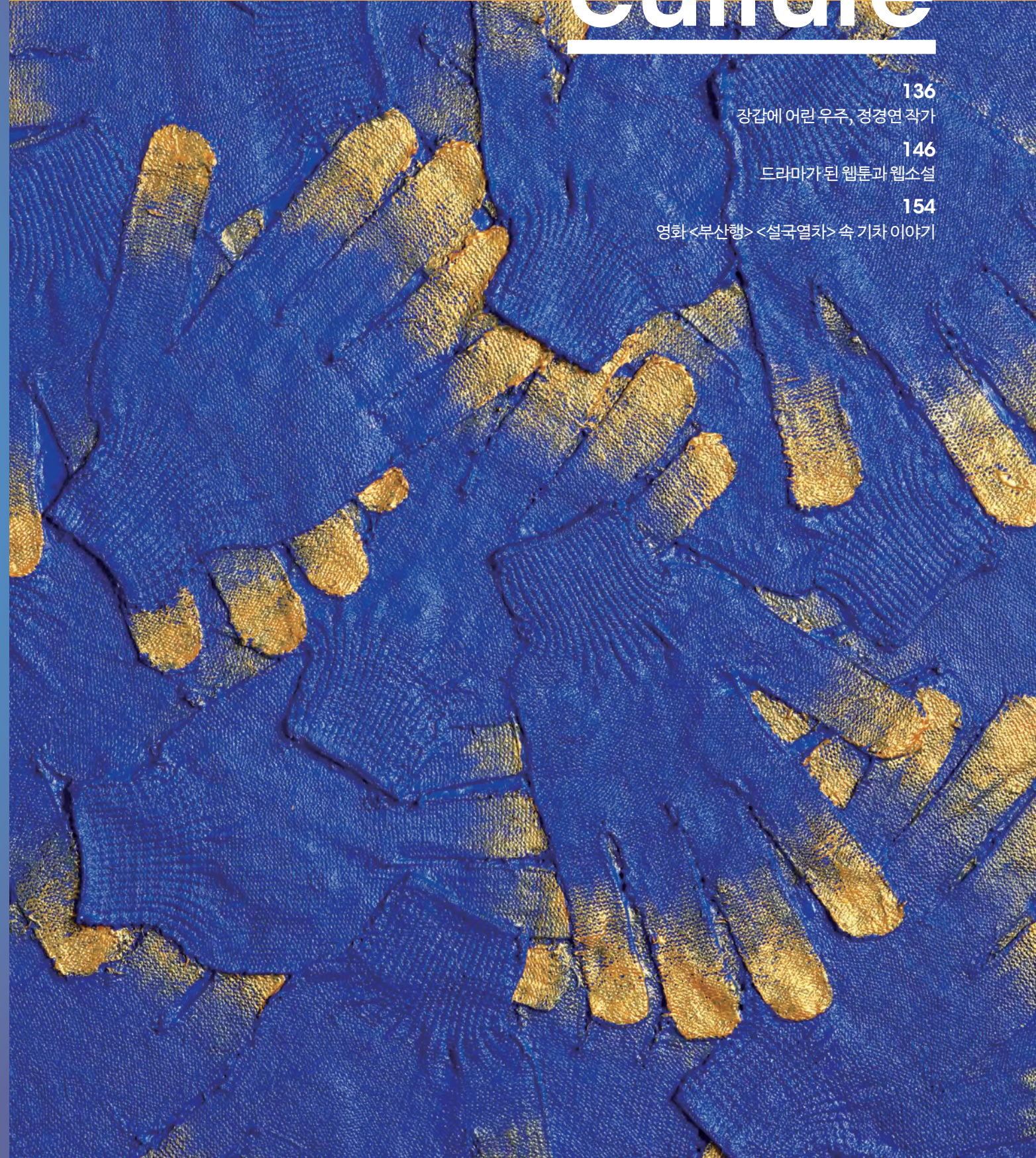
정경연 작가의 'Gold Finger'

culture

136
장갑에 어린 우주, 정경연 작가

146
드라마가 된 웹툰과 웹소설

154
영화 <부산행> <설국열차> 속 기차 이야기



장갑에 어린 우주

정경연은 아직 다 보여 주지 않았다. 40년을 수행하듯 이어 온 장갑 작품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어울림 2013-01, 145.5×112.1cm 80F, Mixed materials & Techniques on canvas, 2013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자리를 펼 때, 손은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매개가 된다. 대개 사람은 몸에 닿아야 삶으로 변화하는 사물을, 손을 써 거두어들이고 품고 흡수하는 까닭이다. 생명을 생명있게 하는 수단 중 하나인 손에 '쓰다'라는 표현을 덧붙이지만 잊으면 안 된다. 손은 나 자신이다. 손가락에 밥을 얹어 입에 넣는 행위를 손이 떠먹여 준다고 묘사할 순 없듯, 먹고사는 일을 감당해 내는 주체로서 손은 엄연한 자신이다. 종종 나와 동떨어진 무엇으로 여겨지되, 기실 오롯한 나인 손을 내민다. 바람이 스치고 꽃잎이 떨린다. 흙은 부드럽고 당신은 따뜻하다. 그들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에 우리는 마주 잡고 서로를 느낀다. 그때 손은 생계의 수단을, 나 자신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자 세상 자체로 확장된다. 바로 그 손에 장갑을 끼워 주는 것, 몸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너와 나는 우리라는 말을 건네는 것. 정경연 작가가 장갑 작품을 시작한 지점에서 바라본 풍경은 나였고 너였으며 온 세상이었다.

상대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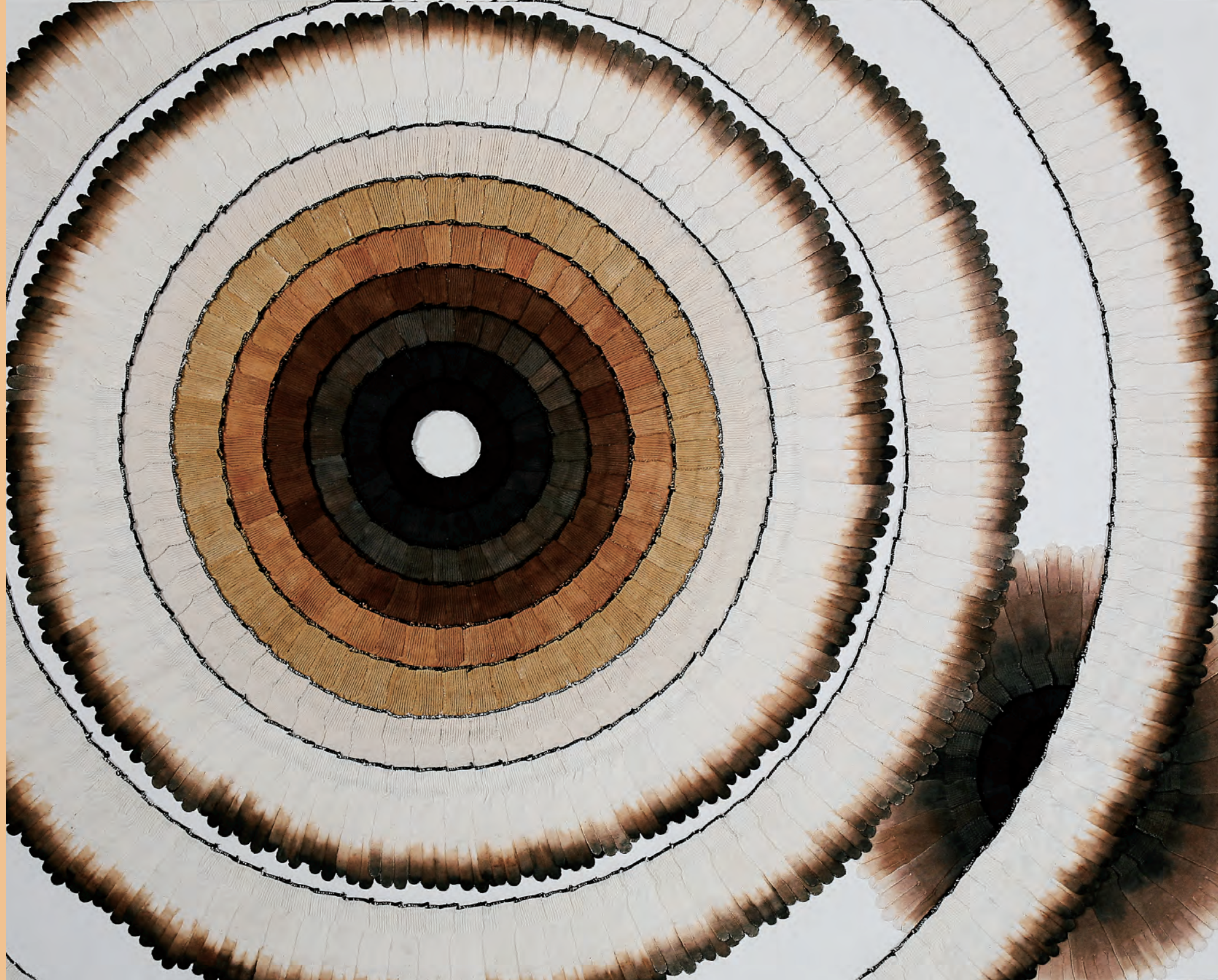
정경연은 1981년, 첫 개인전에서 염료로 물들인 한지를 못에 걸거나 끝부분이 하얀 장갑을 깎지 끼듯이 붙인 '무제' 시리즈를 선보였다. 한지와 면의 질감이 고스란한 섬유를 걸치고 뭉쳐 완전한 예술로 탈바꿈한 작품이었다. '무제' 시리즈는 당시 한국 미술



정경연 홍익대학교 2년 수료 후 미국 매사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학사 학위를,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석사 학위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산업미술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54회 열고, 전시에 1000여 회 참여했다.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이종섭미술상, 석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계에 충격을 안겼다. 판에 박은 문구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충격이란 말은 이와 다른 의미로 온당하지 않기도 하다. 섬유를 쓰임새의 가치를 높이는 공예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대에 그의 작업을 틀을 깨고 판을 흔들었으며, 그로써 섬유미술의 다음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전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한 한국 섬유미술의 근원을 되짚는 과정엔 언제나 그가 앞서리에 등장한다. 이걸 겨우 처음의 이야기다. 1980년, 26세의 나이에 홍익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국내외에서 54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전 외에 참여한 전시까지 헤아리면 백 단위를 하나로 쳐서 열 손가락을 꼽아야 할 정도다. 황조근정훈장 수훈과 숭수상 이력을 나열해 보는 것 또한 정경연이 걸어온 길과 그에 따른 한국 미술계의 전이를 헤아리는 방편일 수 있겠다.

그는 분명 왕성하다는 말이 부족할 활동을 펼쳐 한국 섬유미술을 독보적인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만한 성취를 일군 대가에게 무슨 수식이 필요할까. 이름이 곧 상징이라고 해도 과도하지 않을 테지만, 그를 만



블랙홀 09-01, 181.8X227.4cm,
Mixed Materials&Techniques on Canvas,2009

**치밀하게 수놓은 장갑들이 동그란 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불가항력에 홀린 것처럼 삶의 경계선을 찾는다.**

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뜻밖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상대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웃으며 스스로 다가와 안아 주기도 한다. 누구의 예상보다 유쾌하면서 그런 자신을 천연하게 내보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표정과 몸짓엔 권위나 위신 같은 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묘한 힘이 있다. ‘대가 정경연’이라는 낯설이 슬그머니 벗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경연 자신이 원했던 원치 않았든 40여 년간 회자된 ‘장갑 작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우리에게 장갑은 어떤 이미지일까. 고단한 현장에서 노동자의 손을 보호하는 장갑, 한겨울 추위에 언 고사리손을 녹여 주는 장갑,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는 부모님 손의 장갑, 그러한 장갑을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는 마음들. 인간 정경연이 작가 정경연의 지평을 연계기는 저 문장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동양화와 서양화, 응용미술을 공부한 뒤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장르를 경험해 보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매사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와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가 장갑에 주목한 건 이 몇 해 동안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보낸 소포를 뜯어보니 면장갑 한 뭉치가 들어 있었다. “아무리 허름한 일이라도 이 장갑을 낄 것이며, 설거지할 때도 장갑을 먼저 낄 다음에 고무장갑을 껴야 한다”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순간, 정경연은 우주를 보았다. 나 혼자 열심히 있어서 지금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실은 그럴 순 없다는 사실이 선언했다. 농부가 피땀 흘려 기르고 수확한 결실을 먹는 것이었으며, 일꾼이 때론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고도 끝내 지어 올린 건물에서 공부하고 휴식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장갑, 장갑의 울처럼 얽히고 설켜 세상을 이루는 인연들. 정경연이 본 우주였다.

거듭 태어나는 장갑

줄일 건 잠밖에 없었다는 40여 년 세월을 하루걸러 하루씩만 자다시피 한 혹독한 정진 속에서 작품을 만



QR코드를 스캔하면
정경연 작가의 작품과
작업 과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들었다. 주요 화두는 장갑이었다. 애초에 그는 작품에 '무제'라는 이름만 붙였다.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무한히 많다는 의미다. 장갑의 우주는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가 장갑에서 어머니의 따듯한 손을 연상했듯 누구는 연인과 헤어지던 날 마지막 손잡음을 생각하고, 누구는 해후의 기쁨을 누리던 그날 그 사람의 반가운 손짓을 생각한다. 장갑 작품은 어떠한 해석도 틀리다 말하지 않는 열린 공간으로 모든 이 앞에 공평하게 존재한다. 40여 년 전, 작업의 출발과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그가 드러내는 겸손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이치를 자각하고 모두를 우러러야 보이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일. 그것은 시작도 끝도 나를 낮추지 못하면 불가능한 하심(下心)의 영역이다.

그는 '무제' 시리즈에 이어 '어울림' '하모니' '블랙홀' 등의 시리즈를 내놓았다. 장갑을 다채롭게 변주한 시리즈 중에서도 '블랙홀'은 압도적인 감상을 안긴다. 규모가 크대거나 거창한 해석이 부연돼서가 아니다. 치밀하게 수놓은 장갑들이 둥그란 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불가항력에 홀린 것처럼 삶의 경계선을 찾는다. 어디가 최초이고 종국의 장면은 무엇이 될는지. 둘의 간극에서 점일 뿐인 장갑들은 모



Harmony installation video art & mixed media, 2008

여서 선을 일군 뒤 확산하고 수렴하며 발화하다 소멸해 가는 것을. '무제'가 삶과 삶이 어울리는 궤적을 천천히 짚어 간다면 '블랙홀'은 어울린 이후의 양상을 농밀하게 은유한다. 그러나 이견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당신의 '블랙홀'은 어떤 광경을 펼쳐 내는가. 정경연의 장갑은 보는 이의 마음에서 거듭 태어난다.

silver hand-2020, 15x, 15x(h)20cm, bronze, 2020




늘 그랬듯, 앞으로도 늘

그는 여전히 작업한다. 정년 퇴임을 기점으로 조금쯤 여유가 생겼지만 하루걸러 하루씩만 자다시피 하던 정진의 마음을 간직한다. 그리고 여전히 상대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웃는다. 그 표정과 몸짓에 모든 생명을 담혀 줄 장갑이 어려 있다. 내면에 깃든 장갑을 하나씩 꺼내 칠하고 붙이고 구우며, 자신이 보았던 우주를 완성해 내고 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전시를 열어 장갑 작품을 선보일 것이다.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어떠한 해석도 틀리다 말하지 않는 열린 공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보낸 세월이 그랬듯이, 그의 장갑은 늘 그럴 것이므로. ☑



Chung Kyoung-yeon released *Untitled* at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1981. The series featured dyed *hanji* (Korean paper) hanging from nails and piles of gloves with white fingertips. She had created masterpieces from the different textures of *hanji* and cotton, which were blended in perfect harmony using various techniques. The series was a pleasant surprise and source of inspiration for Korea's art scene. In 1980, at the young age of 26, sh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Until her retirement last year, she has held 54 solo exhibitions both at home and abroad. To call Chung an active artist would be an understatement, considering how she has enhanced Korea's global status in fiber art. Known as the artist of gloves, she has worked with gloves as her main motif for more than 40 years, sometimes even going without sleep.

The artist's early works were all titled *Untitled*, which was her way of suggesting their infinite possibilities. The universe of gloves is not an empty space, but a space that can contain anything and everything. Looking at her works, some are reminded of the day they last held hands and parted with their loved ones, while others are filled with the joy of unexpected reunion evoked by friendly hand gestures. Her works are open to interpretation, and viewers are invited to create their own unique experiences. Chung continues to make art today. Even though she has more time for herself now that she is retired, she remains as passionate and dedicated as she was. As she paints and piles up gloves one after another, she is creating a universe of her own. Just like before, there is no doubt it will be a space of possibilities, and a space open to interpretation. 

줄기세포로 맞이하는 두 번째 청춘

탁월한 항노화 효과를 발휘하는 줄기세포 치료로 젊음을 되찾아 보자.

"젊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는 대다수 중·노년층이 하는 말이다. 젊은 시절 튼튼한 체력과 활기가 나이 들수록 소실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화를 늦추려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서서히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럴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줄기세포를 통해 젊음을 재충전하는 것이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분화를 촉진해 체력과 활력을 동시에 증진한다. 노화 시계를 늦춰 주는 작용이다.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 원장은 "줄기세포는 체력 증진은 물론 외모 개선, 성 기능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 특화 의료기관으로 청셀·성셀·미셀·모셀·활셀 프로그램을 구축해 개인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체력, 면역력 높여 주는 '청셀'

요즘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의 체력은 나이를 속이지 못한다. 외모 나이에 걸맞은 체력을 기르고 싶다면 자신의 줄기세포를 고농축해 링거로 주입하는 '청셀'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자. 고농축 줄기세포는 항노화·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 청셀 프로그램은 반나절 만에 치료가 마무리돼 부담이 적다.

청춘의 열정 되찾아 주는 '성셀'

중·노년층은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위축된다. 이 경우 '성셀'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성셀은 갱년기 이후 성 기능이 감소한 남성과

나는 현존하는 의학의 최전선에서
사람이 근본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을 추구할 것이다.

I will strive for perfection so that
All people can enjoy fundamental health
at the medical frontier.

대표원장 조찬호



여성을 위한 치료다. 각각 음경 해면체와 질 내에 줄기세포를 주입,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성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남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발기력과 음경 강직도가 저하되는데,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혈관이 생성되고 혈류가 증가해 원활한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흔하게 겪는다. 조 원장은 "질 내에 줄기세포 주입 시 혈류가 개선돼 성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시간의 흔적을 지우는 '미셀' '모셀'

줄기세포는 미용 목적 치료에도 활용된다. '미셀' 프로그램은 노화로 얇아지고 잔주름이 잡힌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개선한다. 고농축 줄기세포를 피부에 일정 간격으로 주사하면 피부 진피층에서 사이토카인 성분이 활성화되어 피부 미용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탈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줄기세포가 모발의 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모낭이 생기도록 돕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부쩍 늘어났던 것 같다면 '모셀'을 추천한다.

튼튼한 관절을 위한 '활셀'

'활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돕는 줄기세포 통증 관리 치료다. 통증 부위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해 약해진 연부 조직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와 자가 조직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핵심이다. 재생력을 높여 통증을 줄이고, 프롤로 치료로 문제 부위를 강화한다. 주사를 쓰기에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발목 같은 관절 부위에 적용 가능하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ITAEWON CLASS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

여느라기

호수
SWEET HOME

스위트홈

악귀 타파 히어로
경이로운 소문



웹툰과 웹소설, 어디까지 가나요?

최근 한국 콘텐츠의 뿌리는 웹툰과 웹소설이라 해도 되겠다. 몇 년째 전성기라 했는데 두 장르의 미래에는 더 화려한 전성기가 기다린다.

글. 표다정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는 원작과 비교하며 본다. 지난 1월 종영한 웹드라마 <여느라기>. 먹고 남은 과일과 식은 밥은 “너랑 나랑 마저 먹자”는 시어머니, 엄마 생신상 차리라며 은근 압박 주는 시누이, 거기에 눈치 없는 남편. 고구마 몇 개 먹은 듯 답답한 내용의 웹툰을 드라마로 고스란히 풀어내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이디를 찾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제를 이보다 실감 나게 파고든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웹에만 머물지 않는 웹툰과 웹소설

웹툰과 웹소설이 모바일을 벗어나 텔레비전과 영화관 스크린으로 옮겨 온 지 오래다. 영상이 웹 콘텐츠를 즐기치게 찾는 이유는 검증받은 콘텐츠에 있다. 어려운 집안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과 재벌 2세의 러브 스토리, 출생 비밀을 모르는 주인공의 성장기,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의 에피소드 등 뻔한 스토리가 아니다. 다양한 세계관은 기본, 톡톡 튀는 소재와 고정관념을 깨는 가치관 등을 담는다. 게다가 이미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니 시청률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점수를 따고 들어간 것이다.

원작이 탄탄해도 재창작은 어렵다. 원작과 같아도, 달라도 고민이다. 호홉이 긴 만화나 소설을 두 시간 길이의 영화 또는 수십 회 분량의 드라마로 풀기 위해 스토리를 건너 내거나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막을 내린 드라마 <쌍갑포차>는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인 ‘그승’을 배경으로 삼았다. 쌍갑포차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월주가 쌍갑포차를 찾아온 손님의 한을 풀어 주는 이야기. 옴니버스 형식의 원작에서 특정 에피소드 속 인물

로 등장하는 한강배를 드라마에선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인물인 쌍갑포차 알바생으로 변신시켰다. 이런 각색 과정에서 줄거리는 물론 주인공의 행동과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에게 원작의 감동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고, 드라마를 통해 작품을 처음 보는 시청자의 눈과 귀도 사로잡아야 한다. 드라마 <스위트홈> 이 대표적 예다. 각자 감춰 온 간절한 욕망이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소재부터 신선하다. 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과 뜨거운 인간애를 느끼고 이별하는 과정이 괴물과의 사투 못지않은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한다. 괴물에도 숨을 불어넣었다. 미국 할리우드 특수 효과 팀과 무용가를 섭외해 웹툰 속 괴물을 섬세하게, 제대로 구현했다. 이에 독자 출신 시청자는 원작을 뛰어넘는 리얼리티에 감탄했고, 시청자의 관심은 원작으로 이어졌다. 시청자가 독자가 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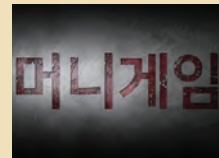
#지금도 앞으로도 웹툰, 웹소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는 대부분 웹툰과 웹소설이 원작이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초능력자들이 악귀를 물리친다는 스토리의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도 웹툰이 원작이다. 지난해 말 1회 시청률 2.7퍼센트를 시작으로 12회에는 10.6퍼센트를 달성해 OC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느 때보다 웹툰, 웹소설의 드라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2020년. 그 흐름은 2021년에도 이어진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그 작품, ‘만찢’ 비주얼로 감탄을 자아낼지,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이룰지. 장르와 소재를 불문한 2021년 화제의 드라마가 궁금하다면 다음 장을 펼쳐 보시라.



<머니게임> 글·그림 배진수

라이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 물은 다음과 같다.
 1. 100일간 스튜디오에서 생활한다. 2. 각자의 프라이빗 룸에서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동할 수 있다.
 3. 룸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4. 누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5. 참가자가 구매한 물건의 값은 상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은 다음 날 아침 잔액 판에 표시된다. 6. 시작 상금은 448억 원. 스튜디오에서 구매하는 물건은 시중 판매 금액의 1000배다. 7. 프로그램이 끝나면 남은 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서로 아껴 쓰면 충분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다. 화장실도 없는 방, 7000원 하는 햄버거가 여가선 700만 원이다. 더군다나 누군가 보고 있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도 힘들다. 문제는 방문 밖. 이름도 모르는 7명의 참가자와 100일을 버틸 수 있을까? 상금은 가져갈 수 있을까? 드라마를 보는 순간 우리는 라이브 쇼 시청자가 된다. **2021년중방송예정**



<나빌레라> 글·그림 지민

어릴 적 본 발레를 가슴에 품고 산 덕출은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미련이 남아 발레를 꼭 해 봐야겠다 결심한다. 그런 덕출에게 가족은 응원 한마디는커녕 동네 망신시키지 말라고 한다. 반대를 무릅쓰고 문경국 발레단에 입단해 스물세 살의 체력을 만난다. 우여곡절 많은 인생사는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더라. 공통분모 없던 두 사람이 함께 발레를 하며 우정을 쌓는다. 2019년 창작 가무극으로 무대에 올랐고, 2021년에는 드라마로 만난다. 더 멀리 뛰어, 더 높이 날아올라. 할 수 있는 만큼, 나빌레라. 지난해 11월 배우 송강이 인스타그램에 발레하는 사진을 업로드했다. #나빌레라 태그와 함께. **2021년 상반기 방송 예정. tvN**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글 엘리즈

2021년 첫 웹소설 원작 드라마다. 화장품 회사 '골라르'의 3년 차 마케팅어 윤송아. 신입사원 시절, 그에게 먼저 다가온 이재신 팀장과 2년 10개월째 사내 비밀 연애 중이다. '쏘스윗'한 내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에 자기밖에 모르는 알팍한 인간. 송아를 짝사랑하던 직장 후배 현승이 자신을 이용해 복수하라고 한다. "네가 원데?"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지키고 싶으니까." 윤송아 역은 원진아가, 현승 역은 가수 로윤이 맡아 1월 18일 방송을 시작했다. 두 배우의 케미를 표현하자면 마치 '레' 같아. 이미 '도'를 넘었으니까. 아, 레도 넘어서 미쳤다.

1월 18일 첫방송, JTBC



<지금 우리 학교는> 글·그림 주동근

2교시 수업 중 누군가 다급하게 교실 문을 열었다. 친구는 울먹이다 이내 과학 선생님이 자신을 이틀 동안 감금했다고 말하고는 바닥에 쓰러진다. 선생님이 왜? 의자에 묶인 채로? 왜? 상황을 헤아릴 틈 없이 눈동자가 빨개지고 피를 토하더니 사람에게 달려든다. 친구가 친구를, 친구가 선생님을, 선생님이 학생을. 두 시간도 안 돼 지옥이 된 학교. 더 이상 친구와 선생님이 아니라 감염된 자와 감염되지 않은 자, 쫓는 자와 쫓기는 자로 나뉘기 시작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들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을."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살기 위해 학교를 벗어나야 한다. 2021년에도 정주행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다. **2021년상반기 방송 예정, 넷플릭스**



<간 떨어지는 동거> 글·그림 나

예종 12년. 조선 8대 왕 아리고 고려 제16대 왕 시절에 태어난 약 900살 먹은 남성 구미호와 24년 산 여성 인간의 동거 생활을 다룬다. 파란 구슬 하나로 시작된 세대 차이, 아니 세기 차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지금도 무르익는 중. 일명 '상견례 프리패스'의 구미호를 드라마로 볼 수 있다니! 작가님의 차진 드립과 극적으로 변하는 주인공의 표정을 잘 담아 주기 바랍니다. 나 작가님 사랑합니다. 매주 목요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독자입니다.

2021년 상반기 방송 예정, tvN



<유미의 세포들> 글·그림 이동건

2015년 4월 연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512화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 <유미의 세포들>은 유미가 겪는 모든 일을 이성, 응큼, 자신감 등 약 70개 세포의 관점으로 묘사한 웹툰이다. 유미가 눈물을 쏟는 날이면 세포들은 눈물 파도에 휩쓸린다. 출출하다 싶으면 어디선가 출출 세포가 나타나 먹고 싶은 메뉴를 외친다. 사랑의 힘은 세포 중에서도 빛이 난다. 뇌세포 중 가장 우수한 프라임 세포로 출출 세포를 물리치는 유일한 존재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유미는 타인보다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 유미 성장형 인간, 멋져!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지 웹툰으로 깨닫는다. 팬으로서 드라마 방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기쁨도 잠시, 귀여운 세포들이 어떻게 구원될지 궁금하다.

2021년 상반기 방송 예정



#올바른 웹소설의 웹툰화



마른 가지에 바람처럼

글 달새울 그림 화음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은 리에타와 피비린 내 나는 소문을 몰고 다니는 악시아스 대공 성장형 사랑 이야기, 탄탄한 '서사 맛집' 웹소설 <마른 가지에 바람처럼>이 웹툰화되었다. 원작 삽화도 찰떡이었는데 웹툰화한 그림체는 완벽이다. 리에타가 비스킷을 먹으면서 아이 생각에 오열하는 장면이 잘려서 조금 아쉽지만 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정말 최고다. 악시아스 대공님, 통신회사에 고소당했다면서요? 외모가 GIGA 막혀서.



전지적 독자 시점

글 싱송 그림 슬리피-C 각색 UMI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은 총 연재 3149회, 평균 조회 수 1.9회다. 이 세상에서 <멸살법>을 읽는 한 사람, 주인공 김독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읽은 소설이 오늘 완결된다. 소설을 다 읽은 순간, 소설 속 허구의 캐릭터가 나타났다. "저 캐릭터는? 이건 <멸살법> 스토리랑 같잖아?" 이 세계의 결말을 아는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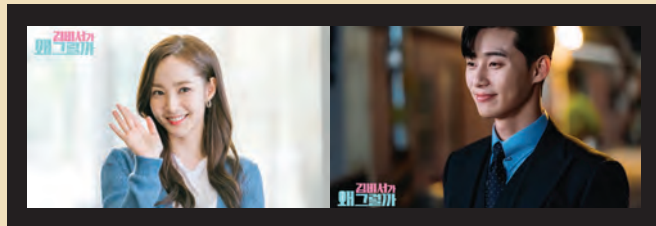


취사병, 전설이 되다

글 제이로빈 그림 이진수

소초 취사 보조 보직을 맡은 성재는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환청에 이어 게임 퀘스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식량 참고를 정리하니 식자재 경험치 100이 쌓이고, 요리로 인정받기 퀘스트를 완수하자 취사병 보조에서 취사병으로 진급되었다. 요리가 나의 길이라고 생각해 본격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웹툰은 웹소설과 다른 결말을 마주할 거라는 작가의 코멘트에 가슴이 두근두근.

#웹소설&웹툰 짝고 나온 그 캐릭터



<김 비서가 왜 그럴까>의 김미소

자기에 총명한 나르시시스트 유일그룹 부회장 이영준과 비서계의 인간문화재 김미소가 사랑에 빠진다. 진부한 직장 상사와의 로맨스지만, 김미소의 철벽같은 성격이 코믹 요소다.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의 여주인공이 여기 있는데요. 1회를 시청하는 순간, "이 작품이야말로 '만짚' 비주얼의 결정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 <스위트홈>의 일명 '연근이'도 빼놓을 수 없다. '만짚남'으로 인정합니다.



#리메이크 바람이 불고 불어



이런 리메이크 또 없습니다. 과거의 인기 있는 작품이 웹툰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2004년 방영한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동명 만화와 1995년 출간한 만화 <취점냉월>이 웹툰으로 리메이크될 예정이다. 다시 돌아온 명작, 2021년에도 통할까? 그 외에도 유쾌한 작가의 <유월의 복숭아>, 사월생 작가의 <악녀를 죽여 줘> 등 웹툰화될 인기작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에디터가 선택한 웹툰&웹소설 #이 작품 영상화해 주세요

영원한 너의 거짓말 전후치 지음 (주)동아 퍼냄(종이책, e-북)

주인공 로젠의 죄수 번호가 '24601'일 때부터 대작 타는 냄새가 났다. 소설 <레미제라블> 속 장 발장의 번호 아닌가. 로젠은 열일곱에 남편을 죽인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탈옥해 붙잡힌 뒤 절대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감옥으로 이송 중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이가 전쟁 영웅 이안. 탈출을 노리는 로젠은 딱딱한 원칙주의자 이안을 속이고 이용해야 한다. 바다 한가운데 수송선의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로젠의 계략과 이안의 방어, 감정선의 변화와 로맨스에 텐션이 폭발해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 무죄를 주장하는 로젠, 전시에 공군 사령관으로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했으나 폭격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전쟁, 여성 인권 같은 묵직한 주제까지 녹여 냈다. 영상 제작자님들, 이 작품 어서 잡으세요. 할리우드에 뺏깁니다.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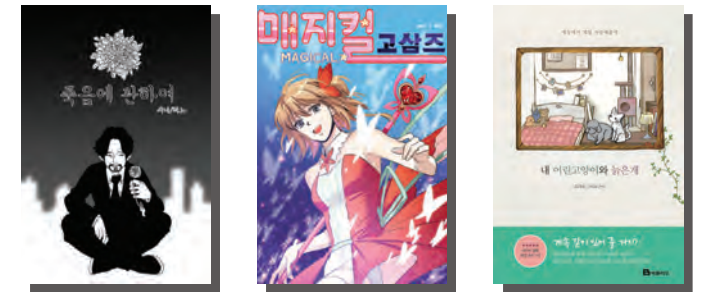
나는 아직 살아있다 미스터키카 지음 글로번 퍼냄(e-북)

"사람을 사료로 만들어야 만족하는 악의 근원 같았다." 대부분이 그렇듯, 이 소설 또한 좀비를 몰고 뜬 존재로 묘사한다. 쫓고 쫓기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좀비가 창궐해 세상이 파멸한 이후를 그리는 방식은 남다른 면이 있다. 좀비가 두려워 고시원의 작은 방에 자신을 가둔 주인공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 무기력하다. 어느 날 창밖에서 여자아이가 좀비를 피해 자동차 밑으로 숨는 장면을 목격한다. 아이의 부모는 좀비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살아온 삶을 떠올리며 외면하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 잠근 방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하려 나간다. 어느덧 소중한 존재가 된 아이를 지키려는 이야기가 때론 스릴 넘치게, 때론 눈물 나도록 슬프게 펼쳐진다. 좀비와 황폐한 세상은 조연, 시련을 넘어서는 의지와 인간애가 주연이다. 김규보

웹소설



웹툰



죽음에 관하여 글 시니 그림 혀노

죽은 후 신을 마주하면 안도할까, 한숨을 살까. 삶과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죽음을 통찰하는 웹툰이다. 신이 저승에 온 이의 사연을 듣는 에피소드는 회마다 가슴 찡한 메시지를 전해 "작가님 혹시 천재이신가요?"라는 물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죽은 후 저승에서 부인이 오길 12년간 기다렸다가 환생의 문으로 함께 떠나는 따뜻한 이야기, 자살한 후에도 부모에게 쏠릴 눈총을 걱정하며 우는 여인에게 "네 인생인데 남의 시선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이야기 등 모두 주옥같다. 결국,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죽음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가 곧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언처럼 느껴진다. 아, 웹툰 볼 때는 볼륨을 높이길 추천한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몰입을 돕는다. 이내경

매지컬 고삼즈 글 seri 그림 비란

마법 소녀 이야기는 언제 봐도 흥미롭다. <천사소녀 네티> <달의 요정 세일러 문> <웨딩피치> 같은 애니메이션은 어린 시절 최고의 친구였다. 웹툰 <매지컬 고삼즈>에선 고등학교 3학년인 한여름이 얼렁뚱땅 마법 소녀가 된다. 마력이 있는 머리핀을 이용해 사르륵 변신한 뒤 늦은 밤 학교에 나타나는 괴이한 존재를 무찌른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마법 소녀와 달리, CCTV 유출로 정체 드러나자 봉사 활동 시간을 노리는 새로운 캐릭터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된 정세랑의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엔 장난감 총과 칼을 이용해 학교를 지키는 안은영 선생님이 나온다. 한여름과 안은영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다. 그러니 제발 <매지컬 고삼즈>로 드려라 좀 만들어 주세요! 진주영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글·그림 초

제목처럼 작가는 한 살짜리 어린 고양이와 열다섯살 된 늙은 개를 키운다.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주인이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기쁨, 고마움 등의 감정을 일러스트와 짧은 글로 표현했다. 현관 밖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만으로도 아빠가 왔음을 아는 반려견, 반려동물을 위해 침대 한쪽을 내어 주는 주인의 습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는 일상의 단편을 잘 녹였다. 그 속에서 길고양이, 유기견, 로드킬 등 사회적 이슈도 놓치지 않은 작품이다. 울컥하는 스토리만큼 코끝 찡한 댓글도 많은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너 때문에 생긴 버릇이 얼마나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지". 옴니버스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가족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어떤가요. 저희 집에는 개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사람 둘이 삽니다. 표다정

자연과 예술의 만남, 괌

서태평양의 아름다운 휴양지 괌 곳곳을 더욱 빛내는 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글. 함지원(관광부관광청) 진행. 이내경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햇살,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국적인 풍경과 다채로운 볼거리가 끝없이 펼쳐지는 마이크로네시아의 보석과도 같은 섬은 자연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황홀한 풍광을 이룬다.



사랑의 절벽 동상
by 에두아르도 카스틸로(Eduardo Castrillo)

하나가 된 듯 힘껏 껴안은 연인 동상. 그 뒤에 얽힌 시인이 궁금해진다. 괌의 랜드마크이자 연인이 꼭 찾는 데이트 코스인 사랑의 절벽에 우뚝 선 동상은 애잔한 감성을 자아낸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한 차모로족 여인이 스페인 장교와의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연인과 함께 도망치다 절벽에 이르자 머리를 한데 묶고 120여 미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전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슬픈 전설이 예술로 승화했다.



이나라한 벽화 마을&자연 즐장
by 김건주 외

괌 남부에 자리한 이나라한 마을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해 낡은 건물 외관을 보전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다. 로컬 아티스트들이 이 마을에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알록달록하고 빈티지한 벽화를 그려 시선을 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닌 자연이 형성한 풀장도 이곳의 손꼽히는 볼거리. 김건주, 나나 외 여러 한국 작가가 풀장의 구조물에 그린 그림에도 괌 풍경이 스며들었다.



괌 박물관
by 앤드루 라구아나(Andrew Laguana)

거대한 책을 펼쳐 놓은 듯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괌 박물관 건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 자리에서 살핀다는 배움의 의미를 내포한다. 책장에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우리는 예전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차모로족 족장 후라오의 연설이 새겨져 있다. 스페인에 저항하던 차모로족에게 용기를 준 메시지가 이제는 관광객의 마음을 울린다. 이곳은 차모로족 유물과 괌 전통 작품, 문서, 사진 등 25만여 점을 보유해 괌을 상세히 알려 주는 장이다.



Film x Train



같이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같은

기차 하면 떠오르는 한국 영화 <부산행>과 <설국열차>의 진정한 주인공은 영화의 공간, 기차다.

글. 전찬일(영화 평론가) 진행. 표다정



<부산행>, 연상호 연출, 2016



<설국열차>, 봉준호 연출, 2013

전대미문의 좀비들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가운데, 서울역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일군의 군상이 벌이는 치열한 사투를 극화한 재난 성 휴먼 드라마 <부산행>. 2031년 빙하기의 지구, 다양한 인종·계층의 인류 최후 생존자들이 17년째 달리고 있는 순환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SF성 휴먼 드라마 <설국열차>. 약 100억 원과 400억 원을 들인 한국형 블록버스터다. 전자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후자는 프랑스 만화 <르 트라스페르세네주(Le Transperceneige)>를 영화화했다.

두 영화는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일궈냈다. <부산행>은 1157만에 근접하는 대박을 터뜨리며 열네 번째 국산 천만 영화가 되었다. 프랑스 칸영화제 비경쟁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영화를 초대 한 티에리 프레모 예술 감독은 “역대 최고 심야 상영”이라며 극찬했다. <설국열차>의 성취도 <부산행> 못잖다. 935만여 명을 동원하고 부일영화상·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등에서 최우수작품상 등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기차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 한국 영화다. 기차로 대변되는 영화의 공간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두 영화의 극적 힘은 무엇보다 열차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공간 배경이 비행기나 자동차, 배 같은 다른 운송 수단이 었더라도 이처럼 기록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대부분이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설국열차>는 두말할 나위 없다. <부산행>에서 좀비 시퀀스들이 혹했다면, ‘한국형 좀비’라는 의외성 외에도 그 사건들이 친숙한 KTX라는 미장센과 효과적으로 융합되었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객차 안이나 객차 간 연결 통로에서든 열차 밖 선로에서든, 기대 이상의 긴장감·긴박감 넘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영화를 위해 실제 모형 열차 5칸을 제작했고, 40개 조명으로 시속 300킬로미터의 속도감을 구현했다.

공간의 의미에서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부산행>의 열차는 일

시적 이동 공간인 데 반해 <설국열차>는 항상적 주거공간이다. 하지만 일련의 계급·계층성과 그로 인한 갈등·투쟁성에서 둘은 공통적이다. <부산행>의 공간은 다수의 일반실과 소수의 특실로 양분된다. 고속버스 회사 상무는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특실 탑승객이다. 세상의 기득권자를 대표하는 악당(Antagonist) 캐릭터다. 반면 기차에 몰래 탔을 게 틀림없을 노숙인은 결정적 순간에 두 특실 탑승객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역시 기득권자인 펀드매니저의 딸과, 마동석이 분한 가장 영웅적인 주인공(Protagonist)의 처가 그들이다. 부산행 최후 생존자가 노숙인이 구한 그 두 여성, 배 속의 아이까지 포함하면 세 여성이라는 결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설국열차가 파괴된 후 살아남은 두 인간이 요나와 어린 흑인 남자아이라는 결말이 그렇듯...

<설국열차>의 계급성은 <부산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복잡하다. 맨 앞칸에 기차의 설계자이자 주인이 거주한다. 꼬리칸에는 커티스를 비롯해 수많은 최하위층이 마치 가축처럼 떼를 지어 생존한다. 그 사이에 예측불허의 기술자 남궁민수와 딸 요나 등 여러 성향·계층의 인간이 존재한다. 차별에는 으레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인바 열차 안에는 혁명의 기운이 가득 차고, 커티스를 주축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설국열차>는 결국 사회적 체계·현상으로서 열차라는 정치적 알레고리를 통해 혁명의 가능성을 모색·역설하는 도발적·전복적 텍스트다.

이렇듯 <부산행>과 <설국열차>의 기차는 이 연재 첫 호에 언급한 <제너럴>(1926)보다 그 외연과 내포가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하다. 주인공의 으뜸 사람이자 분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군상의 축약도요 소유주다. 따라서 이 두 대작을 보고 듣고 사유하는 것은 오락·예술로서 영화 한 편을 즐기는 것 이상을 함의한다. 타자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는 수준을 넘어 동참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할까. 영화 속

인물들은 관객인 우리 자신을 반영·투영하고 있기 때문. 비중이 크건 작건 우리는 등장인물 그 누군가를 닮았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지 않기가 힘들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





<나의 캠핑 생활> 시리즈(총 4권)

밖이 그리운 시절이다. 캠핑은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밖으로 나가는 대안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여행법이다. 4명의 저자가 캠핑용품, 놀이, 요리, 아지트를 주제로 어떤 물건을 챙겨 가고, 무슨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뭘 해 먹고, 어딜 가면 좋을지 안내한다. '불멍' 말고도 디제잉, 트리클라이밍, 영화제 감상, 우중 캠프 등 캠핑 놀이가 이렇게 많구나 감탄한다. 캠핑을 사랑하는 저자들의 안내가 따스하다.
강성구·문나래·장진영·서승범 지음 펠리시 그림 중앙북스 펴냄



<라면의 재발견>

1958년 세상에 처음 라면이 등장하고 불과 5년이 지난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이 탄생했다. 한국전쟁 이후 기근하고 바쁜 사람들에게 라면은 배고픈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영혼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 성장기와 외환 위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라면은 늘 곁에 있었고, 요즘은 라면에 부재료를 넣어서 변형하거나 라면끼리 '콜라보'를 해 신메뉴를 개발하는 일이 트렌드가 되었다. 사회가 변하니 라면도 변한다. 라면의 흥미로운 역사로 한국을 들여다본다. 김정현·한중수 지음 따비 펴냄



<조용헌의 영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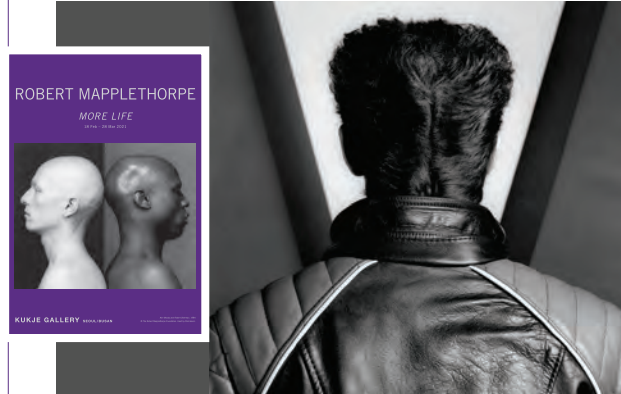
기계인 휴대전화도 충전해야 제 기능을 하듯, 기계가 아닌 사람은 더 더욱 충전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존재다. 40여 년간 한국 곳곳을 답사해 풍수지리를 살피고 땅에 얽힌 사연을 탐구해 온 사주명리학자이자 강호동양학자인 저자가 특별한 영지 스물세 곳을 꼽았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퍼지는 곳, 머리와 마음이 시원해지는 곳이다. 오대산 월정사, 지리산 영랑대, 철원 고성정 같은 영지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해설해 저자와 순례를 떠나는 기분이다. 조용헌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

미술사에서 여성은 흔히 뮤즈로 대상화되었다. 남성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 그림 그리는 여성과 그의 작품을 비하한 예는 셀 수도 없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예술 속 여성이, 예술하는 여성이 이만큼이나 마흔 데에는 여성의 부단한 도전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여성을 희생양 삼은 남성 예술가의 행태부터 시대에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가들까지, 남성 캔버스에 가려졌던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유리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RE LIFE>

당대엔 금기이던 동성애 등을 사진 작품에 담은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국내 첫 회고전이다. 그는 생전에 강렬한 흑백 초상 사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허물며 표현의 자유를 함축한 작업은 그가 1989년에 타계한 이후에도 영감을 선사해 왔다. 국제갤러리는 로버트메이플소프재단과 'Self Portrait'를 포함한 대표작을 엄선해 서울점과 부산점에서 동시에 전시를 진행한다.
기간 2월 18일~3월 31일 문의 02-735-8449(서울 국제갤러리)

'Self Portrait', 1981, Silver gelatin, 50.8x40.64cm, ©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홍승혜x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토탈미술상과 이종섭미술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 미술의 중추 역할을 해 온 홍승혜 작가와 주목받는 신예 문승지 디자이너가 만났다. 경기도 화성 로얄엑스파크에서 열리는 전시는 두 작가가 사각형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을 담는다. 컴퓨터 픽셀을 결합하고 축적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홍승혜, 합판을 버리는 부분 없이 의자로 만드는 '브라더스' 시리즈의 문승지가 각각 '공중 무도회' '애니메이트' 연작을 선보인다.
기간 2월 17일~4월 9일 문의 031-290-4692(화성시문화재단)

'Animate_Bench(3EA)', Steel & Lighting, 3680x772x710(H)mm, 2020 ©홍기원



<푸른 종소리>

안젤리카 메시티, 에스퍼 유스트, 장민승+정재일, 최대진 등 7명(6팀)이 참여해 시대의 슬픔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고 공유되는지 음악을 매개로 탐구한다. 작가들은 각각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무용수, 록 밴드, 영화음악 감독 등과 협업한 사운드 영상, 그래픽 스코어(악보) 등을 소개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각이 쉽게 무뎠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작품들은, 누군가의 아픔이 던지는 의미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기간 3월 21일까지 문의 051-220-7400(부산현대미술관)

안젤리카메시티 <렐레이그> 2017,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9분 11초, 시드니 아트스페이스 키미션, Courtesy the artist and Anna Schwartz Gallery. 사진: 부산현대미술관 제공



<한글·예술>

일상에서 익숙한 한글은 예술 영역에서 어떻게 변주될까.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시각디자이너인 한재준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 작품을 내놓았다. 사람처럼 생긴 한글이 가슴에 책을 품은 작품, 서로 어깨동무한 듯 나란한 한글 작품 등 50여 점이다. 판에 박은 한글 전시에서 탈피해 한글 디자인의 미래지향적 모습을 제시하는 한편, 한글 창제의 뜻을 새기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기간 2월 28일까지 문의 043-201-2651(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모크>

시인 이상의 연작 시 '오감도 제15호'를 모티프로 제작한 창작 뮤지컬이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를 앞선 불가해한 시를 발표해 논란의 대상이 된 천재 시인의 괴로움을 무대에 옮겼다. 내내 죽고 싶다고 외치지만 삶을 고스란히 살아 내는 그의 고통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사랑한 대가였다. 시즌을 거듭해 호흡을 맞춰 온 추정화 연출가와 허수현 작곡가가 이번에도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기간 2월 21일까지 장소 서울 에스24스테이지 문의 1577-3363



<2021 서울시향 임동혁의 스크라빈 피아노 협주곡>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윌슨 응이 무대를 이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현대음악계에서 손꼽히던 작곡가 블라허의 '파가니니 주제에 대한 교향악적 변주곡 Op. 26'을 필두로, 힌데미트의 '화가 마티스 교향곡'을 공연한다. 이와 함께 2019년 서울시향 러시아 순회공연 협연자로 동행해 현지에서 호평받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스크라빈이 유일하게 남긴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기간 2월 18일~19일 장소 서울 롯데콘서트홀 문의 1588-1210



<셜록홈즈>

어느 날 현대의 명탐정 셜록 홈즈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달라는 암호 의뢰서가 도착한다. 그 속에 적힌 비밀은 "벌스톤, 살인 사건, 조작되었다" 단 세 가지. 이제 그는 주어진 60시간 30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셜록 홈즈가 머릿속에서 사건을 추리하는 과정을 연극 무대 위에 완벽하게 구현해 마치 편집 영상을 보는 듯하다. 탄탄한 스토리에 치밀한 연출이 더해져 90분의 공연 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

기간 2월 14일까지 장소 부산 BNK부산은행조은극장 문의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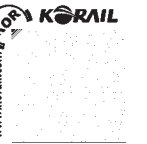
<향화>

경기아트센터와 서울예술단이 공동 제작한 창작 가무극 <향화>는 수원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수원권면 일패 기생 김향화 열사의 삶을 형상화한다. 일제강점기에 살던 소녀 순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원권면을 찾고 기생 향화가 되어서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려고 독립을 외친 일대기를 그린다. 서울예술단을 대표하는 배우 송문선과 국악계 아이돌 소리꾼 김나니가 주인공 김향화를 맡았다.

기간 2월 19일~21일 장소 수원 경기아트센터 문의 031-230-3440

MOVI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림빌더>

아빠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 미나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같은 방을 쓰는 제니가 햄스터 비고를 좋아하지 않는 것. 꿈을 만드는 사람들, 드림빌더를 우연히 알게 된 미나는 제니의 꿈을 연출하기로 결심한다. 미나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제니의 꿈엔 계속해서 비고가 등장하고, 제니는 점점 비고에게 마음을 연다. 드림빌더라는 독특한 소재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애니메이션이다. 2월 10일 개봉.

감독 김 하겐 켄슨 목소리 출연 에밀리에 크로이어 코펠, 마틴 부치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탕>

전도유망한 파티시에 사라는 베이커리 오픈을 앞두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사라의 어머니, 딸, 친구가 그를 대신해 영업을 시작한다. 미쉐린 셰프도 섭외됐던만 생각만큼 손님이 오질 않는다.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향수를 자극하는 디저트로 승부수를 던진다. 손님이 원하는 추억의 레시피가 무엇이든 만들어 준다. 재료와 모양, 맛과 향이 각기 다른 수십 가지 디저트가 눈을 즐겁게 한다. 2월 4일 개봉.

감독 엘리자 슈뢰더 출연 셀리아아임리, 새년 타벳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민규는 한숨 나오는 통장 잔고에 카메라를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곳에서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고 통역 일을 하는 한나, 프랑스로 입양됐다가 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온 주희와 만난다. 얼핏 연관성 없어 보이는 세 청춘은 다큐멘터를 만드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동시에 하고 노동자, 실향민과 이산가족, 해외 입양아 같은 사회문제를 마주하며 조금씩 성장해 간다. 1월 28일 개봉. 감독 이인의 출연 은혜성, 오하늬



<몬스터 헌터>

콘솔 게임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영화로 옮겼다. UN 합동 보안작전부 아르테미스 대위는 행방불명된 팀원을 찾아나섰다가 몬스터의 세계로 빠진다. 거대한 몬스터의 습격을 피해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다른 생존자와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오려는 사투를 벌인다. 각각 영화 <레지던트 이블>과 <웅병> 시리즈의 주연 배우인 밀라 요보비치와 토니 자가 출연해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2월 10일 개봉.

감독 폴 앤더슨 출연 밀라 요보비치, 토니 자



자료 협조. 어스본코리아

* 다음 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봐주세요.



*정답

INFORMATION

<숨속에서 너도 찾았니? 머리가 좋아지는 숨은그림찾기>

“허리띠를 잃어버렸어. 찾아 줄래?” 귀여운 동물이 건네는 물음에 답하며 숨은 그림을 찾는다. 나무에 동지를 튼 새, 육지와 호수를 오가는 수달 등 동물마다 특징을 살린 일러스트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두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커스틴 롱슨 지음 가레르 루카스 그림 어스본코리아 펴냄

롯데호텔 서울
헬로 2021 패키지

롯데호텔 서울이 새해를 맞이한 설렘을 가득 담아 ‘헬로 2021 (Hello 2021) 패키지’를 준비했다. 아늑한 객실에 하룻밤 묵으면서 맛있는 음식과 게임을 즐기며 2021년을 기분 좋게 시작해 보자.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프리미어 룸 1박을 기본으로 룸서비스 바우처, 보드게임 2종 대여 서비스, 조식 3인 이용권, 차량 1대 발레파킹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패키지다. 룸서비스로는 안심 스테이크, 마르게리타 피자, 오믈렛 라이스, 훈제 연어와 치즈 플래터, 티라미수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된 인 룸 다이닝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

☎ 02-759-7311 www.lottehotel.com/seoul-hotel



휘닉스 평창
평창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강원도 평창의 청정 자연 속에 자리한 휘닉스 평창에서 겨울 낭만을 누린다. 스키 슬로프 한 면에 넓게 펼쳐진 ‘스노우빌리지’는 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재미를 모아 놓은 곳이다. 여기에서 눈썰매를 탄 후 귀여운 펭귄빵을 맛보는 등 소소하지만 즐거운 추억을 남긴다. 다양한 미식을 경험하고 싶은 이에게 휘닉스 평창 내 모든 직영 레스토랑과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올인클루시브 프리미엄’을 추천한다. 겨울 캠핑의 묘미를 느끼는 ‘덜리셔스 BBQ 패키지’도 인기다. 화로 앞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추위가 물러간다.

☎ 1577-0069 www.phoenixnr.co.kr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대구 메리어트 호텔 오픈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메리어트 호텔이 2017년 제주에 이어 지난 1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대구에 들어섰다. 클럽 룸과 스위트룸을 포함해 190개 객실을 갖춘 대구 메리어트 호텔은 5성급 호텔다운 안락함을 선사한다. 뷔페 레스토랑 ‘어반 키친’, 중식당 ‘이스트 게이트’에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준 높은 요리를 맛본다. 호캉스 손님을 위해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의 시설도 알차게 마련했다. KTX, 고속·시외 버스, 지하철을 연결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거리여서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하다.

☎ 053-327-7000 www.daegumarriotthotel.com



<KTX매거진> 1월호를 보고 나서



겨울새 우는 순례의 강 사진을 보자마자 홀린 듯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냉기를 뚫고 헤엄치는 새들이 꼭 지금 우리 상황 같아서요. 이가 시릴 정도로 추워 보이는 사진에서 왠지 후련함이 느껴집니다. 김혜린 서울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용감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 산소에 가는 길이에요. 용기를 내 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감사합니다. 한 성원 작가의 그림으로 기록한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윤정민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숨겨진 삶의 서사를 발굴하는 작가 조덕현 대구미술관에서 좋은 전시가 열리네요. <KTX매거진> 덕분에 멋진 사진과 글로 감상했습니다. 세심히 관찰하기는 작가에게 큰 무기인 듯합니다. 박건후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사회적 거리 두기로 기차 안에서 딸과 떨어져 앉았어요. 아젠 이것도 익숙해진 아이가 "엄마 괜찮아"라고 말하네요. 우리 딸, 대견해~ 눈 내린 풍경을 감상하며 남편에게로 이 순간이 힐링 아닐까요. 김효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으로



02 '테마 여행'을 읽고 신안 분재공원에 가 보고 싶었으나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자은도에서 애기동백을 만났어요. '산다화'라고 불리는 애기동백의 꽃말은 '겸손'과 '이상적인 사랑'이래요. 최홍길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03 세 손녀가 모두 장염에 걸려 힘들어하는 딸에게 갑니다. 날씨가 안 풀릴 것 같더니 오늘은 바람이 매섭지 않네요. 사진은 부산 흰어울문화마을입니다. 멋진 풍경을 마스크 없이 볼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오나현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 02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05 마감은 2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를 뜻하는 문구 브랜드 모나미의 '153 네오 만년필 EF'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볍고 깨끗한 필기가 가능한 EF 펜촉을 탑재한 153 네오 만년필 EF는 모나미를 상징하는 육각 모양 보디에 '제트 블랙'과 '파스텔 톤의 클래식 베이지' '엔틱 카키' '코럴 핑크' 같은 트렌디한 색을 입혔습니다. 만년필 컨버터 1개와 블랙 잉크 카트리지 2개로 구성된 선물을 2월 중 일괄 배송합니다.

* 네 가지 색상 중 랜덤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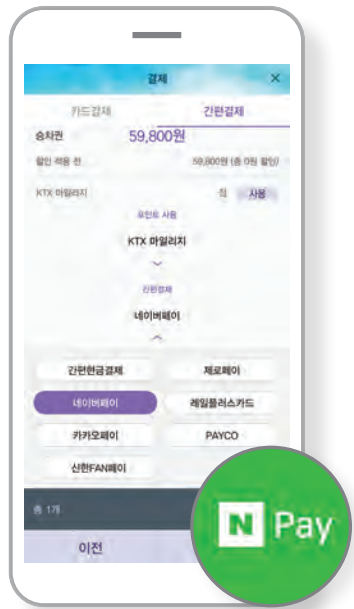


제11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바닷가아침 열차'

- 164 한국철도 소식
- 170 시간표
- 180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82 열차이용안내
- 18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한국철도 소식 KORAIL NEWS



열차 승차권 결제에 '네이버페이' 도입

한국철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열차 승차권 간편 결제 수단에 '네이버페이'를 추가했다. 2017년 간편 결제 수단으로 '신한 FAN페이'를 처음 선보인 이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등 온라인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 단계에서 '네이버페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여섯 자리만 입력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계좌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추가해 온라인 구매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76퍼센트 이상"이라며 "간편 결제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철도, 대전 지역 공기업 중 최초로 '나눔명문기업' 선정

한국철도 본사와 지역본부, 부속기관 등에 소속된 17개 한국철도 봉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돕는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전국 사회복지 기관 48개소와 저소득층·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370가구에 연탄, 전기난로 등 1억 원 상당의 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지난해 봄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방한 물품을 지원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해마다 기탁 활동을 펼친 한국철도는 대전 지역 공기업 중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인증하는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구글 지도와 가지(ga-G) 연동해 승차권 예약 서비스 실행

한국철도가 구글 지도와 교통 플랫폼 '가지(ga-G)'를 연동해 열차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에서 목적지를 검색하면 경로, 교통수단과 함께 해당 구간 열차 이용 정보도 제공하는데, 가지와 연동돼 타고 싶은 열차를 바로 검색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별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강점이다. 열차 승차권 예매는 물론 숙박 등 여행 관련 상품도 한 번에 해결하니 편리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기도 좋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가지는 한국철도와 스타트업 (주)엔터플이 협력해 만든 스마트 교통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해 고객이 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객이 선정한 2020 한국철도 베스트 서비스

의료 봉사자 무임 수송 및 해외 입국자 KTX 전용 칸 운영

2020년
한국철도 서비스 추진 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1번
안심 서비스 지원

- 의료 봉사자를 위한 열차 무임수송 지원 (8천명)
- 해외입국자가 불안고객이 대면하지 않도록 KTX 전용칸 수송(110천명)

2번
열차 편의시설 개선

- 비상 방송, 비상조명장치 설치로 이례사상 시에도 안전하게(KTX 117편성)
- KTX 창문에 열 차단 필름을 부착하여 보다 시원하게(84편성)
- KTX 장애인석 테이블 높이를 조정하여 무릎에 닿지 않도록 개선(4편성)
- 문 앞 좌석에 바퀴가 직접 오지 않도록 승풍방향을 조정하여 편안하게(18대소)
- 객실 칸막이를 없애고, 바닥과 공기기 교체로 보다 편안하고 시원하게 (KTX-산천 8호차)

비대면 서비스 강화

3번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100% 온라인 예매 최초 시행

- 명절승차권 예매를 최초 100%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언택트 서비스 강화
- *IT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예매 시행
- 명절기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창측 좌석 위주 발매하여 안전하게
- 코로나 19로 여행을 취소했다면 위약금 면제, 정기승차권은 기간연장

한국철도가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2020 최고의 서비스'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심 서비스 지원' 부문이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KTX 칸과 버스를 운영해 11만 명을 수송하고, 약 8000명의 의료 봉사자에게는 운임료를 지원한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로 꼽힌 부문은 '열차 편의 시설 개선'이다. KTX 열차에 비상 방송, 비상 조명 장치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안전하게 대비하도록 했으며, KTX 창문에 열 차단 필름을 부착하고 KTX 장애인석 테이블 높이를 조정하는 등 이용객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불편하지 않게 열차 환경을 세심히 살폈다. 비대면 서비스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철도는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 명절 연휴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방편으로 100퍼센트 온라인 예매를 시행했다. 또 승객과 승객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했다. 이 외에도 입석 발매 중지, 열차 내 음식 섭취 제한,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열차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올해도 역과 열차를 철저히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철도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ll that KORAIL Service'는 매일 한국철도의 CS 정책과 고객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한국철도는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레일톡

철도 + 지역문화택시 통합예약서비스

Grand Open

※ 서비스 제공역 : 곡성역, 제천역, 평창역, 영천역, 부산역

코레일톡 <철도 + 지역문화택시> 통합 예약하기

1. 승차열차 선택/예약
2. 제휴상품 선택
3. 관광택시 상품 선택
4. 투어일정 및 코스 선택 후 결제
5. 열차 + 관광택시 통합발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만남 '강릉 여행'



과거 강릉을 문화 도시로 만든 마중물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강릉대도호부 관아

현대적 건물 사이에서 강릉대도호부 관아가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사적 제388호로 지정된 이곳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걸쳐 중앙 관리가 머물던 장소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강릉공립 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강제 철거되었다가 현대에 복원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명칭도 '강릉 임영관지' 대신 '강릉대도호부 관아'라고 새롭게 붙여 역사 속 문화유산이 아닌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강릉의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TIP 관아 내에 강릉 역사 자료를 열람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현재 사랑과 추억의 강이 바다로 이어지는 장소



시공간이 허물어지고 사랑만 남은 거리, 월화거리

신라 시대 화랑인 무월랑과 지방 토호의 딸 연화의 애절한 사랑이 깃든 월화정 설화를 모티브로 지은 거리 이름이 낭만적이다. 강릉역에서 시작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폐철길을 따라 조성한 2.6킬로미터 산책로 곳곳을 예쁜 조형물,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글귀로 장식해 감수성을 자극한다. 풍물시장에는 감자전, 메밀전 등 향토색 짙은 다채로운 음식을 비롯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해 오감을 만족시킨다.

TIP 중앙시장 생활문화광장에는 입소문 난 먹거리가 가득하다.

날선 골목에서 마주한 추억, 명주동 골목길

강릉시청 이전으로 활력을 잃은 원도심 명주동이 다시 제 색깔을 찾았다. 2013년 낡은 담벼락과 공터에 꽃과 나무를 가꾸고,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문화 공간으로 꾸미면서부터다. 옛 명주초등학교 건물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킨 '명주예술마당', 옛 교회를 고쳐 만든 '작은 공연장 단', 지은 지 100년이 넘는 적산 가옥을 트렌디하게 리모델링한 카페 등이 어우러져 현재와 과거가 뒤섞인 묘한 공간감과 아날로그적 풍경을 연출한다.

TIP 4월부터 11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플라마켓이 열린다.

커피 향기 나는 바다, 강릉커피거리

안목해변을 따라 카페가 늘어서 있다. 안목해변과 커피의 인연은 1980년대 놓이기 시작한 커피 자판기에서 비롯했다. 그때만 해도 한적한 해변, 동전 몇 개를 넣고 커피 한잔 뽑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던 추억이 유행으로 번졌다. 이후 강릉에 커피 명인이 모여들었고, 카페가 줄지어 생겨났다. 이제 안목해변은, 강릉은 명실상부 커피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원두를 직접 볶는 로스터리 카페를 해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TIP 안목해변 슬발길을 거닐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겨도 좋다.

미래 소상공인과 여행자를 잇는 징검다리

소상공인과 여행자를 잇다, 획파인패스

전통 키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획파인패스' 하나면 명주동 내 음식점과 카페 정보가 손안에 들어온다. 원하는 맛집에 가는 경로와 교통편을 알아봐 주고, 빈자리와 대기 시간도 확인한다. 예약, 주문,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해 활용도가 높다. 현재 이용이 가능한 구간은 강릉역~월화거리~명주동 골목길, 경포해변~안목해변이다. 강릉역과 연계한 열차 관광 상품도 마련했다.

문의 033-520-8375(강릉역 여행센터)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신경주 新慶州	울산 蔚山	부산 釜山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Daejeon	Gimcheon (Gumi)	Dong daegu	Sin gyeongju	Ulsan	Busan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35	구포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3	15:00	15:22	15:35	15:52		16:35	16:53		17:21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부산 釜山	울산 蔚山	신경주 新慶州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Busan	Ulsan	Sin gyeongju	Dong daegu	Gimcheon (Gumi)	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월화수목 KTX-산천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1	08:08	08:32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10	09:29		10:12	10:45		11:11		11:23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KTX-산천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KTX-산천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KTX-산천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KTX-산천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KTX-산천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KTX-산천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KTX-산천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KTX-산천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KTX-산천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KTX-산천
843	11:01	11:22	11:28	11:51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KTX-산천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KTX-산천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KTX-산천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45		15:02			KTX-산천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KTX-산천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KTX-산천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KTX-산천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KTX-산천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KTX-산천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KTX-산천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KTX-산천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KTX-산천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KTX-산천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KTX-산천
863		19:55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37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30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49	15:04	15:27	15:39 공주 15:56		16:14	16:30	16:49		17:20	
423			15:36	15:51		16:21		16:49		17:18	17:28	17:53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월화수목 KTX-산천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3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05		13:23 계룡 13:38	논산 13:56 14:21	14:37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45 계룡 16:00	논산 16:18 16:43	16:59	17:26		17:45	18:00	18:14	18:22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3:0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54	금토일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n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풍기 豊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n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10	07:27		07:46	08:03	
781	08:10			08:57	09:17	09:34	09:47	09:57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7	10:24	10:37	10:47	11:04	
705	11:00	11:26	11:45	11:52	12:13			12:45	13:02	
707	14:00			14:47	15:07	15:24	15:37	15:47	16:04	
709	16:00		16:43	16:50	17:10	17:27		17:47	18:04	
711	19:00			19:48	20:08	20:24	20:37	20:47	21:04	
713	22:00	22:27		22:50	23:11			23:43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7	06:04	06:14 장성 06:29	06:47 김제 07:02	07:16 논산 07:41	계룡 07:59 08:15		08:40	09:06	09:22	09:27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2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33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6:00	16:27	16:37	16:56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월화수목 KTX-산천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금토일 KTX-산천
482	16:51	17:18	17:28 장성 17:43	18:01 김제 18:16	18:30 논산 18:55	계룡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	----------------	----------	----------	------------	----------	----------	----------	----------	------------	----------	----------	--------------	----------	----------	----------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영동 永同 Yeong dong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ITX-새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ITX-새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4	13:05			13:52	ITX-새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ITX-새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ITX-새
1023	12:53	13:02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ITX-새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ITX-새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ITX-새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57	ITX-새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영동 永同 Yeong dong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ITX-새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ITX-새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ITX-새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ITX-새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ITX-새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ITX-새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ITX-새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ITX-새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鷄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 eup	장성 長城 Jang 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ITX-새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대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합평 15:01	일로 15:14 15:23	ITX-새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ITX-새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대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ITX-새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대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합평 23:21	23:40	ITX-새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합평 咸平 Ham 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장성 長城 Jang seong	정읍 井邑 Jeong 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ITX-새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ITX-새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ITX-새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대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ITX-새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대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ITX-새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대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鷄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 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 cheon	여천 麗川 Yeo 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05	08:12	08:34	08:53	09:06	09:50		10:21	10:47	11:03	11:30	11:41	11:53	12:09	12:24	12:32	ITX-새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12:12	ITX-새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 cheon	순천 順天 Sun 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 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ITX-새
1084	15:55	16:03	16:18	16:34	16:46	16:56	17:24	17:42		18:08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 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밀양 密陽 Mir yang	진영 進永 Jin 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창원 昌原 Chang 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 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09:52	10:13	10:37	11:28	11:44		12:13	12:19 경산 12:28	12:53	13:11	13:21	13:30	13:36	13:48	14:06	ITX-새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 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 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진영 進永 Jin yeong	밀양 密陽 Mir yang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30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ITX-새
1034	15:47	16:09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ITX-새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 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pgyo	홍성 洪城 Hong seong	광천 廣川 Gwang cheon	대천 大川 Dae cheon	웅천 熊川 Ung cheon	서천 舒川 Seo cheon	장항 長項 Jang hang	군산 群山 Gun 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새마을호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새마을호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ITX-청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ITX-청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ITX-청
2007	08:51	09:01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ITX-청
2101	09:57			10:14							10:51		11:06	11:09	ITX-청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ITX-청
2015	12:00	12:10		12:18				12:39			12:57		13:12	13:15	ITX-청
2019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ITX-청	
2021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ITX-청
2025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ITX-청
2029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ITX-청	
203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ITX-청
203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ITX-청
203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ITX-청
203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ITX-청
2079	20:32			20:49				21:10	21:23	21:31	21:40	21:49	21:52	ITX-청	
2041	21:21			21:38				21:59		22:17	22:26	22:32	22:35	ITX-청	
2047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ITX-청
200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ITX-청
200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ITX-청
200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ITX-청
200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ITX-청
207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ITX-청
2101	09:49			10:06			10:43		10:58	11:01	ITX-청
201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ITX-청
2017	10:59	11:09	11:13	11:17		11:49	11:57		12:12	12:15	ITX-청
2073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ITX-청
2021	11:57	12:07	12:12	12:17		12:49	12:58		13:12	13:15	ITX-청
2075	12:30			12:47	13:09		13:27	13:36	13:44	13:47	토 ITX-청
2025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ITX-청
2077	13:30			13:47	14:08		14:27	14:37	14:46	14:49	토 ITX-청
2029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ITX-청
2079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ITX-청
2033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ITX-청
2035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ITX-청
2081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ITX-청
2039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ITX-청
2083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ITX-청
2043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ITX-청
2045	18:26			18:44		19:16	19:24		19:39	19:42	ITX-청
2047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ITX-청
2085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ITX-청
2051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ITX-청
2053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ITX-청
2055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ITX-청
2087	21:50			22:07		22:39	22:47		23:02	23:05	토 ITX-청
2059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2021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ITX-청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ITX-청
2074	07:24	07:28	07:37	07:46	07:54		08:07				08:30			08:48	ITX-청
2006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ITX-청
210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ITX-청
2014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ITX-청
2018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ITX-청
2020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ITX-청
2024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ITX-청
2028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ITX-청
203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ITX-청
203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ITX-청
2102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ITX-청
203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ITX-청
2040	18:54	18:58		19:13		19:31	20:22				19:53	19:58		20:12	ITX-청
2078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ITX-청
2046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ITX-청
2048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ITX-청
200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ITX-청
2072	07:44	07:48	07:57	08:06		08:24	08:48			09:05	토 ITX-청
200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ITX-청
2008	08:47	08:51	9:00	09:09		09:27	09:50			10:07	ITX-청
210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ITX-청
2074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ITX-청
201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ITX-청
2076	10:49	10:53	11:02	11:11		11:29	11:51			12:08	토 ITX-청
2018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ITX-청
2078	11:53	11:57	12:06	12:14		12:32	12:53			13:10	토 ITX-청
2022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ITX-청
208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ITX-청
2026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ITX-청
2028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ITX-청
2082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ITX-청
2032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ITX-청
2084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ITX-청
2036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ITX-청
2102	16:55	16:59		17:14			17:52			18:08	ITX-청
2040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ITX-청
2086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ITX-청
2044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ITX-청
2046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ITX-청
2048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ITX-청
2088	20:00	20:04	20:12	20:21		20:39	21:02			21:19	ITX-청
2052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ITX-청
2054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22:36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KTX 93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마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전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112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마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
5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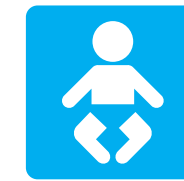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3,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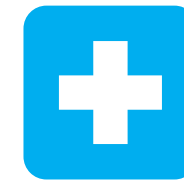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8, 9,
11, 12, 13, 16, 17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영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열림 버튼
Open-Button(3mins)**

**3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3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3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부가 서비스 Optional Services

KTX 서늘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전용 라운지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타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밤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선불 전국 호환 교통카드**
-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 등
- ※ **구입 및 충전** 역 매표 창구, 지하철 무인 기기,
스토리웨이 매장, 이마트24 등
- 청소년·어린이 할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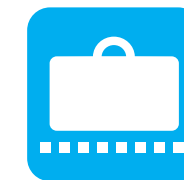
부가 서비스 Optional Services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여행사, 인천공항 철도 안내데스크
승차장 서울역 서편 전용 정류장,
용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환승 정류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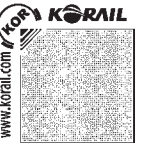


주차 대행 서비스 위치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맞은편
A주차장



수하물 택배 서비스
열차 이용 시 휴대하기 불편한
짐을 할인된 택배 요금으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신청 및 접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여수엑스포, 포함
문의 1588-0011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울산,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함
문의 1544-7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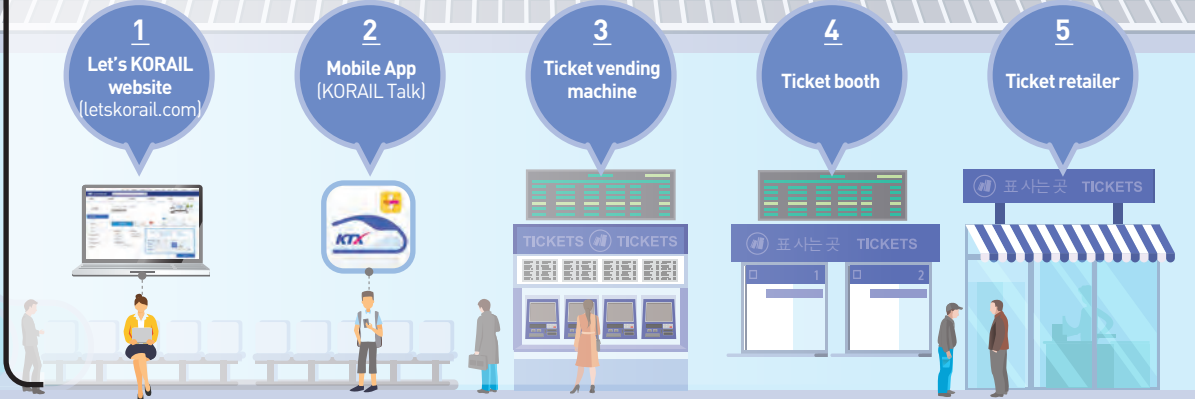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가능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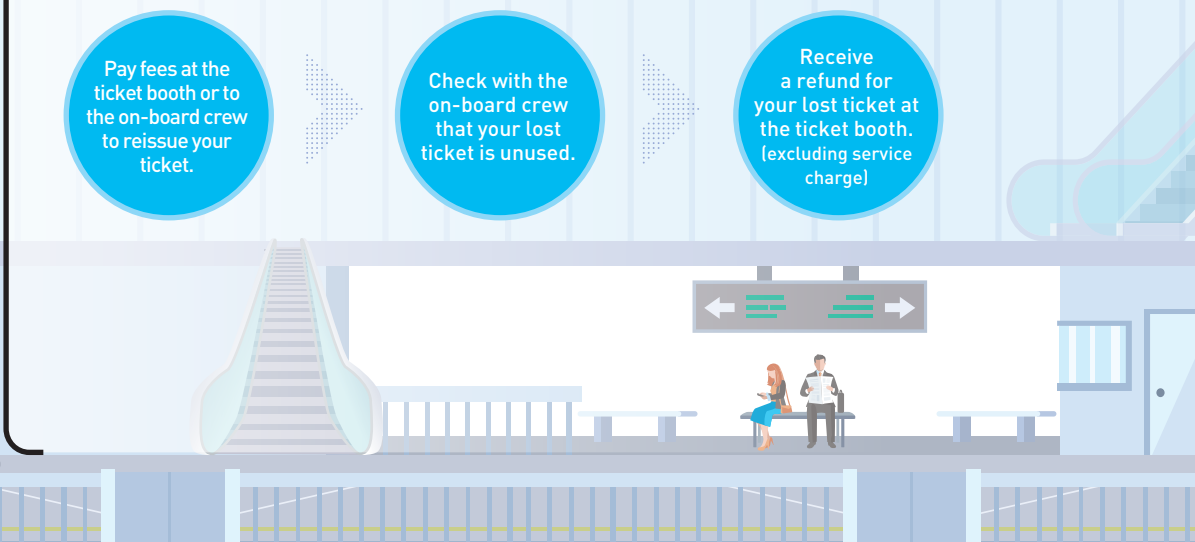
승차권 실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



TICKET LOSS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승차권 환

구분	출발 전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출발 시간 전		20분까지	20~60분	60분~도착
월~목요일	무료		5%	월~목요일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금~일요일, 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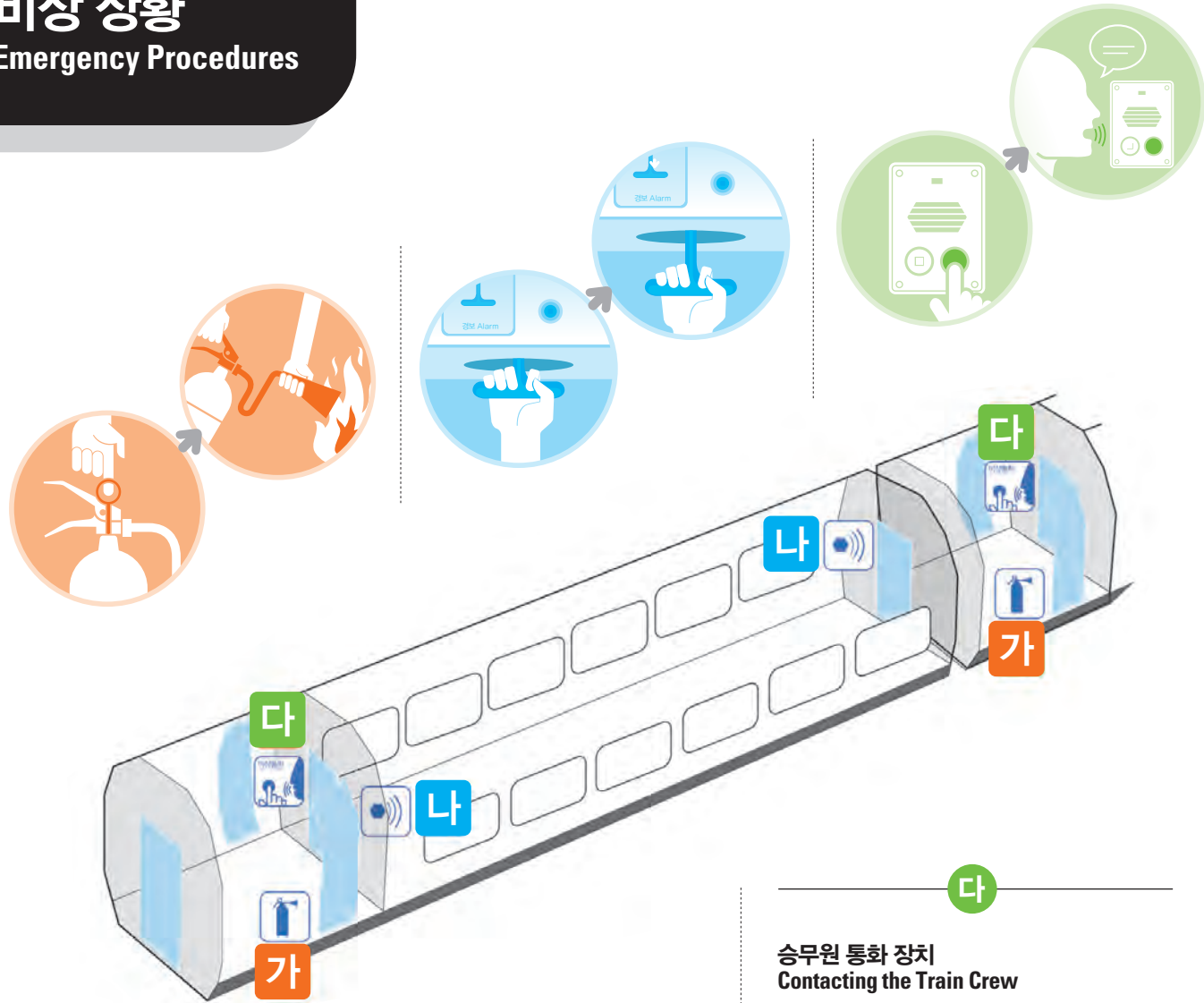
*ARS 반환은 자동 응답 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 반환 신청)과 다름.

TICKET REFUND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ee		5%	Mon-Thu	15%	40%	70%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Fri-Sun, holidays			

*A refund made via the ARS number (1544-1188) is not the same as one processed by the KORAIL Customer Service Center.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허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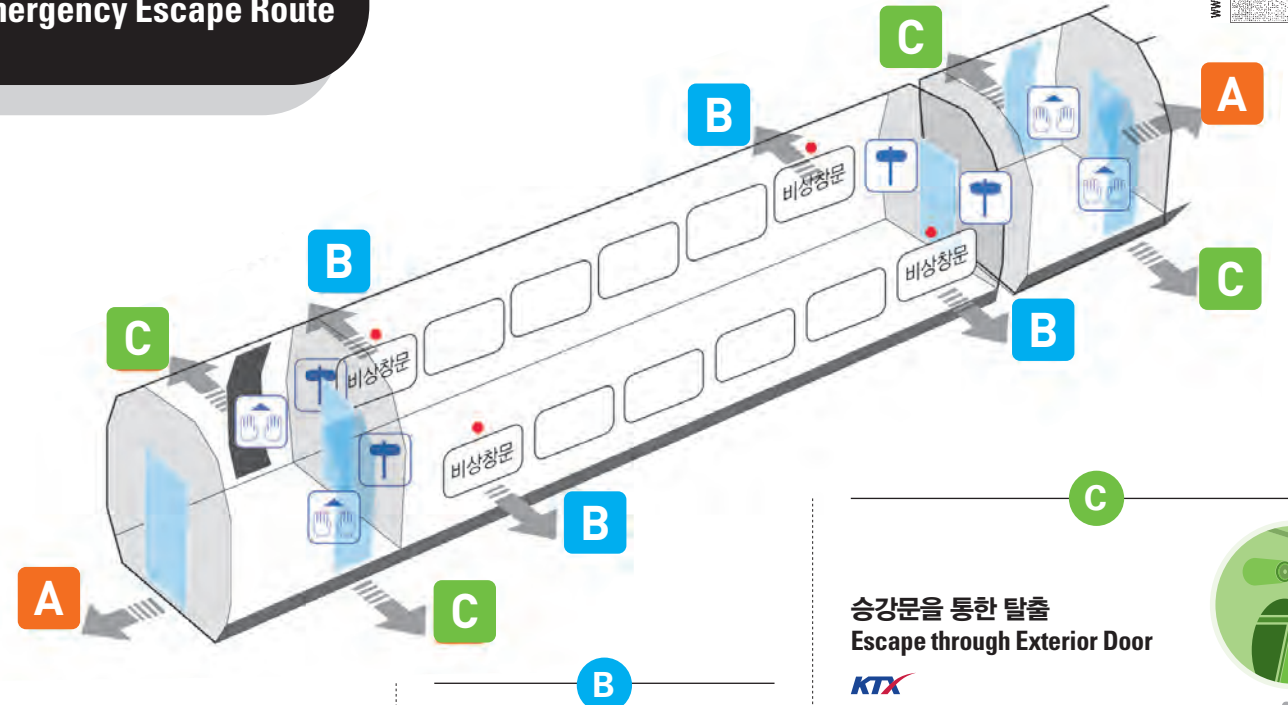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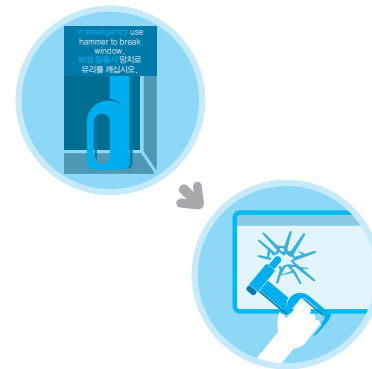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ITX-새마을: 4호차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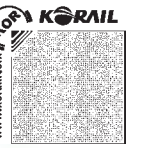
1. 각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1. 각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여전한 선생님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평상시 관심이 있던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방 장판에 내 엉덩이 라인이 새겨질 정도로 뽀질나게 드나들었고 제대 후엔 회장도 했다. 대학 생활은 학과(는 물론 당연히 공부)가 아닌 동아리가 중심이었다. 동아리방에서 노닥거리고, 동아리원들과 술을 마시고, 다른 대학교 동아리와 교류하는 동안 20대가 후딱 지나갔다. 바로 그 동아리의 지도 교수가 정경연 선생님이었다. 미술대학 건물로 가 선생님을 만나 뵈 때마다 반갑게 웃으며 안아 주셨다. 나는 '따뜻한 분이시구나'라고만 생각했다. 당시엔 아는 게 없어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인지 몰랐다. 얼마 전, '작가의 방' 섭외 요청 전화를 드리자 흔쾌히 수락하셨다. 지난해 정년 퇴임한 선생님은 아직도 학교 앞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계셨다. 작업실 문을 여는 동시에 반갑게 웃으며 안아 주셨다. 여전히 따뜻해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이 기사를 잘 읽어 주시길, 독자님들도 그래 주시길 바라면서 썼다. 취재하고 글을 쓴 며칠이 선생님처럼 따뜻했다. **김규보**

친구 42

1. 서로 안 지 10년은 된 듯하지만 사실은 1년밖에 안 된 김보라·이지원 영화감독님이 이번 호 '트래블 이슈' 칼럼 촬영에 동행했다. 두 분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 사실 만나기 전에는 워낙 유명한 감독이다 보니 어려운 분일 것 같아 약간 긴장했는데, 넘나 상냥하셔서 굳었던 마음이 만난 지 5분 만에... 아니 만나자마자 녹아 버렸다. "제가 평균 키거든요? 근데 키 큰 김보라 감독 옆에만 가면 ㅎㅎㅎ 아시죠? 원근법 살려서 찍어 주세요~" <미쓰백> 이지원 감독님의 거침없는 입담과 <별새> 김보라 감독님의 할 말은 하는 조곤조곤 화법에 '케미'가 팡팡, 웃음이 빵빵 터졌다. 두 분 차기작도 모두 대박 나길 바라요! 2. 친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 마감 단짝 셋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후***, 자*** 껌. 심심한 입에 활력을 더하고 두뇌 활동에도 도움을 주리라 믿고 기사를 쓸 때마다 의지한다. 두 번째는 조금 소홀해진 옛사랑 킨* 초콜릿. 하루 한 개,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정말 찰떡이다. 마지막은 두구두구두구 <KTX매거진> 팀! 이번 마감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내경**



날이 추워서, 날이 따뜻하지 않아서

'슬로 여행' 취재차 방문한 강원도 평창 진부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굿즈였다. 올림픽 당시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마음이 확 솔렸다.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모자 하나를 구입해 취재 내내 유용하게 썼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곱게 접어 보조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자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서울역에서 갈아탄 지하철에 고이 두고 내렸다. 모자와 난 짧게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사진을 매만진다. 흑흑. 그나저나 '슬로 여행' 취재 때는 정말 추웠다. 모자, 패딩 조끼, 장갑, 귀마개, 롱 패딩, 기모 바지, 핫 팩까지 단단히 준비해서 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취재하다 보니 펜이 안 나왔다. 문화관광해설사님 말씀을 잘 받아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한 펜 세 개가 모두 안 나왔다. 펜을 꼭 쥐고 녹여도 그새 다시 얼 정도였다. 그러니 대관령 삼양목장 '바람의 언덕'에선 오죽했으랴. 그럼에도 즉석에서 모델 촬영에 응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북 받으실 거예요. **진주영**

어쩌다 넷

오늘이 1월 19일. 딱 일주일 됐다, 야근을 시작한 지. 하루, 이를 갈수록 늦어지더니 그저께와 어제는 새벽 4시에 퇴근했...(말잇뚱).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했느냐. 나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오래 회사에 있어야 했는지. 아마도 근무시간에 웹툰과 웹소설을 읽어서일까 ㅎㅎ 바쁜 와중에, 정말 그 와중에 웹툰과 웹소설을 본 것은 맛. 그건 '문화 돋보기' 칼럼을 쓰기 위함이었다. '웹툰을 본 적이 언제야'라며 연재 사이트에 들어가니 내가 즐겨 보던 완결 웹툰이 저 아래에 있다. 그만큼 웹툰과 웹소설과 잠시 멀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사를 쓰는 데 며칠이 걸렸다. 그리고 알았다. 세상엔 정말 재미있는 웹툰이 많다는 것을. 지금 이 지점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 웹툰&웹소설 이야기만 하기에 편집 후기 분량은 적다. 다섯에서 넷이 돼도 그렇다. 편집 후기에 현정 선배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선배가 어디에 가셨느냐면요(앞에 가셨습니다, 독자님들). 편집 후기와 관련 없는 딸기 디저트 사진 이야기는 42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표다정**



전국 강소형 잠재관광지

그림. 김예슬

KTX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연천

지질 예술 전시장, 임진적벽길

